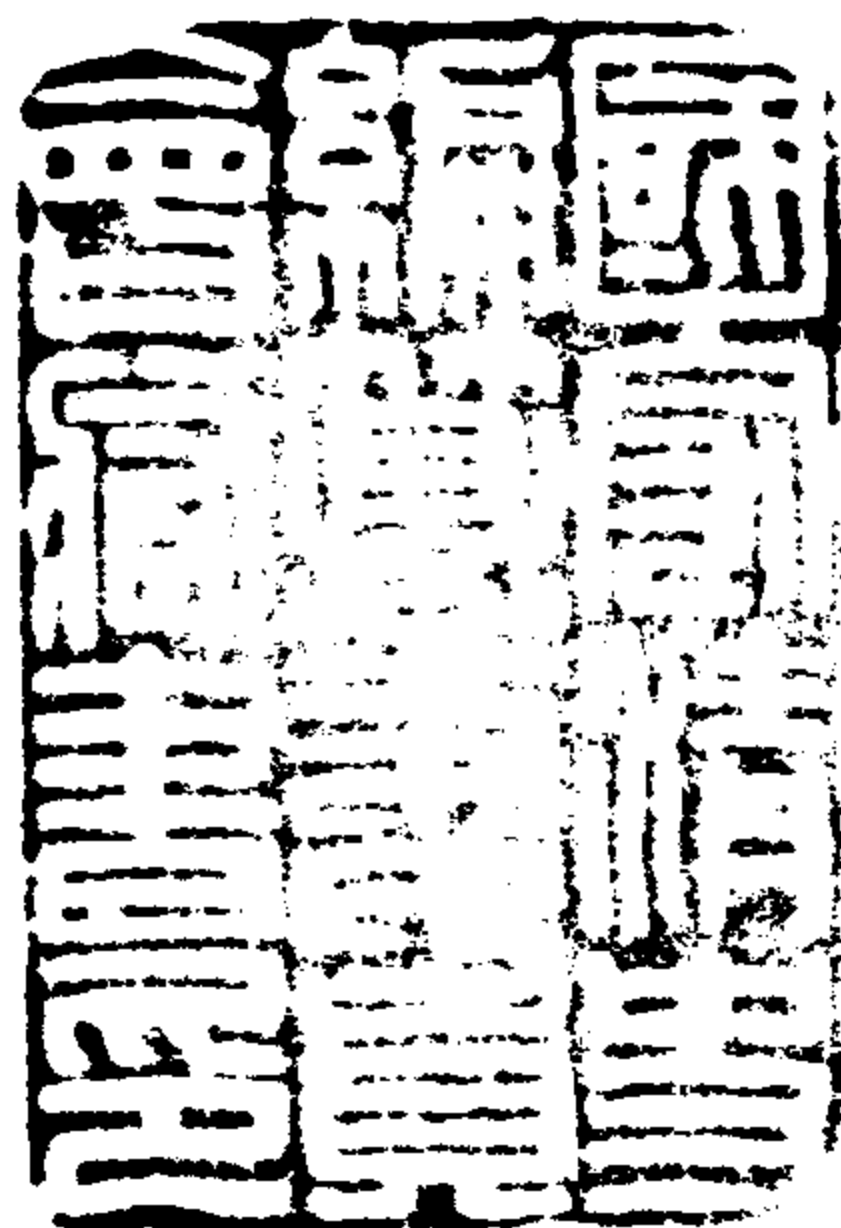


008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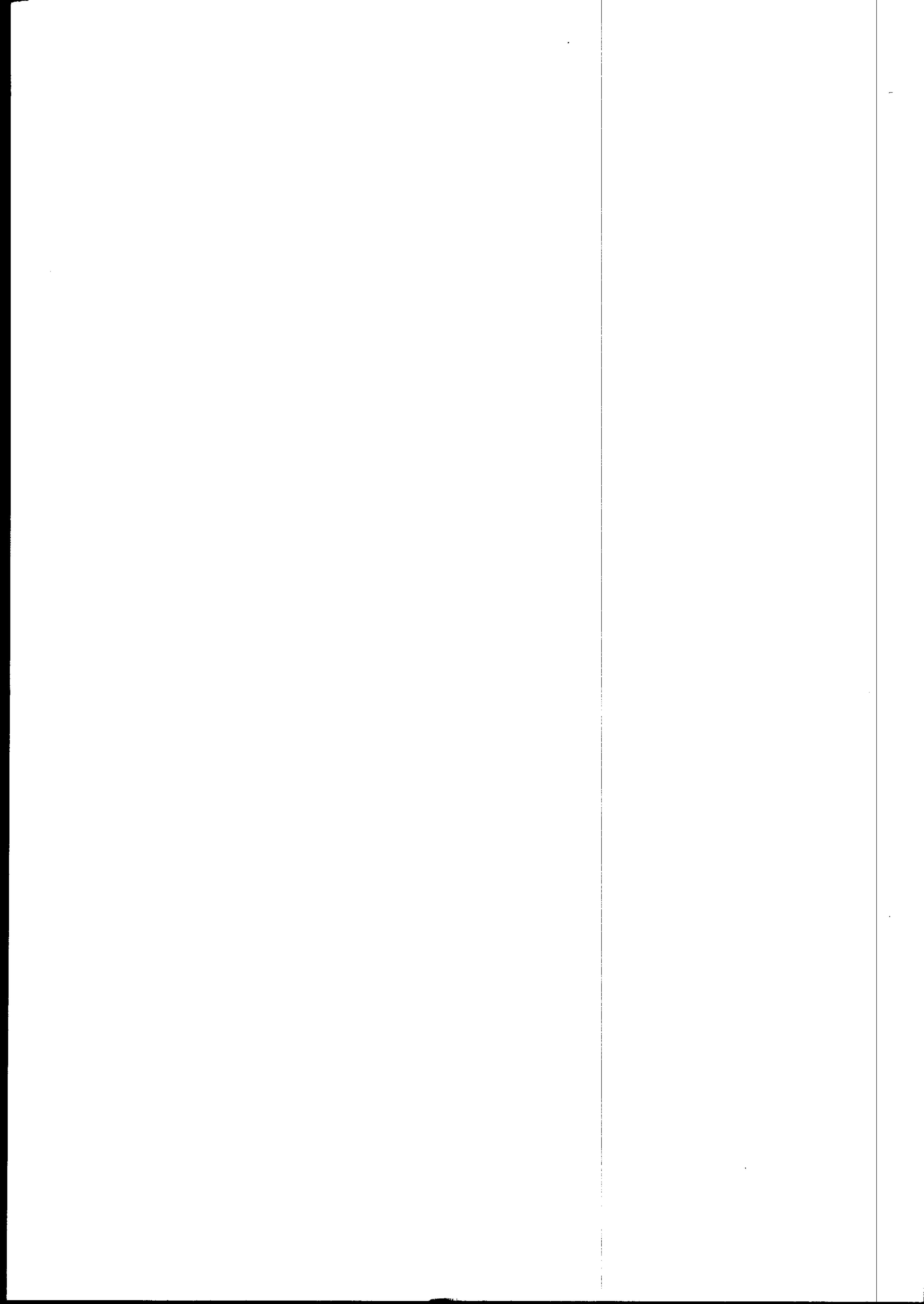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9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 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様な 文化交流과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밝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尙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시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 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튼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위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과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해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隔絶이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尙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점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 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 중 燕行錄의 研究는 평 대신 담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적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 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 년 전에 民族文化推進黨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黨를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黨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공금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교수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 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의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的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 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 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해져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헌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 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씀

— 일러두기 —

○ 이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 燕行錄類 瀋陽日記類 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 單行本과 文集本, 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 燕行別章帖, 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詩, 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 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 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 燕行年代順 目錄, 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 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 기록되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電話)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治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治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미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 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輓錄), 이상봉(李商鳳)??, 북원록(北輓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상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 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슈로도천록, 미상(??), 슈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溍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溍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 연사일기(燕槎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槎日記) 1冊, 哲宗 14 同治 2 癸亥 1863
- 연사필기(燕槎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槎筆記) 2冊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冊, 純祖 22 道光 2 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冊, 正祖 8 乾隆 49 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헌유고(樗軒遺稿), 世祖 5 天順 3 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 1, 景宗 2 康熙 61 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재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冊, 哲宗 11 咸豐 1 庚申 1860
-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冊, 純祖 31 道光 11 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冊, 英祖 42 乾隆 31 丙戌 1766
- 연행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冊?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冊, 肅宗 46 康熙 59 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 3,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冊, 宣祖 40 萬曆 35 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 20 萬曆 15 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冊,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천행록 坤,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천행록 坤, 1冊,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冊, 純祖 4 嘉慶 9 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건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冊, 肅宗 24 康熙 37 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 14 天啓 2 壬戌 1622(9-37)

一 차례 一

• 연기정(燕紀程)	미상(未詳?)	99	111
• 연행록(燕行錄)	미상(未詳?)	99	120
• 연행록(燕行錄)	미상(未詳?)	99	128
• 연행일기(燕行日記)	미상(未詳?)	99	138
• 화행일기(華行日記)	안효진(安孝鎭?)	99	148



燕紀程入

關河詠懷
遠瀟紀行
東槎酬唱
南館題詠
應求漫錄
春樹清譚
榆西館記
蘭雪詩龕
金臺詩集
玉河簡帖

外藩廣詩
出塞別章

燕荆紀程卷之三

關河詠懷

星輅啓行、原隰載馳、長亭短亭、雨雪霏霏、戎裝朝
騎、隱然有從軍出塞之意、而得詩於關河、權始之
際、狀以為關河詠懷。

弘濟院

弘濟橋頭落日晴、親朋送我勸深卮、今行可展桑蓬
志、醉後長吟出塞詩。

花石亭板上韻

携酒登臨際、林亭興不窮、江寒凝遠碧、楓落剩殘紅、

舊會三更月前程萬里風、烟波徒極目、停帆夕陽中、

松京懷古

滿月臺邊善竹橋、撫歌牧唱認前朝、龍淵古瀑鳴鳴
咽、鵝嶺詩雲鎖寂寥、彤旆後江湖水退、繁華改郭暮
烟消、傷心欲問興亡事、杜宇聲中曉夢遙、

青石關

長川亂石夾山迴、一片孤城萬莫開、却恨青邱無壯
士、當年胡馬踏關來、

金水屏

蒼嶺奇岩作畫屏、泠泠風珮最宜聽、金陵古堦迴湖

石倒挿潭心，蕪晚青。

蕊秀

烹茶未對玉溜泉，蟹眼香侵石榻圓。
榻外耳尋蕊秀，勝皇華詩竹好相傳。

月波樓

城頭縹緲一樓橫，轉盼前游又此行。
鈞幕三年迷舊夢，望槎十月感寒旌。
黃泥霜落水輪湧，赤壁風來鏡面平。
官妓不知柔海變，畫船猶唱濯歌聲。

練光亭

點點山圍平野勢，層層樓倚大江聲。
千年裡樂殷師

國萬戶、簾旌衛滿城、錦席林檎、棗屏色、盡船簫鼓弄
春晴、麒麟寶馬、元消息、草綠芳洲、野鳥鳴

箕子殿

麥穗歌殘後、天教白馬東、九疇傳聖道、八條愛夷風
嘒服臨遠廟、井田繞古宮、青邱靈化雨、紫報永元窮

碧溪詩槎三首

百祥樓

和經畹別語

一曲鏡歌出塞遠，故人留別意，疎蕭嚴城夜，柝聊相
還細酌秋燈，又見招幕，局風流迷舊夢，關河雨雲張
今朝老梅瘦石清綠，在奈此荒詞愧續，額。

曉星嶺

遙風獵獵曉星關、此地經過室等間、風雨孤城三夕
子、至今猶說鄭嘉山、

戲贈趙和卿二首

別淚絲絲濕晚粧、青衫掩映白蓮香、清歌動得乘槎
客、誰道蓮花似六郎、

惜別佳人理曉粧、征衫不染楚雲香、吾將買駿燕南
市、贏得青樓薄倖郎、

天淵亭口雜示松溪

花壓闌干月影移、遠行今夜一樽宜、青春作伴關東

客共說風霜度剡時、

統軍身

夜深獨上統軍身、雪壓邊城月滿汀、
鶴笛笛聲空連朔、
漠龍灣、剡野接滄溟、孤吟、
忽憶登樓紫、壯志、
還同出塞青、
極目中原、迷北望、
寒梅、
鈿掃、
諳先客、

鴨綠江

遼瀋紀行

自柵門至皇城、長程漫漫、奇觀壯蹟、有懷輒詠、得
詩於瀋陽遼野之間者頗多、故取為遼瀋紀行、

柵門

九連城外柵為門、使蓋翩翩入塞垣、灣上健兒華語
熟、逢人輒揖問寒暄、

鳳凰城

金石山前眼忽明、紅樓粉堞鳳凰城、樓邊繫馬登樓
去、盡檻風帘酒氣清、

青石嶺

宸翰一闌尚依倚、想像空山落日暉、風雨當年吹不盡、翻成凍雪濕征衣、

駐蹕臺

遼野秋風武帳開、唐兵百萬耀威來、東征但受城頭拜、塞上空留駐蹕臺、

鴉鵲關

悠悠行邁道途賒、塞上風雲度歲華、鴉鵲關頭烟似織、魚龍堆北雪如花、青春謾擲班生筆、老大空隨博望槎、憎殺胡笳三兩曲、征人不得夢還家、

連山遇雪

大雪連山夜度關，
照車結駟逐風湍。
驚人鵝鴨聲相混，
宛似唐軍入蔡間。

高麗叢

歷代遺民占小窪，
斜陽駐馬恨經過。
潭疑遼鶴初還柱，
更看皇鷄各識家。
覆屋編茅循俗尚，
灌田種稻料生涯。
人情易作滄桑感，
故國興亡奈爾何。

太子河

風雨秦宮劍作虹，
王賁鐵甲下雲中。
千年未報烏頭怨，
恨入長河夕照紅。

白塔

奇於銅柱壯金墉、風鐸聲聞第幾重、雄鎮遼陽千里
野、至今人說尉遲恭、

羊腸河

膏車往馬走康莊、九曲冰河舊地荒、若使人心如此
險、世間何處不羊腸、

瀋陽行

瀋陽城內春風早、瀋陽城外春草生、行人曉起鷓鴣聲
裡、去路東指海雲晴、傷心欲問朝鮮館、顏垣敗礎如
蛛網、寒風淒雨嶺頭詞、悵憶往事增悲哽、孤身舊壘
暗烟蕪、尚有菜田下上平、緬想當日三學士、城頭殉

節獨祖明清陰入就南館因抗節千秋永有聲奇計
不遜春坊吏玉辱身死鄭常卿遠蒞風霜金繒使此
地年年難為情

遼野

遼野大无外蒼茫眼界空乾坤分上下日月辨西東
古柱千年鶴長河數點鴻青邱何處是曙色最先紅

又

蒼蒼巨野入思量幾箇英雄蹴踏場剡水殘山俄渺
渺高天大地忽蕩蕩雲連連郭十尋塔舖錯長程萬
樹揚遙指扶桑紅日出行人回首認東方

贈松溪

雪塞寒燈夜，冰河落日時。
相傳歸夢懶，共說計程遲。
海內俱青眼，家中最白眉。
平原春酒席，倘憶度遼詩。

孤竹城

墨胎遺廟白雲灣，
諫國高風伯仲間。
休說採薇猶有愧，
首陽山是不周山。

首陽山

日月明臨海島青，
胡然真使漢南庭。
首陽山色尋常過，
愧見繆祠二子靈。

射虎石

虜騎遠逃右北平、漢家飛將振英名、陰山月射彎弓影、石碣千年尚帶驚、

燕山驛

燕山古驛滿江紅、愁恨分明一曲中、千載詞人腸斷處、碧天無限聽歸鴻、

榛子店和季文蘭詩

塞天漠漠曉啼粧、尚憶阿嬌作嫁裳、夢裏江南春草綠、芳心應恨鴈隨陽、

望夫石

風風雨雨望夫山、一別阿郎不復還、日落長城何處

是雲根尚帶淚花斑、

山海關懷古

天高地迥一關開、眼底平臨棘鞬堆、大野浮雲東入
海、長城落日北登臺、山河遠盡英雄去、歲月羞深玉
帛來、從古防胡無上策、徐王誰接護崔嵬、

渤海日出

滄溟曙色日輪紅、眼底扶桑地盡東、雲忽出封留漢
帝、山宜採藥泛秦童、青齋明滅孤烟外、碣石崢嶸積
氣中、我欲乘槎從此去、磬囊消息海連空、

滄海棧

碧海東頭聳一樓、徐王去後幾重修、當時陰雨防胡
策、是日風烟過客愁、曾與柔荑應此水、因師擊磬在
何洲、記曾木道朝天使、檻外年年逐繫舟

碣石

風濤擊石震天轟、噴沫晴空破雪城、恰似吾東羨石
海、波凌石激勢崢嶸、

溪河

山海關頭日欲曛、長河獵騎散如雲、東人且莫尋常
過、柳樹將軍尚有魂、

獨樂寺

漁陽古寺獨歸然，槐樹前身悟老禪。
若信紅燈靈異跡，安知醉佛是青蓮。

東槎酬唱

三使沿路、指顧賞詠、朴松漢性完、朴夢暉宗道、以
三房伴、備共賦、余以使臣之命、亦恭席末、收以為
東使酬唱

途中雜詠

不過中外別、同字不同音、關市通商貨、學宮野士林、
晚柯治足止、咳蔗入須深、相得皆兄弟、勗哉保此心、

上使

耳瑜鴉鵲嶺、吞滙解方音、塞路皆商穀、沿村少藝林、
海山環以控、陰而慮之深、誰識伊川歎、昇平我此心、

副使

為奏歌三闋、峨洋紹會音、病床能勿藥、詩苑有評林、
關路同酸苦、交情酌淺深、一篇言不盡、君子貴知心

書狀

搏風從北海、懷土欲南音、塞雪疑無路、關柳故作林、
車鳴知石氣、冰薄恧河深、去去燕雲白、館燈照客心

松溪

纜渡西江水、驚聞北鄙音、滿田餘菜地、剗植記薑林、
旅榻眠全少、詩筵話到深、懸懸東海月、夜入照庭心

夢暝

雪棧人已遠、中夏孰知音、觀樂嗟衰世、陳詩採藝林、
庭檠經紀壯、荷鑄我嚴深、醉誦皇華什、邛堪此日心、
遠、恰似人生未老齡、

晨駕言星旆、夕星漫漫汲汲度、長身尚餘前路許多、
不信吾行應使星、淫冠獨立尚亭亭、縱然仙鶴人間
下、十丈車塵失九齡、

錯如暴子列如星、明代烟台漢代亭、城郭人民依舊
否、令感一去已千齡、

薄薄征輶轉曉星、不將風景上新亭、遺霜一夜人頭

心田

上使

白、于役從今更幾齡、

種種憐我鬢髮星、清晨攬睡白旗亭、此行非為游觀
樂、祇惜寥寥送百齡、

遠瀟野分箕尾星、誰栽河柳立亭亭、莫言材大難為
用、蔭暘由來已百齡、

松溪

游戲世間一歲星、燕雲漠漠走長亭、遼陽差可吾人
意、始免虛生半百齡、

雄關巨柵錯暴星、十里烟台五里亭、若使山河長作
寶、秦皇漢帝萬千齡、

貫月槎邊犯客星、詞鋒酒戶簇旗亭、烟雲滿地揮毫

虞、風、度、誰、能、似、九、齡、

心田

荊門烟樹

魚、端、遠、野、冒、燕、州、樹、樹、烟、烟、宛、在、眸、積、氣、淋、漓、偏、受、
日、平、田、渺、漠、已、經、秋、黃、塵、過、却、翻、桑、海、白、雪、餘、寒、凍、
玉、樓、萬、象、多、詐、真、面、目、不、知、孰、與、化、工、謀、上、使、
有、痕、濃、淡、散、齊、州、空、使、行、人、騁、速、眸、寒、日、微、明、雪、霽、
後、晚、潮、方、上、雨、過、秋、連、天、草、色、沉、島、嶼、傷、岸、人、家、起、
塵、樓、最、是、如、雲、如、霧、際、傳、神、難、與、畫、工、謀、夢、睡、
劇、戲、化、翁、幼、荊、州、非、烟、似、樹、剗、鏡、眸、奇、形、隱、隱、沉、紅、
日、積、氣、漫、漫、接、秦、秋、說、戎、荒、唐、桑、變、海、看、愈、恍、惚、塵、

嚙捷諸公莫記詩如畫、模寫神功孰與謀、
心曰

鑿巫閼山

名山無恙鎮幽州、刻久逢君更拭眸、露角神龍雲欲
雨、放歸羣馬草方秋、長城浪道防胡地、澄澗今為過
客樓、歸路躋攀知有便、桃花酒熟好相謀、
上使
阿彌庄下古幽州、七百雄山始入眸、聲祀何年虞日
月、傷心無地魯春秋、平臨北陸關龍野、橫接東溟吹
壘樓、莫說藩籬天所限、袁吳自是少良謀、
副使
謂山北鎮古幽州、今見高標拭我眸、積氣淋漓窮萬
里、真精磅礴毓千秋、傷臨箕聖青邱野、中有仙人白

玉樓好是春風登覽計、歸程得與弟兄謀、書狀
支離野色度遼州、山似高人更拭眸、石作曼隍南枕
夏、海為維穀北防秋、寅寅義宅迎新日、戊辛陳家有
古樓、洞裏桃花千萬樹、明春遊事與誰謀、松溪
遼野將窮近、荊州喜看山色入青眸、平抱大洋形北
走、橫抱雄鎮氣南浮、名區路指桃花洞、勝賞人傳望
海樓、境遇會心心便快、此行此外更何求、夢暝
遼野全包北塞州、連天嶽色忽青眸、羣龍始放滄溟
水、萬馬爭奔苜蓿秋、直抵崢嶸之碣石、橫看縹緲似
身樓、桃花洞裏新醪熟、作伴青春一解謀、心田

咏塵

遠天渺漠接遠山、快遠塵埃漲西關、細積恒河知佛
力、蓋生瀛海駐仙顏、登車孟博徒虛志、隔廟元規搃
內班、何處人家昨此象、今行不必歎間關、

行行已過十三山、吹息茫然塞兩關、望以恒河那勝
指、難於蜀道使凋顏、柴戈多事誰荆玉、勞勩無功憐
漢班、海瘴峰嵐渾一色、不知何處七重關、（塵）副使
萬里風沙十丈塵、關河漠漠渡迷津、紛飛原野烟雲
合、散入門簾嚏咳頻、塵口先噓調鼎舌、頰眉顧笑拂
衣人、登車我有澄清志、幾日長驅費苦辛、書狀

如烟於水霧於山、孤島長空滅沒間、騁暗縱教迷衆
目、清明自在拭吾顏、沙崩鉅野、秦車幾、柴戍汾陽楚
馬班、願得仁天晴雨降、須臾洗盡淨遼關、
遼陽七百回忘山、去馬來牛、講蒼間、無病可障西塞
氣、有書難撲俗人顏、掃過旅舍三君郭、守盡邊城萬
里班、劫劫波波都幻界、我今隨後入重關、
輕車出沒度遼山、刺刺塵塵曠漠間、咫尺看時多白
眼、支離撲虛老朱顏、犬吹風霧全砂積、知起香烟玉
筍班、或恐穢塵埋寶鑑、門簾盡日故常閑、

祖家牌樓

心田

奇於銅柱壯樓堦、老石君家過劫催、身作長城居外
久、首移援陣向東開、嗟并忍說當年事、樂也非忘乃
祖才、鯁峙恩榮三世誥、緩教過客浩歎迴、上使
原頭嘔血尚層堦、咄咄降幡一夜催、魏廟丹青何代
賁、隴蹊桃李為誰開、行人護起登樓恨、良手徒帶琢
玉才、遙指望夫山頂石、千秋不轉水滄迴、副使
斜陽車馬北臺堦、老石蒼然初雨催、感契金陵三世
重元勳、玉帳四遠開、有孫隴右終為恥、生子文家奈
不才、杜宇年年啼血恨、江紅一闋水雲迴、素狀
穿遠古山上有堦、翻轉時事若相催、霜跡現首新苔

蝕螺殼天台蕙石開、四世蟬聯承祖業、三邊帟衛出
羣才、如何萬折東流、水在邊狂瀾不復迴、松溪
松山昨過、舊烟台極目、傷心去馬催、終古鳴冤河水
咽、至今餘恨錦城開、舍生未辨裴巡節、不死猶慚管
仲才、四世名勳承祖宅、行人指點牌樓迴、夢旼
雲根千尺作樓台、過客傳車落日催、寵誥敢忘三世
重、降幡遙自兩人開、空遺老石千年恨、可惜長城萬
里才、試看山頭嘔血處、報國袁公死不迴、心田

山海關

九王躍入氣如山、三桂當年獻此關、尚有頽痕存海

上、至今遺恨在人間、一朝大勢難容手、無地英雄可
置顏、白歎書生忘遠畧、只將風景浪吟還、上使
如帶如襟接海山、防胡遠計設重關、賊曠護固深藏
裡、全局都輸一着閒、投奔千年留白骨、行人萬里減
朱顏、晚來微醉懷今古、搔首青天問好還、副使
萬里金城億丈山、安危天下大機關、囊包十二克封
內、縮穀三千蜀道間、地勢巫閭隣鞞鞞、邦基燕薊肇
完顏、行人曉攬扶桑響、碧海東頭(蜀)月還、書狀
長城一面海西山、星駟嘶雲入古關、石勢參差千里
外、烟花晴鏡百年間、短檠大手多徐遠、守備良籌有

伯顏、秦家、總賴、青門、鎖白馬、公孫去不還、
長城、盡處、海連山、蓋自隋唐設此關、治法常論夷險、
外、天心、莫測、廢與開、重門、擊柝、誠何意、舍馬、繞行、亦
強顏、何待、明春、歸去、路、青牛、不必、著、經、還、
渤海、西連、蘇、鞞、山、其中、蓋有、古、榆、關、長、龍、飲、水、凝、雲、
外、昂、鶴、衝、霄、香、霽、間、鎖、鑰、深、嚴、誰、著、手、經、營、壯、麗、始
握、顏、吾、行、已、覘、無、遠、警、獯、騎、冰、河、信、馬、還、
心田

夷齊廟

宗周、个、室、嚮、陽、音、萬、國、懷、仁、孰、不、庭、獨、有、西、山、歸、拜
處、洋洋、六、七、在、天、靈、
上使

暮歲嚴霜獨也青、吾邦有竹滿人庭、諸君尚慕夷齊、
德不必灤河拜塑靈、
上使

陽山薇蕨每年青、苞載行厨入廟庭、為是來從箕子、
回心香一瓣、慰精靈、
副使

吾知松柏歲寒青、特立貞姿雪滿庭、斷作袿椹扶万、
古不周山下安精靈、
書狀

一抹雷岑万古青、點塵不許入虛庭、殷天雨露涵濡、
久、薇蕨非要養性靈、
松溪

聞風來自海桑青、擬薦香薇拜廟庭、行車遠心如恨、
去、首陽山色暗通靈、
夢暉

灤河東畔竹青青、云有夷齊廟象庭、海外亦尊清聖
節、知應地水有精靈、
心田

高麗村

小聚如蠅占一窪、舊時同國恨今過、土風始見編茅
屋、水種猶傳飯稻家、淮橘無情嗟易化、海桑多幻浩
無涯、吾東蓋有明民裔、離亂人間奈教何、
上使
榛子嶺前白草窪、他鄉他席幾經過、路從遠瀋二千
里、村有高麗十數家、橫結茅茨傳舊俗、倚臨田水寫
生涯、相逢不識初從說、學語其如衆楚何、
副使
井壇壇漫水靈窪、將地村容慣眼過、人似移花作舊

曉、門臨曲棗是誰家、土風酒熟鴉黃味、鄉夢潮生鴨
綠涯、聞道今年兼水旱、此中活計更如何、松溪
還、鄉河匯小成窪、村是高麓信眼過、刈稻留根臨水
壠、橋茅為屋認田家、仙蹤縱得枕潭趣、幻夢尚驚蓬
海涯、買餅欲憑買客問、其如音字不同何、夢暝
石作矮牆草作窪、高麓村下暫停過、謠傳楚國餘三
戶、地入唐朝統一家、異域長程驚歲暮、吾鄉舊俗見
天涯、水田茅屋方言解、欲問居人亦復何、心田

十三山

七百野過處、十三山到時、中州如許大、半路尚云遙、

作伴皆青眼、多君有白眉、相將勞祿苦、非為喜吟詩、

上使

遼陽千里野、行邁幾多時、路坦輕車德、天長落日遲、
強談空奮腕、避曠或揚眉、爲意如工畫、請君看我詩、

書狀

仗節關河路、賢豪際盛時、渡水車益駛、衝雪馬嫌遲、
蒞月新粧面、巫雲未了眉、漫吟良亦苦、有酒可無詩、

松溪

半塗見三月、若忘別家時、已厭西來遠、那堪北去遲、
看山頻矯首、覓句更頻眉、殊重大人意、續貂敢曰詩、

夢悔

忽省山出處、始覺野窮時、落照蒼蒼遠、歸雲冉冉遲、
尖曾疑馬耳、細我見蛾眉、漸近揩青眼、如逢舊雨詩、

心田

燕都懷古

魚龍往事使人嗟、鎮日燕南緩轡過、不見金台空落
照、也應易水尚寒波、繁深欲報丹猶可、功成雞屠毅
亦何、賢士如今多出仕、誰教行路訪悲歌、上使
昭王故事每興嗟、此日燕郊又我過、伯業沒篁依舊
植、軍聲濟水至今波、仙雲一去青山在、壯士重來白

髮何、駿骨涓南誰復買、請君鈿瓦倚君歌、書狀
摩挲駭骨獨吟嗟、影事金珪劫夢過、高義山東心極
火、未賢天下勢奔波、汶篁舊植而今在、碣石層雲奈
暮何、千載無終三尺土、夕陽乘草鈿為歌、松溪
溯古未嘗不吐嗟、我車方向燕南過、算堦歲是層霞
氣、暮渚雲空逝水被、涓市誰能罵馬至、金珪欲掃魚
人何、玉田蓋有昭王塚、聊以荒詞誅且歌、夢曉
駐馬燕南吐吐嗟、斜陽翹首謾吟過、空珪晚下續紗
葉、古渡寒生浙滬秋、駿骨招賢昌國至、烏頭報怨慶
卿何、千年鈿瓦風猶在、俠藪應多慷慨歌、心田

燕郊曉發

綿漢公程近，膺天行人夜。
發夜如斗，遠村日出鷄聲。
裏大野，星垂馬跡遠。
安得寒銷，唯有醉冰為詩役。
故無眠，春官奉表嚴期會。
屈指平明定入燕，上使
疎星缺月五更天。
一夜遶遶抵一斗，村或依山省不
辨野如乘海浩無邊。
候鷄遶遶頻驚似，驅馬悠悠慣
坐眠。冰飲霜侵銷外內，顏齡何事迹遶燕。
副使
鬢鬢疎星欲曙天，支離行役送今年。
車聲裂盡冰千尺，野勢平分月半邊。
時把鄉愁渾倚醉，每將詩思反
和眠。五雲多處金門闕，公事向甯北報燕。
書狀

征旆遙迤碣石天、
遙迤曙色若如年、
遠村燈暗鷄三唱、
古木星疎水一遙、
野勢不知何處盡、
車音頻響尚餘眠、
東方日出鄉山色、
越鳥羈心豈戀燕、
松溪滾滾忙忙綠、
底事遠山菊野度如年、
身經直北行塵裡、
家在關東出日邊、
初似鵬搏圖萬里、
今同蠶老就三眠、
暮投郊店晨仍發、
及到皇都乃入燕、
夢暝錯落星先碣石天、
羈燈對話夜如年、
嚴程飲馬長河外、
遠店鳴鷄古木邊、
寒氣雜銷謀薄醉、
新詩未了響殘眠、
倦遊贏得初裘弊、
豈為明朝北說燕、
心田

南館題詠

在南小館、逐日遊覽、凡樓臺城闕、風謠俗尚、人物古蹟、隨其所觀、聞、每於歸館之久、剔燈濡毫、名曰南館題詠、

黃金臺

寥落黃金駿馬坊、男兒不遇老將催、悲歌謾向燕雲發、古調多因郢雪開、去國空憐王粲意、憂時孰抱賈生才、請君且進杯中物、碧海茫茫水幾迴、

文山祠

燕山柴市上、丞相有祠堂、宋代仍官誥、明時殉節窟、

三年扶節義、萬世植綱常、此廟猶知感、旌忠以辨坊

岳王廟

森森廟檜影參差、髣髴精忠岳字旗、欲問金牌當日
事、中原父老淚先垂

關帝廟

家家建廟煥丹青、海內咸尊漢壽身、力折奸雄華夏
震心扶帝冑、日星煢名垂宇宙、兼忠義、文讀春秋尚
典型、東國亦修崇報典、爲夷掃蕩賴威靈

萬佛樓

連天傑閣鬱穹崇、萬佛精神入遠空、金碧愚民知有

詔太平天子試春燈、

簇三千官繡一層、黃涼繖下瑞雲凝、風花亂入長壽
苑、綠檉燈棚又砑棚、

五龍亭

玉竦橋外五龍亭、瓊島春雲作翠屏、陰映粉牆仙樂
出、遙知帝駕在宮庭、

太液池

誰把仙居一幅圖、平鋪金闕作蓬臺、溪家雲樹唐時
月、風景依稀在此湖、

萬柳堂歌

靈棲請子愛文章、照翮結社萬柳堂、萬柳堂中何所
有、有琴有書且有觴、相逢意氣為君飲、一彈一詠自
顏頰、石馬蒼龍聘雄詞、滄溟大才誰可當、迴風紫瀾
溯餘波、弇山詩若雲錦裳、但願乞食歌姬院、風流俊
逸表中郎、瓶花鏡月何景明、大陸平河李東陽、乘運
明時共躍躡、翻敲皇家鳴珮長、山河澆盡新亭淚、百
斗神州復滄桑、搔首欲問舊時社、碣石崢嶸金台荒、
金台之下多悲東、行人指點萬無楊、孤身翼然烟雨
際、余懷曠感徒悵望、

皇都雜詠

周王擇碣二千年、古篆奇福尚宛然、誰識青冢新石
鼓、大成門下永圖傳、
橋門環築石渠身、古剎辟雍泮水汀、萬世中原文教
盛、宵碑大刻十三經、
錦繡架梁坐氍毹、雍和宮裏喇嘛僧、蒙蓄盡入羈縻
術、規得英雄駕馭能、
除夕皇城百萬家、轟轟紙砲爛如葩、明朝相送平安
帖、好過年呀兩手叉、
太和殿裏老算子、紅帽黑裘按地圖、列國衣冠齊拜
處、鴻臚唱罷耳山呼、

重華宮鼓動如雷、萬戶千門次第開、曉色紅燈三十
對、影隨玉輦拜壇迴、
毳帳穹廬滿、籬開蒙胡雄健似神龜、朝驅素馳千餘
匹、盡載太行石炭來、

應求漫錄

留館四十日、庶可與語者、從中州士大夫遊、論經賦
詩、傾蓋如舊、古語云、同聲相應、同氣相求、遂收為應
求錄

熊昂碧、字今裴、號雲客、又曰露蕤、江蘇松江府金山
縣人、能文章、善飲酒、好談論、身軀軒昂、慷慨有豪士
風、嘗屢舉不中、賣家財得駿驃、南游廬山、衡嶽、北出
居庸關、適觀塞外山川、歸而著述、有雲客集、贈余、初
遇於丁卯橋席上、聞其客寓於蔣御史詩家、故一日
訪之、欣然歡迎、雲客頻發歎息之聲、有不過之色、余

先問曰、燕趙古多悲歌慷慨之士、余過金台碣石之
間、未見其人、子非其人耶、雲客起而執余手、余涕而
對曰、海內親朋、意氣相贈、子先得我心、古人云得一
知己足矣者、非耶、仍酌酒相歡、余問中國儒道之盛
衰、對曰、宋陸異、同前人辨之盡矣、今皇上重道崇儒、
黜陸尚朱、黃道周諸人、陞配文廟、讀書人千古一時
生際休明、彼此類手交臂也、余曰、斯文甚幸、時蔣少
泉諸人在座、約日觴詠、別有榆西雜記、
李中峰名辰、豫河南府洛陽縣人、己卯登科、年三十
早歲蜚英、為人端詳、能詩善書、與李月汀同宗、凡策

時朴雲序載宏、與余同往、最相得、中峰贈雲序別詩、
飲酒甚歡、聯雲序解佩刀贈之、中峰曰、古人相知、責在
知心、不必以物、雲序曰、得一善友、人間至樂、何以贈
不贈為言、即、余曰、歸期、只隔數宵、此懷耿耿、豈無贈
言、即、中峰曰、近來理學一門、日臻隆盛、象山、陽明之
邪說、久不作矣、從祀文廟者、近四五年內、又增入唐
陸贄、明呂坤、去并、又配入孫鍾元、黃道周、皆奉皇上
旨、意、士生斯世、豈不益加勉學、以進德基、余深謝之、
張甘生、號少白、江蘇松江府婁縣人、雲客之表弟、嘗
中書號玉水之婿也、年二十為人、英妙、工書法、贈余

黃道周、皇明崇禎朝太學士、歸石齋、幼即於福州有漳浦集、

迎立隆武帝於福州仍被逐

蒙魁一對

蔣呈禎號白菴、江蘇常州府荆溪縣人、為人端重簡
默、雲客諸人皆云深于經學者也、余問朱陸異同、荅
曰、朱子主敬、陸子主靜、但是先賢、後生安敢贅說、而
但主靜之學、易入於禪、其末流之弊、不可勝言、姚江
王氏功業蓋天壤、而未免為禪學、後世程篁墩諸人
從而尚之、取着了學、節通編可知也、余曰、大學明德
之義、嘗有疑晦、德即率性之謂、此大學第一義、何謂
也、曰、如今日我們相會、彬彬有禮、豈非性之德乎、余
曰、性即仁義禮智、都即曰孝悌也、其為人之本、故明

德以孝悌解之矣、今見教意不覺躍如、敢問先生之
學源、荅曰、學亦學其性之德可也、德即學之源也、余
曰、補止章多有疑晦、荅曰、程子所補致知章最明、補
止章後人有說其非是者、王元美集中可考也、余曰
學先覺之所教、時時習之、可云學而時習、其於性字
之教、未知其盛意也、荅曰、不根性說、則學無着、余曰
孔解經之說、就其文當說到與意、不必以性字為天
下大綱、今又與雲序論易卦、甚多悟解、余曰、海東人
士、專宗程朱、門戶微辭、與昔釋之盡矣、天色已晚、造
次間、無以承誨、可恨、荅曰、不恥下問、甚感愧也。

蔣錢韓小泉侍御史秋吟先生詩子也、浙江杭州府
仁和縣人、住京城順城門外、棉花下七條街、銜官至
知縣、為人淳雅樂易、疎財好客、善書法、圖章其父秋
吟、詩文鳴於都下、東人亦多剽唱、余曰、頃於卯橋宅、
逢雲客大兄、飽聞聲華、今茲拜叙、海外遊蹤、感幸良
深、答曰、未見君子、怒如烟飢、既見君子、我心則降、余
曰、春府老爺、學識詩名、遠播海外、長松之下、果遇清
風、答曰、墜落家聲、何敢當教、家親職事、奉命掌教、閨
中之士、尚未逐第、酒果設多、江南珍品、款洽異常、余
曰、僕生長東海、偏邦孤陋、寡聞、足與諸大兄中朝

士大夫宏詞雅量、何以過庇逸人耶、答曰十年以長、則兄事之、沈長我十三、多承謬獎、令人汗顏、古人云、白頭如新、傾蓋如舊、正謂吾兩人道也、百年之間、得一知己足矣、足下一見鄙人、傾竭肝肺、僕安敢不圖報盛意、因贈阮嗣宗詩、註古篆隸碑刻諸本、捧筆竹片刻蘭草細楷一枚、迨曠罷席、其翌朝又約會魏至、余早起訪之、尤益欣歎、出白石小品圖書一枚、以給余、前刻余名、後刻自在山房四字、蓋夜來手自刻出、而妙品也、余曰、深謝勤摯、感不在物、問余曰、朴貞蕤、翻篆字、徐曰、遠宗、曰、其胤亦繼有才學否、曰、其胤長

鍾、克承家風，不泉出白露紙，請余書一聯。余辭以拙書，因請曰：先生書法甚佳，何且過謙也？乃自書一聯給余曰：何論工拙，以作日後之資耳。又請甚懇，不得已作草隸數本，座上諸人持紙各求，取捨兩難，而各種紙委疊床上，遂隨意揮灑，書出唐宋明東人警句，散文，又寫我東山水名勝諸記，主人喜不自勝，曰：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今得此紙，如見其山水。余曰：初嫌露拙，竟作河間滄婦，雲客拍掌笑曰：古人果有書淫矣，代不乏人，仍烹羊煮鵝，置酒竟夕而罷。

蔣鈞、號容齋，鉞之弟也，年十二，清秀穎悟，才藝夙成。

席上出韻、應口輒成、雲庠贈劍中峰之時、劍在傍、向
吾曰、先生何不贈我劍、余笑其唐突、不答之、劍即書
紙曰、韓信雖好帶、延陵不欲解、余奇其才、撫其頂曰、
遠程不可無防身之物、且長刀非小兒可帶、佩歸國當
寄妙品、劍又即書曰、莫將三尺水、或負一片心、余曰、
汝好對語、且對北斗七星三四點、即書南山萬壽十
千年、其機警如此、翌年、荆使行、書寄妙品小刀、
丁恭、字叔雨、號卯橋、甲辰生、浙江人、官內閣舍人、風
流醒藉、博學淵宏、詩文筆法、俱極簡精、見其卯橋草
稿數十餘卷、館閣制誥、亦多傑作、文人詞客、從遊者

負余推李靈樵書往訪之、寒暄纔畢、問年乃余同庚、
而先於余一日也、一子一女、亦與余同、而其子則於
家、兒差先二年、遂一見如舊、最多從遊、初見之日、適
江南文士朱其鎮、著六人會春樹齋、與仰橋、副唱、與
余結交、款洽竟夕而罷、其後又選日約會、別有春樹
清譚、

朱其鎮、號九山、丙午生、為人簡重、文詞敏贍、頎然有
長者之風、江南人住南橫街、會試舉人也、其後仰橋寄書余、而
賀九山登余問文公派係否、對三十二世孫、起敬而
甲科云、耳曰、敝邦一從文公之學、今入中朝、見大賢、校商、景

仰萬萬對文公為道學大宗、鄙人恪守家學、過蒙獎
掖、不敢當、然亦不敢諉也、曰、白鹿講院依舊規而武
夷諸勝亦有莊修之士否、對自官府修治、南方之士
相聚講習、聞中國有陸氏之學、陽明諸人從而鼓煽、
天下靡然從之云、果然否、紫陽孔子後一人、自生民
以來、未有如夫子者、繼夫子而有紫陽、則吾道之正
路、捨此莫歸、故陸氏之學、祥學也、惡能燬火於太陽
乎、對曰、確然正論、

鍾証杰、號元甫、丙午生、浙江舉人、任大成店、其為人
峭剛、骨相精紫、頗有才氣、謂余曰、宋陸異同前人辨

之詳矣。而公皆大賢，一從格致入，一從神解入，俱不可非也。鄙見如此，請先生高論定之。余曰：惡是何言也。天下無兩是而兩非，紫陽之格致，循性理而實踐也。陸氏之神解，養精神而頓悟也。以頓悟之說，安得比光明正大之聖道乎？微兩而不荅，傷人亦以他說彌縫，觀其氣色，必似陸學者而不能直問。

勞宗煥，號亦宜，庚申生，浙江舉人，任北平截榷，善詼諧，才氣飄逸，能詩。

沈恪，號雪門，乙卯生，江南人，任韶州張榷，術路此刑部，醇實寡言笑，篤學績文，與丁舍人同榜進士，候

選知縣

金村照、孫曉峰、戊午生、浙江舉人、任總匠、榘榘休寧
會館、美姿容、俊秀、沉靜、詩筆亦佳。

厲曰、歟、字冠卿、孫茶心、江南人、為人白皙、美姿、善修
容儀、頎然、長者、詞翰、典雅、官兵部郎中、任順城門外
將軍教場、五榘榘榘、印橋席上、有一日之雅、余出正
陽門外、時春雪微灑、一騎蕭蕭、有一黃人、乘新鮮太
平車、脇從頗多、車中連呼、心田、仍下車、執余手、款款
乃茶心也、納會于春樹齋、又翌日、以摺扇為詩、贈之
吳嵩梁、孫蘭雪、又曰、澈翁、杭州人、官內閣中書、年六

十四、顏貌如少年、短小精簡、眼光炯然、文章筆格為
當世詩宗、性好花卉、書畫、其家清貧、連炕三間、多蓄
珍卉奇花、古鼎香爐、名畫異書、其妻弄琴香閣、詩畫
絕品、有文集、其小室亦善詩畫、病後著述、名曰再生
小草、贈余一卷、又贈廬山詩集、

春樹清譚

春樹齋卽橋庄也、與主人卽橋及雪門、曉峰亦宜、元甫、九山、蘭、雪、茶、心、雲、客、諸人多日從游、拾其筆談、餘紙作春樹清譚、

余問卽橋、玉胤、今年北二、文學成就否、願一識荆、對文學未成、今往楚州聘家未還、余曰、先生與鄙人同庚、迷豚、今北歲與令胤一二年、庚誠非偶然、迷豚日後入京、與令胤相訪、則豈非世誼乎、迷豚名來錫、字穉玄、昨年發解漢城試、尚未得小成、愧乏教訓、對兩家各誼、記念不替、余問、關中洛陽、金陵自古帝王之

居、盛衰、今何如、對關中、今之陝西、五季以後、金湯、玉
野、變為鞠草、洛陽、今之河南、天下之中也、舟車之會、
雖依舊、而繁華壯麗、非復舊時、然而地風俗、古朴、俱
猶樂土、金陵前明舊都、地勢雄壯、而繁華不及蘇杭、
僕居蘇杭之間、去金陵較遠、蘇杭華麗、實過帝城、唐
以後、名人古蹟、極多、兩漢、三國、較少、金陵則三國時
吳志中人物、咸集、余曰、曾於東坡諸名人紀蹟、夙知
蘇杭之景物、東國、人於天下、名勝、首稱江南、所以然
也、又曰、敝邦、專尚程朱之學、昨入太學、見碑、雍石、綏
慨、然有北學、中國之志、果有醇儒、名師、大闡學教者、

予對雖有豪傑聰明之士、皆埋沒於科臼中、學問固
所崇尚而唯應該以八股制藝、少年強壯之時、工夫
為其所奪耳、余曰、科舉之累人、通天下之大患也、即
橋大笑之、以墨加圈於大患字上、問陽明之學熾盛
於中國果然否、對陽明宗陸氏之學、功業蓋天地、後
人亦不敢輕議、但徒具學者易涉禪學、所以不如專
宗朱子、余曰、自古豪傑之士、多有高明而過之之弊
陽明之才學、流入禪學、亦因高明而弊之也、歎邦人
性多淳實、格齊朱學、所以寡過也、答先生議論正大
實愜鄙衷、欽服之至、余問先生講學唐、宋、元、對迤

體^學唐古體學唐而累黍宋蘇黃諸家因出所橘草稿
示之又書一柱聽於紅箋曰實學君能宗底洞新詩
我愧購鷄林給余曰此乃心既也歸國後揭之書屐
如對故人又贈學鄣通編一匣曰此乃朱陸之辨也
留覽則可以瞭然余問佛教之盛衰非關國家之禍
福今白柵門至皇城三千里之間沿路梵宇之崇崇
華麗者指不勝屈而瀋陽之願堂者皇城之雍和宮
關中之關福壽尤極壯麗皇都表正万邦之地何何^(不)
崇儒重道乎對佛教自漢入中國後世帝王希冀長
生建造梵宇歷代相沿難以遍廢近日士大夫之有

識者并不好佛、問曰、雍和宮喇嘛僧、是所謂西番之
班禪活佛、投胎托生之名耶、黃金之屋、錦繡之床、是
何尊敬、對投胎托生前世謬傳、而非尊敬也、其實因
之也、印橋問貴國貢使三人、俱不出城訪友否、對國
俗謹慎、有職名、人不安交人、故未曾出城、此是人臣
無外交之義、余問河源出星宿海、而失其故道、謚為
中國患、其來久矣、近日何如、答星宿海是西域、自此
而下至陝、至中州、河上源甚通、下流為患、河之患在
豫、揚、二州、龍門以上、無足患也、余問僕好報書、壁上
所掛姚元之書、果是工精典雅、未知其人尚在否、請

求一柱、如得拱壁、對姚在內閣、校書、乘間求書、奉
剏勤意、卯橋、問今年有別使么、果然否、對皇帝有頌
勅、故應有謝恩使、夏間當到京、宋九山、問貴國考試
幾歲一舉行、用策論、詩賦、抑詩賦、抑制藝、請詳示
之、對三年一次大比之科、用詩賦、表策、義疑、有初試
會試、大科及第、小科進士、又講七書、是謂明經科、問
七書是何書、答詩書易論孟庸學、曰、中國則并禮記
春秋、名曰九經、問中國科制、答秀才應秋試、蘊高者
為舉人、舉人應春試、取中者為進士、進士應殿試、甲
第高者、授職宗官、或出用為知縣、問以何文應試、答

以四書命題詩一首為頭場、以五經命製為二場、策
五道為三場、合格者登科、乙科甲科同例、余曰、先生
與雪門、曉峰諸公、詩與筆風騷興雅、有濂洛遺韻、未
知南中濂洛後、肅克紹先業、貴宗科宦幾人、楊龜山
李延平、羅豫章、蔡西山、張南軒、呂伯恭、陳同甫諸賢
後、商簪纓不絕、否地界有限、恨不得往游東南、與諸
賢周旋、答諸賢後、商科宦極少、或紹修先業、避居岩
穴、自元明以後、遂不自振、勢所然也、問吳中程小泉
偉元、伊川先生三十一世孫、曾作瀋陽太學教授、與
東人酬唱、其詩典字盡甚佳、今尚在否、答先輩也、未

未識面、余曰、先生春試捷高第、幸寄書報喜也、登第後、益修家庭之學、能克承文公未卒之事業耶、夫子之業、非但修齊治平、大綱領而已、尊尊、攘夷、為天下大義、理著在一部綱目、願先生闡揚之、答先生高明廣大之教、勗之以先生志業、開拓心骨、如披雲見天、然孱孫不肖、安能肯構肯堂、仍拾尊尊、攘夷、著紙入口、嚼之、見余微笑、余喟然太息、即飲一杯、又勸一杯、九山又勸一杯、各三杯後、余書今日始達天下士、百年長作夢中人、曰、此乃吾東朴貞蕤詩也、吾輩行期相詡、四海皆兄弟也、一別之後、豈非夢中人乎、怡悵

殊甚、九山涕洟欲下、今晚峰間先生何日起程、何日到京、答十月二十五日起程、十二月二十四日到京、閉行篋中必有佳章、希賜借讀、答拙楫只可覆瓿、不堪露拙於大方家、然不敢辭、選日更呈、又曰、僕有舊稿、在蘭雪所、日間索回、可呈閱、答獲睹瓊什、尤當感幸、曰、不敢藏拙、藉以訂校、且先生回國時、僕等各作一詩贈別、僕等皆江南人也、素有山水之癖、而東國亦有山水之勝、古人云、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比西山何如、余曰、金剛千巖競秀、萬壑爭流、有一萬二千峰、削蓮堆玉、宛若畫圖、谷菴大剎、燦若蜂房、東

則碧海萬頃、澗瀆無際、此具大較也。但塔剎之壯麗、
樓閣之輝煌、十七橋之宏傑、比西山望洋矣。諸人皆
口喏齋聲、好好、又曰、樂國好山水、余曰、願生中華國、
一見江南好、蓋因柳耆卿望海潮詞、可知其絕勝。三
秋桂子、十里荷花、烟柳畫橋、風簾翠幕、皆依舊否。答
無異昔時、余曰、飯稻羹魚、笙歌樓地、俊人佳士、亦為
東南之美、此可謂天下樂國、如敝邦何足云乎。勞亦
宜問貴國全剛之外、亦多佳處乎。答、又有瀛洲、方丈、
香山、四郡、雪嶽、瀛城、閩東八景、諸勝、而互有優劣、諸
人曰、未見其地、或有詩集、可以得見、游賞乎。答、行中

未有帶來余曰江南非但景物之勝、人物亦勝、年前
江南人漂到故邦、其船上梢工亦皆俊雅、應是地靈
鍾毓、對故邦人、亦有陋劣難堪者、大都讀書人、秀雅
為好、與貴邦人物、不相上下、余問雪樓才子、名播海
外、如王弇州、李東陽、李攀龍、何景明、袁中郎、近日王
漁洋、朱竹垞、文太史、徵明、諸人、其後裔、或能紹家風
而仕宦者、耶、荅中朝、無仕者、後裔亦不甚顯、問紀曉
嵐、翁覃溪、兩公、詩文汪洋、大方家也、今尚在否、對已
作古人、其子孫、亦零替、沈雲門、閩貴國、官職大、衣服
色、何以分別、對故邦衣服、多非古制、士人之黻、頊、襪

衫、官直之紗帽、圍領、戎服之朱笠、貼裏、軍服之氈笠、
披袖、大小皆同、而圍領、紅藍兩色、堂上官着紅、堂下
官着藍、董越朝鮮賦、長衫、濶袖、折風巾、乃識其非古
制也、曰箕子封朝鮮、殷人尚白、太公封齊、齊衣履冠
帶、天下貴國、得非箕聖遺風、而地近於齊、而然耶、今
天下衣冠之國也、余謬曰、中國之帽子、披袖、通用於
朝、賀、燕、享、祭祀、征、戰、燕、居、之時、這是華制耶、座中相
顧笑視、未乃愀然曰、此非漢唐宋明遺制也、國制也、
鍾元甫問、心曰、雲、庠、西、先生曰、宗、否、曰、然、官、居、何、職、
答、鄙、人、等、俱、是、未、第、秀、才、為、觀、先、上、國、隨、上、竹、來、曰、

僕等江南人也、聞先生慣說江南風物、久客之餘、鄉
思倍然而起、貴國任居、必稱洞、俱近山否、不然何以
稱洞也、雲序曰、榘榘之稱、甚陋、故以洞稱也、對非陋
也、方言各異耳、凡山溪之間曰洞、此必借以名之耳、
江南巷名、亦曰弄熊、雲客贈詩集一卷曰、拙詩一冊、
歸國後希賜披覽、思其人、不見、見其詩、如見其人矣、
荅吾東有水雲詩社、諸友皆好詩人也、以此瓊什歸
詔、豈非万丈光焰乎、問李靈樵、昨耳來此、刪唱、甚得
相譔、聞其歸在相廬山中云、先生歸國後、須致吾輩
眷眷之意否、荅僕曰、國、即有留約、往游海嶽、相廬山

人早晚圍睡致及諸君子感意余曰言語不通以筆
談代之八座以後便作啞聲甚麼模樣雲客笑曰字
同音不同故也余曰昔孔明入吳中舌戰羣儒今僕
終日擲管左劑右應從從不暇可謂筆戰諸人皆笑
加圍筆戰二字吳蘭雪晚到以其老人故諸人皆起
迎於門外談鋒淋漓各叙寒暄向余揖曰貴體百福
遠程辛苦久聞大名今鴻慈如貴國南金陵聞已作
相對首相沈斗室近作何狀對退休卿墅申紫霞相
好否對未有雅契又曰紫霞詩畫俱佳其子小霞能
畫梅竹俱絕才也趙義卿全秋史金山泉李藕泉太

平否趙官至亞卿不知早晚能充使來耶、答似不逮
矣、問黃國邦、或有行篋中、可以借見者否、社詩分
韻、係內閣刊本、僕曾於李鍾山所見之、固佳本也、余
曰、因趙經畹、秀三、雷灌、大石、方欲進拜門屏、有此先
施枉屈、甚味甚味、答經畹詩、才可愛、余詩交也、今居
何職、答細柳、崇從事、余出南、允明詩稿、請批評、即刻
援筆作小序題之、問曰、是人詩、與筆、大有佳趣、金陵
之族、身何南、氏之多才也、又出李深夫古文一冊、使
之批評、出掛鏡、懸良久、編劇、彈指吟讀、讀畢曰、成家
之文也、淵博典雅、深得古體、不可造次批評、請携歸

敎廬、細玩評奉此文於洪海居、駟馬三怡集見之、已
知其博雅君子也、因約日更會於敎廬、與印橋偕臨、
即辭起、其酬酢、敎遠映發、昨若老人精神、余曰、蘭雪
何適、歸耶、鄙等或有夫敎而然耶、印橋曰、蘭雪有趙
君請酌、本是因第遠、且即來、所以不能久坐、并忘他
意、遂以再明日約會於蘭雪宅、余問印橋曰、中朝威
德遠、甞開拓新疆、數萬里云、現在那方、答新疆開拓
在康熙聖祖時、在西北界前、年張近不靖、盤踞四域、
旋即克復、印橋問貴國藝產於何處、色品何者為上、
余曰、產於嶺南曰羅葵、嶺東曰山葵、江界曰江葵、家

種曰家蔘、色則白者未必不如紅、曰京師蔘舖、皆以紅蔘為上、枝長有鬚者為老山蔘、皆貴國之蔘也、余曰、聞太行之山、有檀蔘、然亦對絕無、而僅有、是日也、自早至暮、酒食果肴、絡繹進排、每一器盡、喫、又進一器、有全羊、烹隻鴉、炙炒、印炒、猪湯、猪、田菜、竹筍、蒸、茄、芙蓉、眼、橘、橙、楂、果、胡桃、熟棗、落花生、饅餅之屬、不可殫記、最後進飯一甬兒、諸品皆精潔、嫩、鮮、飯、則、如、酒、米飯、大不如我國飯味、共設於一卓上、十人環、椅、而、啖、之、每、人、前、必、置、一、雙、箸、一、隻、杯、杯、太、小、如、我、國、鍾、子、之、半、酒、樽、則、長、置、卓、上、空、則、復、置、酒、味、香、冽、茶、則

置爐於炕內，以大罐置其上，頻頻以盞鍾傾呷之，真所謂恒茶飯也。主人曰：酒果俱江南產品，與東國稍異，未知可口否。先期未訂，忘者幸歎簡率。余曰：既能以德示醉，以酒多感春厚，余曰：曾聞江南有香猪肉，味甚佳云。然否？對江南未者，有生醃猪肉，味甚佳，久而不敗。江南家鄉適有醃肉，先生如愛食，望於初三日，遣侍持器而來。第於上夜，莫熟奉饌也。余曰：曾聞醃猪肉，及之耳，何敢以口腹累人。如其久不敗，則以生醃惠餉，否？對何貽累之有。常如教市上所買北猪，犬非南猪之佳，余不好飲，而酒杯極小，且日

氣峭寒故不辭諸人之勸而亦不至醉日晚後印橋
謂余非小酒戶連勸之遂一觴一詩余曰頻頻到口
微成醉拍拍滿懷都是春此康節詩也酷愛其詩意
而其實天下之不好飲無在余上余有東坡之病也
雲席善飲者也初見佳者美酒又諸人愛其善飲迭
相勸杯痛飲而醉與主人論易理酬酢淋漓主人喜
曰不圖先生深於易理如此也又曰行中有帶來書
籍可得一覽否荅海外編邦書籍本自不敷且無帶
來不得奉剏勸教甚悚甚悚日前惠借先生詩集歸
館抄寫字字可誦他日歸到山房一燈風雨吟誦教

篇如見故人於萬里之外也、敵邦使价、亦見先生詩
文、大加欽誦、而不敢唐突求見、答獎譽太過、萬不敢
當、可愧可愧、余托臨發更往告別、則所橋畧設餞別
而朱九山諸人、以誠期臨迫、各贈別詩、贐物、未同餞
席、主人執手悵悵、又贈詩、園清譚式、敬篇福、切全書
著物、又贈筆墨、匣、轉贈家兒、

榆西館記

榆西館在順城門外、小泉庄也、小泉容齋書客中、峰
白菴少白約會、余與雲序偕往、竟日而還、送相酬唱、
隨錄其筆談餘紙、作榆西館記、

中峰、明貴國、自古為箕子屬、封殷都、河南去洛陽僅
三百里、予洛陽人也、曾云、萬里心儀、箕子墓、淵源叙
到是鄉親、般服制尚白、予獨非般人、予今日相會、如
仰先民笑、余對敵邦、頃城有箕子墓、外城又有故宮
遺墟、井田遺址、白馬東來、以八條教民、故士民禮義
相尚、婦女貞信不淫、蓋殷師之教化也、曰樂國也、余

問中國科制對鄙處科規由舉人應會試中後曰進士再殿試後定翰林主事即用知縣如未進士者三科後大挑一等者知縣二等者教官座上人皆賦詩白菴獨不好詩曰大兄頗有詩興豈無酒量愚第既不作詩請與痛飲以伸饋餼諸人各勸一杯余曰如是日須傾三百杯也白菴曰三百杯不過一斗安足辭也昔談經之鄭康成并設此飲余曰康成之經青蓮之酒豈能容易抵敵乎中峰曰小泉酒非小尺余曰中峰詩是大家諸人競起加圍曰的對好酒令又酌勸一杯有菜肴香味絕勝問是何物對曰江南

水母蔬、余曰海東山婦菜可謂的對、諸人又加園勸
酒、余笑曰不好飲酒、無在余上而出一佳語、便得罰
酒、豈不難堪乎、雲客問貴國松茸其名甚佳、其味何
如、對味香淡而脆、余贈蔣鈞筆墨、小泉曰貴國紙品
堅滑可寶、狼毫陳玄亦甚佳、學書者俱用此耶、抑別
有真品耶、對都不如中國真品、紙不如唐品之輕滑
便用、筆不如龍毫、明月珠、羊毫、著東墨之佳者、如首
陽梅月芙蓉堂魚躍龍門壽、皆產於海州、而大不及
中國墨品、小泉曰中國好墨多出於江南之徽州、嘗
奉贈一笏、雲客問完山李先正履、古文各體、曾於

三怡集見其一序、洪海居兄弟詩文、短學俱有工夫、先生識其人乎、對海居兄弟未識、而李即國東名儒也、在叢桂山中、學博而行潔、孝友惺悌、詩文尤甚高、與郵人至交也、素中有一篇古文帶來者、明當送覽、幸須批評否、對若賜一覽、不啻拱壁、昂碧素、敬東人、愛其文雅有信義、見冷齋焚身集、嚶嚶尚古、而迎交中紫霞、綽李鍾山奎、鈺白壺、隱溪鍊、李芝山、勉在、趙孝人、基謙叔姪、李靈樞、壽民、眷眷不能忘、今逢大凡情未洽、而別已惜矣、歸國後、轉致眷眷之意、於諸君幸甚、僕於夏間、常有出京之行、揆之萍飄、使价便惠

我尺素以慰飢渴、是所厚望、余對士生斯世、有曠感
千古、况吾儕生并海內、偶然萍逢、亦是天緣、耳作良
晤、似有其期、臨別悵惘、涕簌簌欲下、但恨良辰難集
太恁恁也、諸先生亦同此懷、否、雲客汪然出涕、執手
良久、遂書五絕曰、久矣聞君名、君來行有日、更勸君
一卮、恁恁將惜別、余即和之曰、人生貴知心、百年當
一日、四座且傳盃、聽我歌遠別、諸人一時并起、立橋
上、齋聲好好、加圈於詩上、各有評品、清古淡遠、真樂
府上乘、李中峰讀天籟于不經心得之、兩漢之遺、雲
客識、作者詩佳、閱者眼高、紅塵十丈、何謂無人、小泉

評詩甚高古、極得漢人之意、小白題詩、好不和反、得
一白白菴贊、仍各出花箋、請書此詩、以為留別之寶
小泉又出印朱盒贈之、以自家所刻贈圍書、各押紙
端、小泉又請大兄紀行詩中、榛子店次、李交蘭詩、塞
天漠漠、曉啼粒、尚憶阿嬌、作嫁裳、夢裏江南、春草綠、
芳心應羨、鴈隨陽、予最愛之、更書一紙、留玩、余曰、宋
國梧埭東野人、得燕石、燕石非寶也、過蒙諸公褒褒、
甚愧甚愧、余謂小白妙年風成、羊宋可敬、他日永勿
相讓、小白曰、詩才如此、閣下必多著作、回館於燈下
錄出、教首與我、他日一燈風雨、庶幾如見故人、答帶

未通無所貯、不堪持贈、雲客曰、小白卽玉水愛婿也、
玉水因入直、少暇、未能訪叙、大凡咄咄致恨、中峰曰、
李月汀名璋煜、鄰人從兄、先生曾見其人否、對月汀
先生大名、在敝邦能聞、亦有李靈振信帶來、故往造
未拜而回、心甚茹恨、對篤學好詩、近在刑部、事煩、余
見小泉所贈家刻、阮嗣宗詩註、乃其祖脚煖所撰、而
脚煖亦有文名於世者也、雲客曰、向於卯橋宅、與蘭
雲留約、蘭雲宅此去不遠、約日與我同往、須枉臨、鄙
寓對幸甚幸甚、

蘭雪詩龜

蘭雪、吳中書嵩梁孫也、余與丁卯橋、熊雲客、曾游於
詩龜、龜甚精敏、花卉書畫、筆床茶壺、文房珍玩、極其
瀟灑、拾其談話、名之曰蘭雪詩龜、

余問先生今居何職、膝下兒孫多小、曰僕由國子博
士、遷內閣中書、今以充玉牒館纂修官、優叙、常出作
刺史矣、男四人、長始十七歲、二六歲、三四歲、最幼未
數月耳、因問余曰、貴邦有金剛山、為第一名勝、其風
景可得聞乎、明史朱之蕃詩云、願生高麗國、一見金
剛山、良有以也、答風景難以筆舌盡記、昔人問吳興

山水、蒼以千岩競秀、萬壑爭流、以此句當何如、曰、見南金陵詩中、此山亦有九龍瀑布、五老峯、香爐峯、等名、似與揚州廬山相同、曰、青天削出金芙蓉之五老峯、先生曾已往游、則何必健羨乎、曰、曾一夢游、次日、金狄史以蓋園見寄、故私集中有詩紀之、曰、古人有以游五嶽洞天者、先生近之矣、曰、清脾錄有持耒刻本、否、曰、僕秋間游海嶽之間、臨使行、不多日、路、故書冊未曾帶來、曰、花木與此間相同否、曰、花木皆隨土宜、福邗卉植、安能與中國同譜、或有別種異樣、馨香可愛、仍設餅餌、酒果、開餅名、曰、雪華、饅、饅、麻餅、如

意僕生海外幸覩中華文明、先生今世詩宗也、幸賜
一詩以資山房、畢生難讀曰、先生何不肯倡、當屬和
也、鄙人拙於詩、欲學大方家也、卯橋即來且一聯句
何如、出冷齋集一卷曰、此貴國柳公得某詩也、其懷
古詩山水人物皆可以備掌故、答惠風此詩詩史也
又有李唯身清脾錄覽否、答此書四川李君謂元曾
采八刻本、朴齋家詩集已刻否、答敝邦刻本極艱、姑
未刻出曰、紫霞欲彙鈔貴邦之詩、寄為選錄、惜此書
尚未收刻也、余聞中朝典文衡太學士姓名為誰、別
號為誰曰、中朝文衡并無一定、臨試欽派會試則主

派者為大總裁、又有副總裁三人、俱一二品官、皇上親派、京中鄉試即古京兆試、總裁三人、亦一二品官、皇上派試、外省鄉試、各主考有正副二人、大省命侍郎、中省小省、御史翰林講讀編修中書郎官俱可、會試者為進士、鄉試中者為舉人、余問中朝視派、邦如內服、前後殊恩寵、誼與諸藩國迥異、何以得此、曰貴邦以禮義之國、文章亦盛、其事本朝恭順可嘉、為諸藩所不及也、曰啟邦事大之誠、恪謹懍懍、至於文章禮義之威讓、恐不敢當、曰貴邦主文衡者多、何官、曰啟邦主文衡一人而已、官名大提學、使宰相中文學高

明之人臨科考試取士、擲試則職卑、文且中、擇送取
試、亦橋晚到、余曰、何其違約、即曰、持被閣中、直向此
闈、間耳、余曰、朝朝梁翰、倚君王、衣冠尚惹御爐香、對曰、
但使主人能醉客、一片冰心在玉壺、余曰、昔孟浩然
訪王摩詰於禁中、直廬有、不才明主棄、多病故人疎、
之句、今先生在直、亦有親友尋訪否、曰、聞雜人不得
往來、仍曰、浩然、身才而明、皇以不才、明主棄、一句、棄
之太薄矣、抑亦浩然詩窮耶、余曰、叔、邠友人完山李
正履、字元祥、經學博覽、好治古文、詩宗唐、而其文集
中、卷記在主人案上、與蘭雪老人、共賜覽評、否、蘭雪

曰、此公古文甚高、曾見其為人作序、此丹所論經學、
俱有卓識、吾輩搜求、不可造次妄評、余曰、鄰家一後
生、名定、夏字君保、稱腐觀、年未弱冠、頗有詩學字畫、
來時有別章古詩、請祈兩公評品、兩人聚首吟誦、彈
指曰、未弱冠如此、其進不可量、天才警敏、古意甚佳、
元稹集若請留贈、余曰、歸國後當歸語元稹、稱爲精
本奉寄也、雲客聞余在蘭、雪所亦進到、問余曰、東國
多文章經濟之士、願聞塵論、以慰景仰之私、余曰、文
章經濟多在於中朝人物、願先承清誨、曰、何謙也、貴
邦素有南柳申蔡尹朴吳盧八家詩文、雜著其在、新

羅高麗則崔孤雲李牧隱李栗身鄭栗隱李月沙崔
簡易車五山未必多讓於中朝余曰故邦自箕子東
來被八條之教東人事事慕中華官於朝廷有節義
諫諍之風士則恪守程朱之學炫誦之聲不絕民俗
重禮讓忠厚之風鴻區鉅儒文章黼黻代不乏人而
國俗不沽術故巖穴之間亦多高士不可以一槩論
也曰東國多畸人向所深悉近如朴貞蕤柳惠風二
先生亦復孺孺不羣前見裨海裁四家所著及清脾
錄云云未信行篋中亦有帶來一二種乎曰柳朴兩
公詩文東國之所重而清脾錄李雅身德懋所著也

未曾帶來余問蘭雪先生詩詞、遠播海外、乞賜一詩、以賁蓬蓽、荅當以刻本一二快奉、贈又出示其妻琴香閣詩集一卷、細玩之、恰似我國李玉峰詩才而曠敏、味朗則過之、又出一錦帖以示之曰、此乃鄙人止姬之字畫、漢時年十九而天才慧朗、畫格尤妙、其畫蘭多絕品、廿年前、多為中紫霞所持去、余以南雲谷所畫一廟求畫題、蘭雪曰、畫格古雅、清真、願留贈鄙人、奉揚仁風、又使其諸子出拜、余曰、翠竹碧梧、瑤環瑜珥、各有才學否、琴香閣天才淑德、令人可敬、荅僕家世皆通翰墨、但未必可傳耳、蘭雪向在卯橋席上、

見雲序論易理向雲序曰昨聞談經學甚淵雅此事
非詞章可比如有著編留敝廬細讀刑後有所疑願
以就正也雲序答僕失學迷方鹵莽殊甚且無著編
帶來蘭雪曰貴邪詩人甚多鈔傳拙作僕亦好東詩
見壁間所掛金狄史中紫霞詩可知也紫霞今便寄
文袖衣料亦是故人綈袍之意耳卯橋曰昨於禁直
公役之暇奉和絕句三首刑作七古一首奉送行旌
尚朱畢寫容俟後日

金臺詩集

燕有金臺古多悲歌慷慨之士、余過丁卯橋、吳蘭
靈采九山諸人於金臺之際、酬唱頗多、收為金台
詩集、

丁卯橋席上贈主人

中朝楷範縉紳家、玉佩瓊琚見孔嘉、
爾雅鏗鏘開口詠、知君鳳閣步靴花、

詞源學派浩無垠、席上諸賢摠是珍、
怙悵春風歸海外、詩中人作夢中人、

江南烟雨海東雲、妙語只從筆下聞、
誰倩龍眠移畫

境山山水水遠思君

心田

城南僻處似山家、飲酒談文意恁嘉、愛子風標如鷲、
澹一簾晴雪話梅花、

遙遙海國浩魚根、倚聘羣推席上珍、此去漢城春色
滿、作書先報夢中人、

關山東指恨傳雲、客舍談心証見聞、名士近來多似
鯽、能窮寶學又逢君、

浙江丁卯橋

上元日和卞橋寄語

思君度一宵、耿耿三秋遠、共雨冰心淨、鄂星鈿氣迤、
萍緣誠不遇、(偶)蘭契資知要、那忘頻承教、祗恨近樞黃、

原韻

明月近元宵，思君客館遙。
一書情款款，終夕夢迢迢。
欲共金尊覆，先將玉佩腰。
白駒如識路，知不棄場苗。

東海西生歌送朴秀才歸國

去年八月殘荷香，一駒擲燭別我場。
今年正月雪初霽，鯨鴈銜書下雲際。
書投北極人海東，愛而不見心忡忡。
故知見心新知面，豈意新知還眷眷。
笑揖新知似故知，一杯薄酒睨懽宴。
西生東方之秀才，意態磊落膏肓埃。
得酒澆書書味出，談經說詩俱崔嵬。
一生寶學追閩洛，約束身心不炫博。
花柳欣然活水滋，得

聞佳句頻頻作、一生質直除浮文、閉戶學易功的勤、
頗知義理出象數、旁通互愛精條分、而生弟昆亦朋
友、與我訂交期、白首我生多病學荒蕪、區區之心虞
或負、而生謂我能率真、得一知己吾道伸、我謂而生
譽我過、如我鈍拙非通人、少日居鄉安賤士、忍飢誦
經不窺市、丁年竊祿幸登朝、十載悠悠官未徙、學問
功名兩未成、魚由敢適說歸耕、期君挾策趁時尚、莫
效迂儒誤一生、聞前輩暖行移帳、綠津江波乘乘舫、
遷鄉為報相廬菴、西省詞人幸無恙、

己丑正月中旬、東園朴心田秀才、偕其友人

雲序過訪敝廬、留款竟日、嗣後互有唱酬、得
詩幾首、二十八日、重來告別、作七古一章贈
之、奉正塵石、君與余同生乾隆甲辰、各有一
子、故相晤尤惓惓云、浙江丁表、即橋、書於蘆
浦寄巢

江南八賢歌和卯橋七言長篇

春樹榭榭藹芸香、八賢好開詩酒場、梅花已殘雪又
霽、鷓鴣錯華堂、嘯詠際、君家浙西我海東、初見各自心
冲冲、鏡交筆談春風面、靈犀相照情眷眷、龍眼荔枝
助清懽、呼童添酒重開宴、蘭雪內翰真大才、花龕詩

佛迦塵埃、雲客宛似陳醫座、高談雄辯氣崔嵬、古家
典型追閩洛、九山經學何宏博、曉峰雅譚春水滋、亦
宜雄詞雷雨作、雪門少日能續文、經經緯史功最勤
元甫兀兀析理精、格致神解朱陸分、仰橋主人先蒼
友、十年中書成白首、編紉孝誼婚拙蕙、責是同庚期
莫負就中切、惻情意真友道得一知己、仲嗟我虛老
天地間、東海之濱一畸人、讀書求志無所就、五十不
堪登槐市、星槎八月好借便、北海長風鵬翮徙、諸君
問我這事業、心田半畝徒舌耕、共訴平生不得意、清
樽盞燭別意生、金盞芳草連祖帳、花酒如烟泛詩觥

年年海外鴈書寄、尚祈故人長無恙

空山學易園奉贈雲序

馬同年少眉索作
與雲序論易仍贈

讀書貴致用、不爾徒經師、六籍皆裨治、易學尤所資、
秦火不敢焚、重以四聖遺、君子修之吉、知者觀其辭、
善易不談易、斯言庶乃欺、我友白眉生、請肯森清奇、
結屋古塘側、研悅神忘疲、空山寂無人、羣物供娛嬉、
震雷與坎雨、所施皆仁慈、梅花冒雪開、教點天心知、
學成皆用世、北游燕山陸、燕山多黃塵、車馬紛以馳、
君獨閉戶坐、兀然對皇義、有時借書歸、得朋聊自怡、
希聖先寡過、此意曠知之、秋風塞上來、別我向萬里、

行過畫卦垣、昂首溪長思、程邵皆洛產、講易分醇疵、
體仁以長人、實用當在斯、一夏行卧治、匪效陳希夷、

卯橋

筆說題扇面奉贈心田

雙鉤懸腕、讓左側右、虛掌實指、意前氣後、此十六字
古人所傳用筆之訣也、雙鉤懸腕者、食指中指圓曲
如鉤、節與母指相齊、而撮管竹、指尖則執筆挺直、大
字連上腕、小字連下腕、不使肉視、托紙、讓左側右者、

左腕讓而居外、右身側而運中、常使筆管與鼻準相對、則行款間直下、無傾側之慮矣。

江南朱九山

習心田

忽向沁河去、崎嶇信馬蹄、夢回千嶂失、月苦一聲啼、
舊雨如何處、重尋路已迷、十年鴻爪跡、半落太行西、

松江熊雲客

和雲客北游詩

北走長城窟、名驛美碧蹄、揮毫風雨灑、拈韻鬼神啼、
落拓心何壯、周遊路不迷、羨君多跌宕、賓館訪榆西、

詠懷題扇句奉心田求和

記得銷魂在酒邊、浮踪不信又今年、忽看陌上春如
許、便覺天涯碧可憐、簾捲欲逢初上月、樓高猶認舊
時烟、幾番誤入紅塵裏、相對東風更惘然、

右紫影

暮雨荒烟自耐避、舍情未肯著燕支、月明水國難為別、秋吟銀塘若有思、消瘦不隨紅蓼落、清涼只許白

蘋知輸他雪鴈江南去、正是西風野渡時、右白 蓼花

泥寒簾未捲、春睡但啼鴉、墻脚堆殘雪、街頭賣野花、

右寒碧黏金墜去、香護玉闌斜、幾日江南思、東風社鼓撾、

和屬茶心詠懷三首

屬茶心

東風三月畫橋邊、搖颺晴空似去年、種舖詩家聊足

趣、泥黏禪語亦堪憐、簾前誤認梨花月、陌上渾疑竹

樹烟、却恐紅塵飛入處、風風雨雨捲凄然、右紫 影

淡烟疎雨自来遲、點綴晴川旣旣支、不著臘脂嫌冶

態、鏡勻粉黛、惹情思、月明肯逐風花落、夜冷穿被雪

鴈知、晚入江南秋、水盡蒹葭渺、渺憶人時、右白
蓼花

殊方離緒、惡睡起、聽噪鴉、雪意猶含、樹春聲已賣花、

蝦鬚簾影轉、蟹眼茗烟斜、故園東風下、應傳社鼓、

右集
食

已丑人日、於丁卯橋舍入席上、得吟奉心田、即

席求和

朱蒙遺塚說、遠東萬里梯、航貢使通、文字因緣、杯酒
外、山川風景、筆談中、論文四海、皆同調、投分三生、屬
寓公、款洽片時襟抱、擴翻嫌分、襁太息、息

輪蹄跋跋踏塵埃、燕市頻登郭隗台、萍梗風波連歲
滯、梅花暎路殘枝開、敢期海外傳名去、也有天涯識
我來、此後離懷、閉月關、教竹珍重、鴈書裁。

浙西勞亦宜

和勞亦宜七律二首

春樹聯芳小郭東、靈犀一點各相通、人從海國孤帆
外、家在江南暮雨中、葦商無分情更密、淵源易辨說
愈公、塞天鴻鴈年年度、莫恨今行太遽急、
關榆塞柳拂塵埃、醉後頻登駿馬台、不聞黃金渭市
散、空傳白雪郢人開、乘槎縱逐張寬到、觀樂還看李

札來、東指萬里山海濶、離懷漠漠苦難裁、

偶在丁卯橋舍人宅上、遇高麗朴心田、雲庫兩
秀才、談次及朱陸異同、筆答不盡、作詩申之、並
送歸國、

記年十五、十六時、意氣驕逸如驍駒、讀書脫畧鄙章
句、眼高四海無朋儔、獨在陋室中、力學追魯鄒、得論
語一部、孟子七篇、貫穿經史、窮真搜精神、徹天如有
會、平坦炯炯懸鏡眸、惺然非覺復非夢、彷彿從聖來
南游、平生不好西方教、立志常與空王誓、二千年來
失宗旨、智者說法愚者苦、焚修中庸大義久塵昧、莊

列餘派濫不收、欲挽狂瀾回泛濫、予生也晚、此念空
他德、近自南宋始、上溯及東周、聖門罕言性命與天
道、匪闡幽、生知秉學識、好古在敏求、考亭獨得格致
解、一生涉獵旁羅蒐、不肯談空說高妙、肯教矻矻防
惰偷、愛博不忌文字、謬、源實自足、箴夸誇、同時陸子
敏悟者、鵝湖講學、交相酬、後人好自矜捷、得不善學
之、摻戈矛、大道本坦夷、先民貽大猷、六經昭炳如日
月、元章洪範傳箕疇、箕子去朝鮮、遺教今猶留、駸駸
尚文學、士習頗不偷、各遵彝倫、識王道、東海西海斯
理皆合謀、茲未令威宅、喜逢遼東二名流、入門交臂

一相見、以筆代譚、譚不休、不談人物詭、不談道里脩、
唯談學、薊異同辨、但恐臭味清、薰猶嗟、予少學道、壯
歲多愆、尤常思新、若師、不論海澨、與山陬、出言徃徃
証流俗、對人終日、恒低頭、安得目窮上、三古、脚踏大
九州、尚友並友、天下士、徧覽三墳、及九邱、作詩久自
悔、誇能、與來還、復成狂、詭、君持此詩去、海上有歸舟、
高歌聞水府、天晴日暖、潛蛟蚪、還山搜得驪珠句、尚
憶江南狂士不、
魏塘鍾元甫

和鍾元甫長篇

錢塘高士寄長篇、詩似雲、衛躍紫貂、若此雪樓才子

時、捨得袁王誰與儔、平生力學閩浙鄉、師表只有魯
與鄒、十年下帷不窺園、矻矻芸窗悉撰搜、我來逢君
春樹社、一言契合合、樹青眸、筆下談、盾如泉湧、今行端
不負壯游、自言有志迴狂瀾、西方異教疾如響、二千
年來極羨燕宮堦、廓如欲莊修、老佛揚墨誰共聞、莊
列申韓難可收、滔滔一世挽不得、愧余晚生意悠悠
生花鍊花已夕陽、王道如錢記尊周、上及洙泗下濂
洛、擬談學源無類幽、余聞鵝湖講學說、陸子敏悟疑
可求、吾道豈可躐等進、誰將格致比禪蒐、後人若是
不善學、前人豈泚不善偷、養精頓悟近道釋、所以斯

文誘議淳、試者近日學、節辨、建溪、篁墩、互相酬、遂令
天下經學士、標榜門戶、相角、牙、蓋自闕里先師、後紫
陽夫子、煥大敵、六經、炳如、昏、檠、燭、并及八卦、与九疇、
海淵、天高、孰不照、蚕絲、牛毛、亦不留、春王正月、大、一
統、海內、士習、尚不、喻、海東、專尚、考身、學、非吾、道者、不
與、謀、大抵、道源、出於、天、餘事、百家、與九流、聞我、此言、
起、矍然、以筆、代舌、談不、休、不辨、異域、衣冠、別、渾忘、故
鄉、程道、情、請君、發、勅、向正、路、一器、不容、薰、與、猶、嗟、余
早、歲、志、于、學、四、十、五、十、多、悔、尤、一、生、有、意、訪、名、師、真
行、揔、植、老、海、限、醒、則、悲、歌、醉、則、歡、如、今、刺、得、雪、滿、頭、

東方一士藪然身、晨越河關到中州、中州章甫競引
家、恍如俗人遊丹邱、飲我瓊漿三杯酒、贈我鈿筩一
曲謳、離然浩歌擊玉壺、明日歸裝江海舟、書帕滿載
諸君詩、煥爛文章成蚪蚪、異日江南烟雨際、尚憶金
華道人否

謝心田惠扇

惠許三韓扇、奉揚君子風、香來東海上、不覺滿懷中

鍾元甫

和鍾元甫

江南文酒會、三日坐春風、磊落悲歌士、惟君出衆中

奉送心田先生歸國

心田

春郊一片停寒雲、驪歌唱罷手遽分、人向東西何日
見、鴈飛南北嗟離羣、犬才樂樂世少有、相思萬里長
夢君、

十二齡童子答齋蔣鈞

答蔣秀才鈞

君家兄弟似機雲、詞鋒筆陣不可分、春日旗亭杯酒
席、開口詠鳳迥出羣、豈盈屏角才俊士、御史門中取
卯君、

心田

榆西館別席和雲客諸人

人生貴知心、百年當一日、四座且停盃、聽我歌遠別、

心田

久矣聞君名、君來行有日、更勸君一卮、忘忘將惜別、

雲客

一晤繫三生、重逢當有日、努力報主恩、去去勿傷別、

中峰

榛子店和季父蘭詩示雲客求和

塞天漠漠曉啼粧、尚憶阿嬌作嫁裳、夢裡江南春草綠、芳心應羨鴈隨陽、

心田

萬里郵亭西月忙、新詩一卷壓行裝、秋風瀟灑盡才人
淚、豈獨傷心為女郎

雲客

和雲客

原天大道作榛蕪、坐井羣蛙總是愚、努力諸君扶正
脉、紫陽夫子是真儒

原韻

百年經學久榛蕪、考據零星失在愚、難得夫君能崛
起、苦將奧義析羣儒

雲客

奉送雲序心田驛國

幾番酬唱疊吟成、歸路爭憐一騎先、毋忘故人詩囑

意、谷山事業待君傳、

行行烟柳指邊門、襟上猶露舊酒痕、芳草綠波人萬
里、也應為我一銷魂、

天涯風月發人同、青眼偏邀到阿蒙、慚愧十年仍作
客、壯心銷盡馬蹄中、

驚心佳節過傳柑、吟苦時同併一籠、眠食幸言無恙
在、青山只是戀江南、

雲客

贈丁卯橋舍人

北以下歸國後、
集杜復請詩、

鯁生歸海國、南籬夢魂長、曉罷三江霧、春保萬里揚、
端、藺、瞻、河、嶽、別、意、隔、參、商、祗、應、東、上、月、夜、夜、照、瑤、觴、

心田

送君歸海東、相思長復長、風蘇塞上草、雨綠江頭楊、
尖景倏以馳、素節催白鬢、明明此纖月、西地照臨觴、

卯橋

寄心田二律

新月照征鴻、書來東海東、波光疑蕩笠、涼意翠梧桐、
吾道通華裔、朋交托始終、甲辰同墮地、俗論漫雌雄、
扶衰贈良藥、懷舊寄新詩、憶子吟成日、憐余病起時、
殷殷問無恙、脉脉慰相思、遙望西甌嶺、重來集鳳池、

卯橋

和印橋寄詩

嗚嗚塞上鴻，帶月過關東。
秋色池邊菊，清音壁上桐。
車書非有別，道義詎無終。
愛爾同庚客，詩壇獨自雄。
春樹迷如夢，人傳學士詩。
相憐吟病日，還憶別離時。
對日披新帖，傳雲起迹思。
應携蘭雪老，吟到鳳凰池。

追和雲客別詩四絕

風騷跌宕露蕤成，海上歸鴻得氣先。
驛使東來春尚早，梅花消息問誰傳。
榆關斜陽獨掩門，輪蹄踏破碧苔痕。
萬里送人芳草路，驪駒一曲暗銷魂。

追逐弟兄四海同，偏荷高義庇吳蒙。
誰憐海客貂裘弊，壯心銷磨道路中。
尚憶紅梅佐綠柑，詩仙詩佛共花龕。
翩翩逸翮雲間鶴，向我清音作指南。

寄雲客

寂照湛然抱鏡光，千金一諾重冰腸。
身游漠北文章老，家在江南夢寐涼。
落日偏憐芳草遠，秋風獨倚釣歌長。
如將四海肩相比，大業輪迴不有方。

寄茶心郎中

浮生滄海闊，明月在寒琴。
車馬三千_黑乾坤一片心，布

衣寥落久、等士籠息深、便面時頻拂、清風灑我襟、

寄小泉

進遊如昨日、回首愛天涯、涓水春風遠、金台落日多、
雅儀欣既覲、殊域恨如何、夢覺廬山謔、為君謾浩歌、

玉河蘭帖

在玉河館、與中州諸君子、有編紉之誼、往復頗多、
收其寄荅之凡札、短簡、為玉河蘭帖、

與丁舍人書

白造芝室、根蒙款接、海外微蹤、顧何以得此於大君
子也、悠悠夢想、長在於瓊林玉樹之間、春寒惻惻、尊
體百福多祥、鄙人明日將赴園明園宴、十六日當回
邈、十八日辰刻擬啟、更候榻下、幸邀蘭雪老人、同做
穩叙否、諸先生有贈詩之教、焯焯餘懷、如望仙姬於
瀟湘之浦、幸與先生詩集、垂賜賚覽、若何、宋九山諸

公未得各修候儀甚悚且悵地產諸種雖甚不腆聊以表忱惟祈報收不備

答心田書

俾來適他出未及拜望雅贖歎甚燈下展誦手簡敬
待馳從明日赴園旋詎尚須望後十八日重枉教廬
實甚欣幸惟是日有日榜公譙兼速舉主勢不能託
故不往二十五^至二十四五第俱得間祈先期訂定一
日當約蘭雪翁入坐也靈樵在都嘗與厲茶心諸君
有一日之雅諸君命第為介杜邀先生一叙望於下
旬五日中更選一期海外知交晤言日下此集不可

多得唯冀半月之中、屢接光儀、不我遐棄、庶講學談
詩、各矢丁嚙切直之義、傾蓋如故、相知以心、我輩今
日之謂矣、拙詩索歸、即當奉正、贈行之卦、第為之嘏
諸君之能者從之、不至無以報命也、爾具尺一、祇候
起居、統希亮察、心田先生摩友、

寄心田書

昨于途次一握手、不勝惘惘、聞西執事初四日歸國
矣、悵悵之私、更何能已、僕備位樞曹、簿書碌碌、晨趨
夕返、殆無停晷、未若吾蘭雪、寸步橋而舍人之清職、
常得與西執事、交酒社、來縱談、今古此僕膏中、俗塵

不止五斗也、此僕異日一麾出寄、不過風塵下吏耳、
何足為道、第念兩執事品質端純、學淵粹、別後望
努力自愛、本程朱之正學、儲韓范之相才、藏之若山、
傳之史冊、他時奉使而來、僕倘得仍在長安道上、與
兩執事重相把晤、豈不快哉、僕當拭目望之、草草言
別、庶以為教、謹上箋紙二匣、摺扇二握、聊為兩執事
壯行色、物雖甚微、用語區區、不忘之意、萬勿見哂、是
幸、附頌起居、伏惟珍攝、咸宜、不次、規伯兩執事閣下、
已丑二月二日、屬同、勳謹狀、

答屬郎中書

城隅分手，歸來悵惘。如有失，拜承書教，兼帶二匣、二
扇、四紙詩稿，奉讀未半，感極欲涕。昨為物也，僕生海
外，福邦今蒙中朝大君子眷厚，若此便善，何以得此
也。第過蒙獎諭，愧不敢當。惟以未造門屏，更承雅懷，
為恨。然豈無更拜之日耶？詩紙特及，而公盥手而讀，
欽仰高調，而行期隔宵，不得拜瞻。請苑為早生之恨，
云耳，餘不備。

寄吳中書

花籠論詩，兼荷不遜之盛誼，感戴良深。日前因卯橋
舍人、聞先生持被內閣，仰想御爐香中，朝朝梁翰，委

蛇退公亦有佳趣否、恨不作孟浩然訪王右丞賦詩
直廬珠可流、悵、癡叟使相、威冒遠和、且有外交之嫌、
不得進晤、門屏或可怒諱否、行期已迫、別後惟嗣德
音、敬展蘭堂詞伯閣下、鶴林朴思浩再拜、

答心田書

高軒枉臨、殊多簡褻、為愧、承納未踐、奉手教、始知、癡
叟先生道體遠和、身亦感小恙、不能赴、諸使館、款不
可言、別後惟頌曼福、以俟德音、幸甚、吳嵩梁頓、

寄心田書

一昨暢頌教言、傾聽、無量、湖田、柳橋、舍人所、願到、奉

翁一柄、菊凡三枚、具細厚愛、無任感謝、拙作函首、湖
筆兩枝、信箋兩束、藉申菲意、乞賜莞納、專駕輝風之
後、尚望時息尺書、藉紓離緒、書不盡言、既祈鑒悉、不
具、心田先生閣下、勞宗煥頓、

荅勞亦宜書

叔雨舍人席上、幸適識荆之願、清範尚今森然在眼、
令人永不可謾、若忽奉琅函瓊什、輝映旅館、兼曠湖
筆信箋、受賜多矣、銘佩無數、逸弟明將終旆、歸心如
矢、在弦、荆後相思、惟在海之東、江之南、此生此世、何
當更圖握叙、臨楮悵悵、朴思浩頓、

寄心田書

頃從印橋中翰處交到雅篋珠丸、譯翰隆情、感謝無
既、茲奉去款、扇一柄、詩箋一匣、聊表微意、祈晒存之、
又扇一柄、乞轉致雲庵先生笑納、專此佈謝、即頌時
祺不戢、米其鎮頓、

答朱九山書

紫陽夫子正大之學、海內孰不景仰、而東國尤為尊
尚、吾道之宗、其不在斯、而然耶、僕以偏邦、南莽之學、
此游中國、得見大賢、後商、復聞白鹿、講視武夷、勝境、
欣慕之極、沾沾自幸、又蒙大君子、頌蓋如舊、諱論聲

蘊詩、痛箋、匣贖、賜便、蕃實、未知、何以、得此、也、別、後、敢、
敢、仰、想、一、般、而、春、詩、大、闡、幸、祈、一、信、通、寄、以、申、嚮、懷、
如、何、一、病、轉、寄、雲、屏、同、此、鳴、謝、耳、九、山、先、生、澄、覽、親、
林、朴、思、浩、頓、

與丁舍人書

書、值、燕、鴈、一、日、令、承、函、度、手、紙、謹、悉、感、佩、而、聞、者、往、
返、西、山、致、此、稽、謝、悚、仄、悚、仄、春、雪、料、峭、起、居、珍、誼、瓊、
章、奉、讀、耳、三、如、濯、熱、清、風、令、人、神、爽、况、情、眷、款、款、溫、
於、辭、表、尤、可、銘、肺、明、日、將、啟、往、造、明、屏、更、聽、良、誨、與、
蘭、雲、約、會、是、所、願、望、屬、茶、心、諸、公、有、不、避、之、盛、意、亦、

將承教進退、幸致此意否、拙楫茲呈、只可覆瓿、幸望
恕其粗率、餘在奉叙不備、

答心田書

俾來知兩度、手簡均邀青覽、欣慰無狀、西山之游、極
饒清興、恨不偕謝公屐、盡同選其勝也、瑤章已拜領、
語聲情真、良深欽佩、明日辰巳之間、即望惠臨、僕當
掃筵以待、蘭室諸君、今晚先為走訂、菲物四種、聊表
下悃、希為哂細、鍾元甫、朱九山、勞亦宜三君、屬寄詩
章、芳什另單奉上、專復謹 起居、諸侯、而、庚、弟、丁、恭
頓上、誠夫先生、塵友

寄心田書

自北八日於雲客小泉座中得接光儀如坐春風三月積膏都各自覺頓消翌日之納實以友人要事見阻、歎何如之、万里萍踪猝會即當遠別初四日行棧就道不能旗亭一饌暢話臨歧惜此天涯海角僅得於風朝月夕想光霽之高踪、却也無情抑何能恕然也、雲序先生贈刀、敝當常弦之佩、美人贈我何以報之、鴻便東來、仍望好音惠寄、是所禱切耳、此希即請

雲序而先生行安不蓋、洛陽中峯李辰豫頌、

外附呈碑版四種、徽墨四定、又碑版四種、徽墨

四定奉贈西朴先生、平分用之、瑣瑣道意、伏乞
荒細是幸、

荅心田書

使到惠錫多珍、故已拜領、昨日有復書一件、謝詩一
首、託和合參局轉呈、未知送閱否、弟明日有公燕、素
後日亦不得閒、二十以後、望選定一二日、先期示知、
年常約蘭雪翁共叙也、前款廬同席諸君、俱有詩奉
贈、大約月底可送覽、拙詩尚存、蘭翁處、雪翁當即取
歸、待政事復、鳴謝、順請日佳、庚午丁未頌上、

寄卯橋書

春八里旬時物海華經歲思歸之心如水流切欲
更進芝宇德聽雅譚庶可以消遣羈旅未知綾直不
值卯辰耶蘭雪翁海內詩宗也更惡合席共做一日
之飲到此願望如何九山諸君子瓊瑤之報專等專
等而仁兄詩集待雪晴推選暫寄使遊外之人得玩
拱璧切仰切仰叔雨中翰閣下庚弟心田頌上

答心田書

承惠多珍照第拜頌致謝悃方今贈各件送去索
復再奉心田庚兄青覽丁蒸頌首外答書一函旋使
一封

又

贈件及分致朱九山諸君土物、俟使到再復、到後遣
使出城以辰刻為候、遲則有公私牽絆、恐似鴈燕之
不相逮也、燈下讀尊簡、率成五律一章、先錄呈教、丁
亥載拜上心田、庚凡先生足下、復書三紙、另二紙、十
三日燈下

寄心田書

行旌適發、不及過尊館、話別、歎何可言、昨晚直夜、今
日出城、已過午刻、貴使到蘭雪處、不能追陪、笑僕讀
書求友、而外別無他好、鴈魚有便、尚望惠我好音、令

嗣聰明特達、他日奉使來都、孔李舊交相見、尤增一
貼佳話、拙詩兩張、照言一副、書畫丹牋紙二束、家香
肉一方、聊以將意、希莞袖是荷、復靈樵伴乞、即傳致、
趙孝人李芝山晤時、俱各代為道候、專爾奉布、故聞
起居不備、印橋第丁、恭頌上、心田、庚兄、先生、左右、初
二日、燈下

琴瑟通輯一套、福幼遊生篇二冊、武教編二冊、
陳廸四匣、以上四件、印橋奉贈信物一色、詩一
張、以上二件、勞亦宜送、紙一匣、扇二柄、信一件、
以上朱九山送、詩二張、鍾元甫送、

荅印橋書

鑑下拜教、青眼頻開、僕有三願、願觀天下好山水、願
讀天下好書籍、願交天下好人物、今仁兄之讀書求
友、別無他好者、豈非同志耶、周庚同志、幸又同世、友
道之重、何日可忘、令嗣南遊、楚國、尚未還觀、恨未見
鸞鵠之風儀也、家豚入燕、若修孔李之誼、亦增美事
也、靈根復青、芝山致意、謹當如教、各種芳什、俾願感
謝、而其中學節、通編尤感致意之新新、歸傳海外、使
東儒洞知、朱陸之辨、則大是吾道之光也、明將啓程、
臨楮、悵惘、別使之行、又當候候、姑此不備、心田、庚第

朴思浩頓上

寄心田書

前承枉顧、因俗冗羈身、未得奉陪、至詩舫、殊為惘然、
別緒牽人、轉增嗚咽、兩先生同之否耶、昨燈下草草成
四絕句、奉送行旌、言之無文、且慚愧耳、抵漢城時、尚
在春末夏初、歷碌舟車、諸雜珍重、晤紫霞諸君、希道
飢渴、并言鄙人無恙、尚期尺素常通、勿吝鴻書、逵貴
也、第性無他嗜、惟喜法書、名畫、倘兩先生不遠在爽
他時存問、故人均祈惠賜一二、則百朋之錫、非但藉
伸晤對之懷、又何幸如之、茲附去中峰少白印方諸

件一一察入、致玉房信前、曾仰呈、輝時即飭、轉交、
定交、幾日、後全復、何年、念之望之、謹問行安、惟鑑
不備、二月三日清晨、愚弟熊昂碧頌上、

答雲客書

詩舫題鳳、尚今悵惘、惠教鄭重、兼贈四絕、詩行者有
賸古之禮也、况秣馬臨行、禱褶已成、一出崇金城、便
是青春作伴、好逐鄉矣、際此一詩、足以壯行色、尤庸
銘感、榮霞玉房諸公、當速致懇如之意、而若盡法責
鄙人、素無品格、何以得合於高眼者、仰副勤意、那第
當歸探海山之間、笑中峰、少白印方諸件、一一拜頌、

為我轉致謝意否、全地寥落、碣石崢嶸、邂逅吾兄於
其間、解笑怒罵、皆成文章、澀然相照者、一段靈犀而
已、風塵潦倒我輩、何足概懷、天地間得一知己足矣
雲客集一員、謹當歸卧、書挂見其詩如其人也、海外
朴思浩誠夫頓、

寄心田書

奉去家文、敬公心經全帙、劉文清公心經一張、曹素
頂烟一笈、謹塵心田先生、即希鑒入、松江張甘生、
答張少白書

謹領心經兩員、頂烟一笈、珍玩後時、欣感並摯、足下

妙年夙就、神采丰茸、喬木蔭麻、想在早晚、惟祈益修
學業、早闡大名、向贈篆聯一對、謹當歸揭山房、日夕
相對、見具筆想其人、也、少白仁兄正鑿、愚弟朴思法
頓

寄卬橋舍人

前付來心田先生所惠土物二種、謹已拜登、乞先生
代為致謝、外附去詩扇一柄、成紙一匣、並乞轉達心
田先生、囑存之、是幸、專此、即頌卬橋先生台祺、不一
一、愚弟沈洛頌、

寄謝沈雪門書

識靡新推獎之太過、非唯上國化洽、乘逸實荷足下
愛人之德、迥出常格、願何以薰沐至此、有斐君子、終
不可謏、苟正准今日語也、一辭帝城、梅雨知時、仰惟
尊體、按序崇裝、夙夜花親、究展措宜、竊賀為天下操
券、而想到天新兩道、少人境界、倘或念及於海外、未
契否、猥以同庚、又叨並世、自謂孟常君親已、要得文
潞公會甲、雖特著、特異、恐難掩、借是之自著也、
賢郎趨庭、真二日富、交擬二身、感信中心、抑亦人情
之自別耶、惟感慮攸及、跋涉是利、亦固非受賜大笑、
刀頭、屬耳、神思茫然、不省其所為、別使程期、薄值、無

幾忙構一詩、莫以抒衷、非為嗣後、年貢之便、而今此
冒犯、疎畧、主臣萬萬、聲茲菲忱、先申起居、統希仰道、
自重、因風、息音、伏惟、昭亮、鑑此、三先生、候儀、并以封
進、幸蒙、自責、所一一、分傳、俾皆、賜復、於此、使回、時、要
得、別後、信息、耳、蘭雪、老人、九山、諸公、近得、太平、耶、科
期、已過、喜報、方切、願企、姚元之、先生、隸書、僕甚、愛之、
幸乞、遂初、否、雲、庫、歸、風、後、擬、作、山水、之、游、未、及、有、候
氏、靈、樵、書、即、傳、而、今、便、又、有、修候於、此、去、俞、友、云、似、可
收、覽、

答心田書

心田在下、刻未六月、時切暵飢、俞君過訪、交到手簡、
並惠贈參、薑、丸、匣、諸品、為雨多情、請風載得、引領東
望、神輿均馳、蒙就敝廬、握管論文、頗結蘭契、候鳥判
袂、惆悵無任、水陸迢迢、舟車老德、行人忘恙、實慰我
懷、九山朱君、已登甲第、吳翁蘭雪、補鉉外州、各屬寄
聲、以荅逸念、屬蔣書物、即辰遠致、雲寄遊幕、累當需
時、姚公軀肥、不耐受暑、涼秋執管、行即書守信、區區
伏祈諒我墨跡、石刻近集二冊、附以拙句、謹報瑤投、
并使入都、別園中悃、為道自重、不盡奉奉、己丑七夕
前一日、浙江庠第丁泰叔兩拜上、

與蔣少泉書

武夷夫子詩有曰、繞樹千百迴、句在無言處、僕亦足
下、翹煙之思、不啻千百、則宜乎以無言處一句語、斷
之也、第問通來起居崇護、真工日新否、思浩幸免疾
恙、跋涉似利、餘何足仰道、俯教書畫、未克仰副、不勝
兢惶、此後使人亦有陸續、容俟恕罪、不腆表物、雖不
滿一掬、而苟或領千里外、衷曲、則何幸何幸、仰君丰
容、尚不可忘、諸侍彩、增休、學業懋敏、那佩刀、奉贈、俾
示遠意如何、統希珍察、以道自衛、更須頻寄、惠音、以
為海外仰服之階焉、

荅心田書

春初得覲芝儀如親芳杜、輶車旌邁、復承手教、未頌、
惟時以俗冗他出、未即希覆、至今猶悵悵也、月之四
日、叔兩舍人、交到華翰、並惠多珍、對函拜頌、謝感友
榮、藉悉福星一路、安抵漢陽、近道譽日隆、文章日富、
遠人東望雲天、翹首而祝者也、僕倚奉之餘、一忘善
狀、學業就荒、歲不我與、頗覺可歎、願先生有以教我、
俾得指南、執筆不勝企羨之至、伏希澄鑑、不宣、少泉
弟蔣鏡頌首啓、

與厲郎中書

生而并一世、居則距萬里、萍水偶合、蒨露翻想、儘是
宇宙間一片靈臺、掩不得光明之照而已、梧陰分界、
烏兔迭景、倘足下垂、懸於海上、做秀才者、牙大度所
包、不鄙遐陬、譬諸芝蘭之共嗅、有如河漢之莫量、踵
旋蝶域、橈音未已、首回鶴關、魂夢徒勞、則何令人景
仰若是、伏惟繁夏、尊體崇衛、夙夜在公、翰墨整暇、蜚
英盛際、黼黻頌才、區區想望、不徒在於雲樹、日夕也
僕適車歸、幸藉逸念、飲咏隨分、何足仰聞、適值使
行催終、計量未周、強搜一詩、荒醜益露、迨惟噴香、不
勝駭汗、畧此冒呈、替申起居之禮、惟冀千萬自玉、時

賜德音、燒希照亮、

與熊雲客書

鶴和陰而磁引針、此物類之感於聲氣者也、磬砧之氣、激仰之聲、足以振衣千仞岡、濯足萬里流矣、果是下具人也、僕以海外遐踪、邈若臭味之不相及、而偶獲聲氣之自相感者、豈非高山流水之過於鍾子期乎、隨槎南館、幸遇識荆之願、奉袂仙高、益荷傾國之衷、心焉如醉、充然有得、雷門布鼓、未足以喻其多、耿耿于中、何日可談、仰惟其間、瑞萱屢抽、起居益旺、佔畢多暇、翹仰雲樹、靡時不憧憧、思浩倘常艱險、返國

無恙、尤仰、速念之、彼暨、歸來、定息、曾不、踰辰、使行、催
發、冠蓋、甚忙、俯教、書畫、未克、奉副、不勝、兢惶、從後、冠
蓋、常有、頽續、竊希、寶體、自重、擬俟、德音、俾悉、屏眩、是
所、區區、也。

外藩賡詩

皇帝幸紫光閣、錫宴諸藩臣、賜一詩、使之賡進、即
經遠之義也、收其各國所進、為外藩賡詩。

皇帝御製、新正紫光閣錫宴諸藩臣即事

祖功藐煥仰昭然、昨歲欣逢、倣獻并禱、者壁間圖、戰
蹟又欣、雪後麗晴天、共球異域、聲威遠冠、鈞殊方德
化、宣自是陽春、敷闡澤凌、宸高閣喜、開道

盈庭玉帛、舉欣然、况值河清、撰頌年、洪渥美、徒東漸
海、神功益見、上恭天仁、函萬國、歸星拱、德協重華、仰
日宣、深幸微蹤、均內服、新春法、筵獲陪筵、上使

參三登五德巍然、莽祿洋洋屬慶耳、千羽兩階威絕
域、旆旆萬國頌仁天、龍捷喜飾逸氛靜、麟閣恩酬武
功宣、率值臣身親見日、恭琴庭實侔瓊筵、副使
至道、魚為貴自然、祖宗鴻化萬斯年、蟲魚草木生成
地、日月星辰照耀天、輯玉羣邦文教暢、分麾三命武
功宣、紫元會觀雲台、畫回十元勳次第筵、書狀
垂拱當陽樂自然、國陵歌頌祝堯年、觀光紫閣欽神
武、拜罷彤庭仰帝天、德大函三恩浩蕩、功高紹五化
昭宣、藩臣率附冠裳後、靈液香露上品筵、

琉球國正使毛世輝

紫光高閣望超然、五色雲開卜萬年、盈劬千宦爭就
日、獻芹一介喜朝天、兼三出震恩光滿、乘六濟乾德
澤宣、咫尺龍顏欣最近、滄泱肥髓沐嘉筵、

琉球國副使楊德昌

出塞別章

燕裝已成、風霜皓潔、祖帳如雲、勞送客、親戚友
朋各自賸言勉之以勞、加餐乃收拾、斷簡長篇、
為出塞別章、

去去幾千里、迢迢寄一言、朔風仍冒雪、安寢復加飡、
周史誰微後、堯封倘免存、鴨江春水綠、屈指渡輝輦、

蒼軒

念昔髫髻起時、按圖賦城市、國中大都會、宗廟百官美、
撲地幾萬戶、瓌璋猶遠裏、而于今北征、中州掌上指、
補鑄全幅輿、斑斑古來是、下及皇明後、上自三代始、

書

耳目所親記塗轍自適并觀宏展拓否不翅望評羨
親樂百世風曾說延陵子少日圍南朗素蓬望弘天
牙今髮已華行不出鄉里童游如昨日遠菊香神躋
九孔松潭韻眉岑和鳳紫風想自不局河清竊有侯
慨然蹈海思誓將窮諒已藹藹黎蓬茨半世無知己
慷慨吞來吐談東復西抵玉河隨星輅金珞醉霜七
石頭吊遺氓滇南訪奇士龍塞聘奇智燕山刷宿恥
一脈陽秋義百劫猶可恃善哉閔老覘當時良有良
適來二百年空言無所擬弱國役於強歲歲皮幣使
觀採匪無人太行困駱駝傳聞殲失真雲繡而波詭

(以下上行墨出)

耳目所親記、塗轍類駢、駝囊毛附、驢尾十月、理行李、
以若闌闌見、陟遐較自通、并觀宏展拓、不翅望、詳嘉、
觀樂百世風、曾說延陵子、少日園南期、素蓬程、孤天、
于今髮已華、行不出鄉里、童游如昨日、遠蒨香神、
九孔松潭、額眉岑和、鳳笛風想、自不局、河清竒有侯、
慨然蹈海思、誓將窮源已、藹藹繫蓬茨、半世無知己、
慷慨吞未吐、談東復西抵、玉河隨星輅、金台解霜七、
石頭吊遺氓、漢南訪奇士、龍塞聘奇智、燕山刷宿恥、
一脈陽秋義、百劫猶可恃、善哉閔老覲、當時良有已、
邇來二百年、空言無所擬、弱國復在強、歲歲皮帶使、

觀採非無人、太行困驂駟、傳聞迷火真、雲譎而波詭、
此疆卽南界、同車豈異軌、山川雖殊俗、唐宋由一揆、
天運已過百、遺風庶可揣、夷夏界漢滿、枕上加鮮履、
冠裳皆為變、文物不可數、石刻十三經、尊閣崇宮祀、
良岳萬歲後、西山何剝窳、範圍雄魚敵、其築啓一侯、
地產終有限、得非商俗靡、莫使玩武移、恐為東人累、
皇城四十里、直達道如砥、重重洞開門、井井有條理、
若循先王法、寧以達州鄙、虎耽秦阿房、蠶繅漢秦畝、
試看今日域、冀州好風水、出并三分政、直隸民所止、
粉黛椎髻俗、懷悍弓馬技、庸雅假以文、箱制得張弛、

宮室示重威、皇王壯基址、九視罟蕙角、拱極天半起、
濟濟朝元義、九叩拜無跪、攻壘渠長策、操縱洎淖委、
超八朝同列、憑陵著羸氏、象譚羣方萃、侏儒皆魚底、
我邦存忠信、禮義見猶彼、區區事大誠、不敢過鞭弭、
雖今歲星霜、忍與紅兜蓋、痛冤何須提、窮覽斯可矣、
一夕渡鴨水、著渺朔氣崎、去去山海關、長城壯列雉、
卓犖寧遠伯、精魄應不死、萬古墨胎祠、清風尚可企、
幻迹傳茅鶴、閭塵想突狄、徃徃懷古蹟、憑軾恣而倚、
挾袖戎容偉、萬里視尺咫、潘河八旗堡、誰能下鞭箠、
主客既異勢、用人捲糠粃、精利須資力、皆向古塔底、

縱有有志者、豈肯出而仕、通州最近處、謫俗事為徒、
館簿四十日、何事是、消暮、牛渚、燭幽、埃、波斯、架文、矯、
憲、率、玳瑁、殿、寶、氣、常、曜、紫、唐、殿、勝、虹、橋、隋、閣、剪、綵、藻、
雕、鐫、不、厭、巧、爛、報、皆、錢、梓、載、籍、知、極、博、舉、人、賈、裨、史、
需、才、用、不、偏、依、樣、因、大、比、窮、幾、隨、計、借、十、載、端、我、誌、
習、性、愛、文、士、推、獎、太、過、儻、會、因、如、傾、蓋、細、心、必、倒、鏡、
楚、越、照、肝、膽、泮、泮、筆、下、紙、邠、無、庸、中、使、觀、人、知、在、此、
以、茲、恐、遠、游、嗒、忘、南、郭、几、然、惟、天、下、物、因、難、可、誰、淡、
生、長、海、隅、編、東、南、不、盈、視、丈、罷、苟、待、斷、有、若、連、抱、杞、
懷、賞、隆、上、都、聘、雅、掃、下、俚、詞、章、方、進、格、聲、價、且、倍、篋、

望華蕪篇竹雀生得其髓、猶傳河朔間、警策拳詩壘、
代之無如今、延譽易與耳、浮名不足貴、昭迹庶免訕、
非關塞上翁、宜我心中妓、竄主國盡美、會須前人址、
說時異做時高、見果何似、誠將斯言推、不易一板紙、
聚糧已三月、原隰終遶遶、直北隔三千、天漠頑雲彌、
往矣霏霏雪、前期春上巳、不家丈夫事、沈鬱柳復甬、
矧伊孔懷心、難盡詩中旨、往還須珍重、緘悉請都紀、
涵碧

策策遶風落、遠隨十日槎、書初今古氣、應吊易水坡、
右感
古懷

萬里長風透破浪、天涯落落晚參商、最喜腸斷關山

月、淒笛春光奈折楊、右惜

大題郵勿曉橫鞭、便腹輪囷氣礪然、月遙關笛梅街

雪雨送易歌、鈞化鉛、金繒漢鴈愁同侶、呂昂趙毛重

自懸、小車從後看星出、山驛水郵接順天、右玉

皇帝飛萬里、輝耀對憲山、重禮長身樹、依、文士從軍

何有事、去時、康吉願北歸、右三五

薊城頭、髮欲秋、鈞語啾啾、飲馬看寒日、出東溟、倍覺

愁城十丈、右攝

鄉夢起、虛館、去來移柳、始茫茫、塞外鈞、脉脉月前、橫

霜盡契貂黑、歲翻動管灰、陽春迎拜出、待苦若文迴、

右迴
文體

醉寫

行行重行行、萬里相別離、別離非所惜、臨行恐無辭、年
年三韓士、此去不顧私、投目望山河、迢連復峻嶒、道
路日以遠、令人長相思、寶劍出西關、駿馬嘶北風、北
風吹不止、古渡落葉空、如過燕趙間、悲歌吊英雄、今
始秋草沒、回首意無窮、
北游幽朔城、朔城多峻艱、策馬問前路、前路復漫漫、
寒風透曠野、積雪被曾巖、遠游須及時、書生發浩嘆、
翩翩隨使蓋、行行入秦關、不言今日別、但問幾日還、

顏色魚鱗微、懷抱何盈盈、自言求壯觀、作此萬里行、
若我遠征人、北上長城阿、孟冬寒風至、曠野飛雪多、
馬毛縮如蝟、狐裘薄似紗、天涯一瞻望、太行藹嵒岽、
日日行不息、河山復幾何、何思萬里外、時復發孤吟、
去去遺情累、戚戚萃我心、

綿綿思遠道、行人未暫休、朝發慕華館、暮向邊城頭、
邊城不可望、去去令人愁、借問何所之、燕京一萬里、
不辭附驥尾、呈車向北指、遙知秦關險、荆山與易水、
古渡邠無感、至今寒風起、

明月何皎皎、皎皎照我床、床上何所有、鳴琴有一張、

向月彈一曲、非為愛月光、上絃怨別離、下絃苦相思、
遠游雖云樂、不如早歸來、歸來有親戚、情語亦樂哉、
萬里送行遠、莫徒浮生、無奈似萍蹤、鴈來人去天南、
北、烟樹雲山隔幾重、

北風秣馬出西關、天外愁看笛裏山、此別知應從古、
有、遠游能得幾時還、

朔風飛雪滿邊城、日暮關山短笛生、關山暮笛邊城、
遠、盡是行人無限情、

今朝相別雪風催、未歲相逢花月_日、迢迢憶止陽門外、
路、去時車馬復來時、

孤城一片接黃河、歲暮行人鈞有歌、鴨綠江頭東渡
日、垂楊芳草奈情何、

床書運鈞恨寥寥、上國觀光不暇遑、二十年来無此
別、三千里去卽今朝、玉河雲盡征鴻斷、遠野山平駿
馬驕、筵裡行人關外月、梅花楊柳夢魂銷、

出關何所去、風雪載征車、壯觀人皆遠、多聞友莫如
奇珍、易喪志、能事在藏書、遠別那無語、斯焉可勉諸、

虞觀

東游纔返又西征、有志終看幸竟成、意匠應如遠野
湖、詩思多在荊河清、冰烟慣是朝天路、梅笛那堪出

塞聲也。識此行孤矢，願臨歧何必惜離情。
東井
知君此計任無因，自謂將成了債身。蓼木元來未嘗斲，
士、柔蓬今作弭鞭人。長程極目仍經歲，往蹟傷心似
隔晨。萬瀑洞中相倚約，歸期應趁海山春。
海谷
萬里隨征蓋，關河十月關。中原一天地，小國獨衣冠。
何處全始此，抵今易水寒。君行無所贈，努力保平安。
木落天長漢，水城布衣相。送北風生，若逢多少燕南
客，為說秋壘讀慶卿。
雪谷南渡
洛下新元送客情，關西今日又逢迎。鄰居有約知何
處，遠別無常款此生。夜抵并長廡，我飲冬晴夏暖護。

君行卸身欲作東歸夢、憎殺胡笳出塞聲、

秋來信憶舊漁舟、萬緒難澆一白浮、千里關山通客
枕、五更風雨動江樓、長徒食粟今仍老、窮不工詩始
覺愁、襟海故人真念我、每逢東使問西游、

經旣趙秀三

溪上有一男子自稱曰心田、南禪于伽伽、西登于有
陽、東觀于蓬海、又將北游、之燕、立馬余田廬外、強余
贈一言、余曰、贈言仁者事也、余何敢、予以田、稱已知
田矣、余老於田間、田之說、無已、則請以田對、夫田之
為物、備矣、博矣、上為而享天地、交百神之馨香、興為

下焉而羞者為頽、萬民之精液出焉、中焉而闕門閉
之、堂室之基本在焉、然則為田之切、苟可少哉、是以
古之善為田者、必去其為害於田、溝洫所以去水之
害也、蓄畜所以去草之害也、佃菟所以去獸之害也、
錢鏹所以去稂莠、執耨之害也、祈禱賽蜡所以去旱
澇霜雹之與夫螽蟥螟螣之害也、辨別之精、如是其
嚴矣、保養之厚、如是其勤矣、然猶未也、貪多也、有甫
田之戒、欲速也、有樞苗之戒、急於取用也、有生拍之
戒、眩瘠之不等、望熟之不同、亦為田者之所不免耳、
勞多功少、則沮敗懈怠者至焉、甚則以為無益而捨

之者、亦時有之矣、是故不畱而畜、不耕而獲、此又善
我之善我也、六害者去、四我者至、而田之不治、非田
之憂也、然後五穀之生、咸得其長茂、遂成之序、而時
至而收、其功為始之一家之田、而一家之人飽、推之
一鄉之田、而一鄉之人飽、推之一國之田、而一國之
人飽、推之天下萬世之田、而天下萬世之人飽、而向
所謂享天地交百神、為壽考頤民、闢門立室之事、可
得以語矣、此則為田之功也、然五穀之為物、難保
而易敗、凡百害穀之物、易蔓而難固、驟見其如是也、
遂以為穀非宜田之物、亦非所以養人者、於是乎辟

穀不耕之說起、或以為穀固宜人、草木蓬茅亦時有
用、何苦屑屑於區別取捨、而反見收功之自小也、於
是牙並存俱蓄之說起、或以為穀非不美也、與其幸
勤勞苦而未收、及熟見功、曷若姑收稊稗之秋、而
易為之用也、於是牙稊稗之說起、噫、辟穀之說行、而
天下之薄農而嗜奇者、矜然而嚮之矣、並存之說行
而天下之饜農而喜廣者、靡然而從之、矣稊稗之說行
而天下之懶農而饒利者、欣然而趨之矣、雖欲見一
夫之墨守拙瀟、不為之前却、何從而得之耶、三說之
於五穀、其為裾著耳、亦莫甚於並存何也、辟穀本不

是以引年、信農者可以無惑矣、禱禱固不如五穀、智
農者亦足以破之矣、惟此並存、理近而禍遠、近者易
諾、遠者難詰、今夫居麟虎於一山而並存之、則其勢
必至於虎活麟斃、置水炭於一器而並存之、則其勢
必至於水毀炭全、心似不偏於厚薄、事實倒置於順
逆、害有流於莫其苗而火其田者矣、其亦不思而已
矣、由是也、田說日裂、田法日隱、一田之中、只消存着
一根禱、禱不除、則已而旱之矣、又不除、則已而又化
之矣、又不除、則已而並與禱禱而隱矣、雖欲復收禱
禱之效、其可得歟、已而草茅彌隴、荆棘連卷、已而蛇

龜盤播於其中、鹿豕狼藉於其上矣、掉臂而過之者、指以為蛇虺之穴、鹿豕之場、誰復有知此是疇昔之田地、而為慨然嗟唏長太息者耶、予將行矣、為我問於舜耕之野、詢訪其髣髴典型、既又廣求古首先農為田之書、歸以遺之、以驗吾說之得否、因得以編成田家集說一部、大令留待予歸田之日、清燈徹夜、然床對讀、共俟來人皆播肯穫、亦一事也、心曰、子曰、謹此則然矣、吾之問在心而不在田、子之對在田而不在此、不幾近於郢書燕說歟、余笑曰、漁者言不越釣、樵子謀不踰薪、子欲開心之說、當就仁者而問、何謂

我老農為我、逆錄首末、替以奉贖、著雍困敦、細稼月
上旬、華西田夫責、
藥漢李先魯

分明是自家一區好田地、耕底耨底半點兒不
錯了、治田本來底規模、不然那得恁地極商量
細排鋪來、田比則心也、六言四戒比則私慾也
心不治則私慾勝矣、此人一箇心先光明、明底
渣滓淨盡、據着他私慾不得、看他一場說話、徹
頭徹尾、有偏有背、直欲使聽者跣足而請教、信
是修在己而及在人者、田比則道也、六言四戒
比則異端也、道不行則異端橫矣、此人明道、斥

異之異之平生工夫這一紙田說上、猶可換得千古善論

者、讀此直欲喪氣却筆、右桂山李正誼

一曲驍駒動逸情、朔雲遼樹擁行旌、
蕙園青山連蒨塞、戰場明月滿遼城、
屠市逢人多擊劍、新亭舉目易
竄纓、祇應華表鶴、風雪年年慣送迎、
致胤驛柳西風冷、拂顏關河十月路、
漫漫虛龍塞上荒、雲合駿馬坵前落、
照寒此去難尋、周禮樂、追時
意復漢衣冠、中原故老皆零落、
誰把嵒山畫象看、致勗周覽東州更
北京、風寒驛樹遠、離情鳳城
万里乾坤大、鶴野三冬兩
雪橫、物色殊方皆壯觀、
文章此去又

高谷、蓬人莫問前塵事、燕市悲歌意不平、李龍鎮
飛鴻墜葉不勝秋、又復蟾江送客愁、中國山川真大
觀、丈夫書劍可優游、風寒鶴野沙吹面、歲暮燕城雪
滿裘、午夜胡茄賓館夢、幾時能到病懷柔、

白草黃榆出塞多、征人此日鬢生皤、清梅不盡新亭
淚、雄劍長鳴易水歌、新鴈西飛隨使節、海雲東起駐
征騾、君行試向金台路、為問涓人駿骨過、

曩自關東後、明將薊北逢、秦城催去馬、渭水悵離壺、
土俗觀詩臉、山河撫劍吁、秋燈燕市夜、誰復任歌呼、
直北三千里、冒寒故人衣、風酸征馬倦、雪滿獵胡鐮、

思漢歌猶在、觀周樂已非、文章宜潤色、唯冀式遠歸、
積雪朔風撲面吹、念君驅馬日西之、病卧窮山恒悵、
意、能盡說一篇詩、

故人相見夜、搖落海山秋、對酒論深契、將詩語壯猷、
花香依砌襲雲氣、入簾收、南浦思君夢、悠然月與流、

右無漢子

燕行錄

八月二十五日丙寅晴自義州行三十里九連城站
中火四百里湯池子止宿渡江時有五野搜驗過
小西江到中江蘆葦葦夾路間多柳三江一名穀
河一統志云九連城金將幹魯干合懶甸等
九城其高麗少戢八身鳳凰城門外有九連舊
云自三江至柵門百餘里空其地以隔兩界山
田跡轉涉平臚依然有鷄鳴犬吠修上軍
官沒幕帟四圍燔柴吹角防帛又有護行槍軍
三千在前江有三條鴨江中江三江是也鴨江即古稱
馬紫水自白頭山三沙流出而逶迤七邑而來楚
山渭源則名之曰巴豬其教源也中流也曾已見
之其末流今始渡矣中江以後則護行諸人一並

落後送者在江上望見青蓋翩_々於亂葦之
中頃臾而滅亦無銷魂云九連城略有形止而
山舞箇_々縈抱者為八九曲想即以為名矣
拈站而日尚早欲見溫井與上副价步行數百
武至其所蓋霧如烟焚若落葉盡覆水面以
杖導之濯足而歸入幕次可容三四人坐屏
障而具焉厨人進_々飯饌品頗潔可喜火光
達夜時_々的喊相數_々響振山各夜深而宿侵
曉而覺漸覺_々冷氣之透肌膚秋之寒尚如_々
東歸之日改當雪徑可想其寒_々答_々
二十日丁卯晴行五十里到柵外中火自_々江
柵合為一_々十里而山明水麗野闊洞深_々

可居無之心土肥幾百年等棄殊可惜也金石山
松鶴山相為對峙而滿山霜葉無非紅酣
若蕊秀石壁蒼閔丹樹翳碧溪橫帶
異剝開浩盡屏風者宣明倪文僊奉使
東來過平山之蕊秀謂與之相似因以名焉
湯詠跡傍有一壁古城疊石尚宛然老不
簾紫行敗堞武祿安市武祿東明王舊第
而未詳孰是未至柵十里東面有上龍山
峰妍秀巖崖高峻柵門右邊又有石山兩
峰特秀都是石峰名之柵門山亦謂柵門
尖木列樹十餘里樹之甚疎可謂折柳樊
圃之意也中有門其開則先通于鳳城

將然後鳳城將府衛率章系字四員及通
官之員未坐門內使首譯輩性後後始開
門遂一擁而入各房後人及任譯皆步行方物
及諸上之輸入各有條條而覆以第第單制度
頗軒敞兩邊必設炕比屋皆熱清人之所居散
在各房殆近不戶多有未見者未習弊是而
目醜陽始見不似人形所言皆侏儒無以相
通柵門舊在鳳城東五里距鴨江一百四
十餘里而空其地不居蓋防彼此奸民相通
之路也自數年前福設於數十里之外此由
於鳳城人之開多欲廣其耕牧之地然去鴨
江益近心非當初設置之意也脫後與上刻

竹步修苑關帝廟及小寺卓上列坐塑像
一如我國梵宮十王殿樣子其後又有紳塾
而老學究龐厚又焉聚童數十或讀大學或
讀類合之書而其讀法細且緩一難解其有
讀與其老老禿略以筆通情而歸夜宿炕內雜
閑而心無外風去人之姓即鄂哥而呼之爲
乃回之即鄂也。

字有戊辰晴日暖如春裁付京書午後與
副竹修苑見安市城自棚去去不過五里許
略有城址俗不稱鳳凰城如我國之道嶺
萬丈峰而東西並三面環之以巖嶂峰如
挿筆石毛蒼白身都奇秀此處又極皆壁

五岳餘麓之肢脚與我國山形絕不同矣山
南水口近武平州等城府之可謂一夫當關
萬夫莫用矣也唐虞之復復因其然故
城內時有居民結茅生徑見其草而日之
夕矣羊豕成羣下來小童以各歸其家
正當收穫之時務粟稷菽種滿疇田車
駕以馬牛驢騾而必用三子耒去連後
不絕其所食不可與我國之遊食者可執
一子而已已時而溫自此出莫不平皇駕以二騾
雖甚輕快動費七千兩銀子足為中人家
之產是日行三千里至鳳城市同閣活佛
茶坊其非殷盛如見者以是臨見觀者夾路

羣洩糾呀隨後性觀城門設二層樓在
帝額而石面刻集端同三序城內甚窄別
無居民只有公廨而已仍即回車行二里
挂宿四台于山谷略有五六人家問其地
也而呼之以致○

二十九日庚午晴溫用車裝過白顏洞踰麻
姑嶺至松站頗開野人家簇如魚鱗殆
過百餘戶雖傍有二松亭如孟自三以至
寺惟為數百里而茂密茂林者都是想松
之屬初不見松樹今始見之不足為奇松站
云者良有以也踰大小長嶺渡崖地劉家兩
河括黃家庄合為五十四里中火後即教行

二千五百里抵通遠堡留宿是日行八十里主人
 之姓即解哥呼之曰判寓家在大街北邊而
 屋類大南向者為五間東西並各有堂屋有
 內外炕，即墀也五間之中設門室皆有炕門
 兩重而炕屋皆五椽三面則築小牆前面則
 為廳自柵至堂其制大同云耳驢磨之法
 為已聽聞而今始見之置大盤石於庭中
 平而圓中樹一棘此我國白桶樣石子置諸
 其上灌之以蜀黍粉糲之虜虜以小驢，目掩之
 以足布一鞭踏踏而課之一女子持以帚掃入之
 一日所磨為數石穀云事半切大我國亦如
 邊則甚好矣○ 二十日辛未晴而晚風行

平中黑草所橋中少過當向其沮如春行
時沒跡難行云踰分水為侯俞家三嶺行
三里至極處山因投宿嶺則雖不甚峻石磴
確車行甚難分水嶺之所環諸山之集蓋全
忙嶺是平坂而嶺西水入遠河嶺東水入中
分水為名也由此也蓋遠東諸山皆從此過
嶺脈自子丑間來矣走山因疊障四圍開野
廣有四十餘家而夾溪而居焉亦一都會也
主人之姓即馮哥而呼之以冰達夜風聲不
止適患泄登咽甚煩行事煩悶心

九月初十日壬申晴開東首踰會嶺寧到甜水河行四
十里抵甜水站中火自走山因至會寧嶺數十里之間

頻渡水不盡記踰小因入山谷十餘里山漸高路益險樹木叢雜巖壁峻峭路曲折攀援而上目下群壑尖如蟻垤嶺之高峻比洞仙倍之屯嶺於巔行以峻峻稱捨車而徒或趨其上路右有三石巖立成削狀如旌石馬下嶺未至半路左有閑帝廟多白楊寄生使馬頭輦摘取投置廟左廟前石際見馬蹄脫落使之取者掛鉄面尚新分明是初中馬未至數十步三四首徒果宰殺合肉以土馬籠馬也見甚慘目甜水站有泉泥之盈科味甚甜冽殆以是名之路傍有石塔其西亭谷以序狼谷由此行亦可達狼子山迤二二十里而終頻易重車之避青石巖者皆由此云云後乃行約三十里接狼子山是日行七十里自甜水行十

五里有青石嶺之之亭亞於會寧石皆色青所以名
 之奇 孝廟過此時伴一歌唱之調曲甚慷慨與
 价作一德帶其意仍作伴徒下至五里始騎更騎
 小石嶺出河口山盡野開土又肥沃吉貝尚在田烟開烟
 根或數十或七八軌傾筐摘花男子皆公田車滿身而得其
 衣食之細一也我國山村生涯根子村之女色以治乃最補
 者曾於五十年前蒙古數千掠去其婦女相距未滿數百里云
 于里平郊十什村有古之戶 初百卷百情早若論
 麻天嶺渡三流河行軍里松王靈其墓中火即裝過高燕叢
 歷新遠東見白塔後太子河逆水寺房見遠東這四重是
 日行八十里摩于天嶺西是平夷西有唐古宗住軍中十里內五
 渡大水是為三流河。水東流入太子河去世有小店村為相里

眺

多子寺刹及開序廟自柵之區雖極家村土地廟則皆有大小
 或累石為室大小斗中供五像前置燈台焚香開市則各
 家不供或面像或面塑彩之頂禮其崇信神佛之風蓋如此
 過高唐叢野色茫，白塔屹於八觀古平里，地乃佳觀之所也
 佛數十武有石橋兩傍設石欄干乃涼橋也路由南門而入城圍
 七重粉堞尚宛然去一點醇醪行去半里許有永安寺自出有
 市井車馬車殿古史聚視去或摩肩背相摩者西是列肆
 觀懸填金富字匾典當鋪也旗榜相映百貨堆積耀金以觀
 是丸珠玩左形右斯左接不西有似乎我國神宮初古鐘街中
 自此以行滄陽通州北亦正陽門外以謂極繁華也其規模則
 不過少長特有大古，黑耳城村老地赤，以尊而楊翰其態
 建瓚擊逐之更居修補天啓登自沈序奉張各四人為忠福

皆死。仍為火穿。由西門而出。過石梁橋。石欄于西南。門外北有開
帝廟。門外有石牌樓。兩柱一棟。若為我國。迺恩白。金屋輝煌。
左右有二層。因左扁龍吟。右扁虎鳴。已鐘鼓。以是更也。過此又
有石木。其工極其侈。盡正。及前帝塑像。東廡供張。而前有
二力士。背傳一將。形甚強勇。仰面視飛。以是蜀將
嚴顏也。金字扁額。指不勝屈。自此走一里。即白
塔。凡八面。而圍可數十丈。高為十六層。長可五
丈。層皆有簷。皆有鐙。上設相輪。以銅索維之。
面。皆刻佛像。工費不可計。蓋用雜灰而成。其
之如白石。世傳唐太宗征高麗。歸命尉遲敬
德。建寺云。而未詳其真。實或補華表柱。而亦無可
稽。塔後有寺。名度。祐盡破。落有一碑。而面刻字。

沒無以見事蹟太子河一派引城底作濠頗廣乃
然廷廟之所割城外有一土城或圯或存未知何
時所築至太子河一名衍水乃燕太子丹走死處也以
糖竿重置成橋下闕小舟牧隻河北村家以迎水
寺也寺與廟社割而未得見

初三日甲戌晴而風平明若約二十八里到爛泥堡中六
二十里抵十里河堡宿是日行五十五里朔風括起塵沙
暗路若值解凍與水潦則道皆沮如沒輪難推爛泥之為
名由此向於柵門始見十許塚其間三百餘里所目見不過若
于塚亦於高麗叢有八九塚樹短碣制如我吐今日所
見殆殆百許中皆多塚者豈是大葬也路傍設戲
子之遊彈絃吹箏百端逞技如我國山棚之遊而舉措駭

妄初不足掛眼男女雲屯盡日達夜謂之壯觀不滿一呼
初四日乙亥朝霧晚晴鶉鳴雉飯而後乃二十里至
沙河橋霧收日出又行二十里挂白塔橋中大塔在村中
尊為十叔丈層為十三面為八圍可十許丈每面各有圓
門因最下門而入中空仰視之制度亦奇迥一兩亭歷渾
河堡至渾河一名耶里江以木橋跨河三十餘步小舟
十許隻泊在沙岸河水出胡地而東流會太子河入遼
河為三叉河去瀋陽為七八里世傳孝廟在瀋館
時作亭于屯云常見春坊日記胡人以野坂田授之
世子種菜似其地也行四十五里挂瀋陽是日行八十五
里入城外闕帝廟與三使皆著青袍幅巾下車跨馬
而行入土城門行一里許至內城高可四丈門樓二層

極其雄壯高入半空在千里外可以望見門外有
有甕龍城之左右各有門之外有塚石橋跨其上
度橋過西重門然後方可入城自入土城左右市
廛已柳北而內城在繁華十倍遠東路由東邊
直向太學行禮後奉雷與我國太學可以相伴
其傍有文正閣即二層而乃文正星供奉文正也
性見行宮至朱紅木柵外下馬乃柵東正門曰太清
遂進步至前殿扁曰崇政又有扁曰受光明左曰
飛龍閣右曰翔鳳閣或覆黃瓦或覆碧瓦之類
明潤若琉璃專甚非奇巧宏壯炫爛不可名言
以示牛戴牛肉而未者相續其車獨輪一人推之見
甚便易 初五日丙子瞻城門例於日出前始開

市井亦趨屯開鋪絡侍賣買者百十為群或有賣
羊的或有販貨的整立不紊自成一規轉出東門之
制一如昨日所見是日四見瀋陽城外一帶朝烟橫抹天
際瑞旭初昇祥霧始收四顧濤蕩無所罣礙此
英雄百戰之地也所謂龍行虎步身下在心天下安危
常係遼野遼野安則海內風塵不動遼野一擾則
天下金鼓互鳴何也顧以平原曠野一望千里守之則
難為力棄之則胡虜長驅雷步門庭之限屯所以中
國必爭之地而雖竭天下之力守之然後天下可安今
也天下之所以百年無事在皇女汝教遠過前代而
然哉瀋陽乃其兵龍之地則東接寧古北控熱河寧
撫朝鮮石向而天下不敢動所以壯其根本之術非歷

代耶此故也入遠心來桑麻翳苑雞犬相聞牧野
牛畜_皆蕃衍民黎之勤穡舉有粟生安業之
意非_特甚事乎百年而已也西行至五里許見
康熙願堂門前立三坐牌樓極其壯麗從東
角門而入由前寮進法堂喇嘛僧數十人誦經
皆着袈裟而色黃蓋與蒙古僧所住者為教
百云遍觀諸殿周繞金佛白玉卷石羅列金朱
額眼雖盡日於此實難盡玩退與主僧對話如
我國搃攝而稀捧其腹饑以茶果之屬答以托劑
收鍾而發行東邊有昭陵而入望相距未滿十里
行忙未得修見冒風行里五里抵大方身中大即
發行里里拉窩孤泉于是日行八十里

初六日丁丑早發行十里至周流河有船艤待津以而
以大如榻麻索繫著心岸不用櫓板十胡以引之互相
束維河之廣如臨津矣此則遼水其源出自胡地
入長城亭流會河自願臺始為尋路廣可有十
間而有懷北處至四塔里數百里尋之有沮洳地也
自瀋陽以後路中車馬絡繹向西在多載穀物自
西來者必載茶布綾緞之屬寧古塔烏喇及遼陽
相為通貨故也又行無多有一坐城門堞皆完不知
何時所築而似是如我國過北鞏所遺也在渡巨
流及五渡河歷四方臺郭家屯必新屯中火以
三十五里也東西在亘八九里屢肆及卡家今為萬
戶云即一大都會也午後行五十里挂宿白旗堡今

為八十五里柳河溝甚阻洳路多迂之相為規
望其險可知也白旗堡之人亦過千戶見甚豐衍
初七日戊寅晴開東蒼寸厯初方一坂門靠山屯行
二十里挂二道井中大後以蒼厯初店烟金等處
行五十里挂宿小黑山是日行百里過潘後水不得
清涼至一坂門二道井小黑山窠稀不佳今畫則
穎為申飭汲末遠水而水味多鹹澁又臭若佐解
凍而潦則終多泥濘雜行云而今則時值久旱
幸免泥淖民輸之患初方後現有一秦山以月峰也
自遼行四百里始得在邱陵日與三使步上全遼八
百里皆入騁曉但眼力不能及可歎自在古往遼東
則為二百里云迺回而末冷為四百里間有所阻而然也

古子并十五里始有烟臺或方或圓皆有探煤穿炮
矢穴臺外又有城兩邊各設烟臺城外亦有穿溝
之痕自安至山海關五里十里之間輒置一臺每臺
以百人守之有警則輒則放砲舉火以應之世傳
戚繼光之所設施天下財力盡入於中畢竟無益於防
胡清兵攻烟臺多致死故毀之而以其堅未能盡
毀云耳山黑山人家殆近數千夫即漢人而姓戴
者也自潘公來多見古榑臺或有塗土石灰而不覆
第昔年皆以甃累成之見其奇巧雖值雨潦且其
淪漏之患亦可異也自柵公來初在北海負之法一夫之
木兩端各懸之物也荷擔而行雖不得多負人馬必
踏之中能免制榑之患其立法有如是矣

初八巳卯朝晴晚風平以麥渡羊腸河插中安堡

三千中火過于家臺路傍見石壩甚精四圍各道數百
步重門深遠欲入去觀光問其鄰人即丁姓民家
而更赴燕系未還果不見而行三千八里插廣寧
店宿是日行五千八里北鎮廟寺距十數里蒼茫八
睡中自返回議諸皆難之行止又不能自擅心神危
動欲而歸時歷見計失其舟楓時節雪積窮山巖壁
冰滑又何可必也○

初九日庚辰晴而晚風塵沙劇

刮起歷興隆店雙河堡至也鎮堡只有敗塼石局
三處人家各近千戶屋皆土椽齊制樣俱極精巧庭
除軒敞多遇數百步至常興店值虛交易車馬男
女填咽街巷衝開道難過三三臺子行四千里抵

閩陽驛中火人戶亦過數千人村門至堂中殆過百
許步庭中列置馬槽為首餘壁而在槽過半長
非大規模冒風而蔽歷二三四五臺子等亦入行四
里括十三山然是一日行八十里亦村市過數千戶連
亘四五里今日即重陽佳節上使作一絕要知一行
皆和之十二山似閩山之餘麓麓平地行脉者也石峰屹
峙差稱門之鳳凰山蒼潤似不及峰密之安樂
非特十三而已三家即姓里者而乃蒲人也家置五機
方織白采而其織法甚易要時立見所織為數
尺盡日而織間為三年餘人其彈花也祛核也皆男
相之所為而百所祛彈花各為二千五六斤事半切大
欲為甚去非拙工可能且數百年之間必當有目巧

者未往而何在一箇學得也可訝。初十日辛巳晴
開夥而起促餅而致行十里止又凌河初日方
昇河之廣一如渾河而能度關在山崖上又各橋梁
知委近村居民使之驅車出來四十餘胡持車
七輛而來一行及封物一齊載渡河源出長城外穿
九官臺邊門懸廣寧城入錦州衛界至出由漢
東入于海歷四同碑印舊曆遊擊將軍王盛宗上
平父子之碑而以二碑則折為兩段只存龜頭世傳王
氏四世墓碑云有白鳥一羣效牧漫山問其居
民兩官馬二千匹自蒙古每年貢納而如是者牧
行五千里控獲陽谷年歟後即致歷小凌河松山堡
斷官馬山行五千里控杏山秣馬蒙古地方未通

百里侵掠之變非一坐一拜松杏之間民無樂業
之意史方戰場也崇禎庚辰年也之際可想當將
龍爭席闔之跡矣明提兵洪承疇吳三桂以
三萬之衆共誘兵我于松杏之間六日虜我明
兵死者為二萬餘赴海死者為四五萬清兵不
散而如摧枯拉朽吳洪而於智勇無敵於天下
而一朝芟夷如草木焉不得不歸之於高祖也
即後吳軍又行千里投宿高橋堡是日行百十里
在村傍為千戶而主人而即海人姓周者也其庭除
極濶越又投宿者如輻湊車可乘餘驢馬牛
為數百餘然而寂然無喧語之聲可異也招主人
問其家樣所持者不過銀子二千兩云猶有

少可之意。○十日壬午晴而晚風為觀。日出欲
啟早發而一行勞頓於昨日之行促之不得開車而
發。歷來原序紅旗營塔山兩峰。臺日移海已
一竿。亭鬪羽。旛幕維早行。立可見。意但悔老
天商船。頁船。如魚鱗。嗚呼。島柳城。只在
莽蒼。君。過。八百里。連野。又見。生。氣。濕。不。覺。神
收。爽。筋。骨。水。路。朝。天。必。後。牛。而。到。泊。於。柳。城。不
由。滿。遠。直。挂。山。海。關。故。也。歷。畢。羅。雅。等。度。挂。連
山。驛。雖。是。日。三。午。里。其。實。支。離。千。炊。後。過。然
其。皇。河。長。春。橋。其。樹。堡。石。城。東。八。邑。堡。
車。家。其。皇。未。寧。寸。木。亦。不。能。守。衛。此。三
里。而。是。日。之。行。世。以。為。十。里。恰。滿。五。里。生。死。之。

遠即遊行中最高者。東山。雞鳴山。有元古祖
走死。象。永寧寺。後。峰。又。老。兒。未。嘔。血。甚。曾
與。者。提。兵。崇。煖。我。子。永。遠。十。多。金。師。盡。沒。於
紅。羅。袍。只。以。十。餘。騎。突。高。於。烟。焰。之。中。素。搖。立
乃。以。牛。酒。送。慰。心。之。至。也。痛。飲。嘔。血。甚。數。斗。有。月
而。死。於。此。城。開。滿。五。里。後。人。名。之。嘔。血。臺。寧。遠
城。之。堞。完。其。四。門。各。有。甕。城。重。門。亦。一。閑。沉。入。其。城。見
祖。大。壽。四。世。碑。樓。高。八。九。丈。攻。不。殘。刻。似。若。九。人。力。可
能。初。不。用。片。木。外。刻。勅。浩。爵。師。欲。後。其。功。伐。不。念
其。累。草。之。甚。阿。孫。之。墜。諸。家。移。身。固。其。宜。歟。而。解
棲。歸。必。對。峙。路。出。其。下。其。其。地。一。相。倚。其。第。宅。之
壯。麗。令。唐。公。亦。徇。崇。云。市。塵。間。闕。之。繁。衍。亦。一。都。會。也。

十日癸未晴而晚風味爽蒼過青墩金例於屯觀
日出而非但時已晚矣雲翳海瘴濛濛天亦無
入觸可恨歷書庄肆七里梭五里橋行三十里拉中
右區一名沙河區乃明時鎮壑而埠而教里有沙河故
名金襴齋而嘗驗以輪奐自渡江始行西李行過
九連埠或向西或向西北自遼東至瀋陽向日者行
自瀋至孤家子約戌方自孤家子以後至山海關皆
行未行云中火而首至丰拉店始有賣鹽而揭如
小輓謂之藍輓稱其行而賣之馬以糞買二斤而
餘小錢十文迨望海店自屯海色漸暮島也嶼出
沒於波濤中向于土人指掌過一島乃費華島也
大明失遼陽後我國中路朝天時為船濤也去虛

遠為三十里云寧遠原為徒河隋為柳城唐為營州及瑞州遠為集寧皇朝二年置寧遠衛康熙二年改寧遠州城築於宣德二年天啓中兵軍素崇燹增築之歷東關驛以有城而多毀獨右門踴然地脊民負做活甚艱過六渡河行四十八里抵中後所是日行七十里城池頗完四門皆設二層城外路傍有一廟入而重門有兩殿前供關帝廟後殿傍曰文昌宮所謂文昌直君細眼美髯丹風神秀即內外屋宇全碧炫爛而徑千餘里之間寺廟不知為幾百而舉皆侈麗指不勝屈對門路左設戲子玉丹碧照人制如丁家自寧遠為始凡市廛概闌

去處多有牛屋必在於寺觀門前路傍雕
甍函棟照耀塗目中園後廊之心於此可見
吳三桂之家曾在城中其祖先墳墓亦在於城
外而盡掘去云人家殆過萬餘人達夜擊
鐙有時放砲其兩戒嚴沿路焚閉之地果
皆如此其翌日即場市云而曉反時見外處
者車上滿載諸穀與雜物不知為幾百乘填
街塞巷走亘六七里以因了點燈明燭殆若我國鍾
漏八日樣子可想其雜物之盛也必閱內外物種
到午而轉相賣買故也。十三日甲申晴盡日大風
人皆自家塵掩目而行過一二三坊子等處行四
十五里挂流水河中火水凡三出而出自蒙古至

此入于海詩注河北方流水通石自三义河至北系毋
論巨流細流皆以河石川冒風山以笈歷之亦始太
小松嶺至中前兩味甚完門皆二層而亦有甕塔
市肆不過數十坊出西門外店幕止宿為四十五里是
日行八十七里路夾巒巫山數百里而來自此望見西北
山勢如萬馬奔騰峻長轉折乍現乍隱令人神動
十四日乙酉晴溫手明笈登店後小坡山海因藹在數
十里而已為入曠矣促鞭前進到西水湖至八里堡直往美
女廟野中小隴陟起山石盤紆廟在其上刻石構屋
見碑文貞女姓許氏名孟姜其夫范郎以秦時築
長城久不敝貞女以至此聞其夫死遂哭而死後人即
其地立廟塑一婦人而童子侍其傍左右持傘左右

持帶以貞女之子也宋文丞相天祥書廟扁曰存之
貞三子左右柱刻奏皇安在哉虛勞萬里等怨
姜女未亡也尚留片石流芳自宋明始有廟而廢之
康熙乾隆又崇獎之傍構行宮甚侈其上又刻望夫
石三字峯以見長峰核張西北而東則大野莽蒼亭則
蒼海接天柱八里堡中火又行數里至石室與因爲倚
角而設也萬曆徑路態延西楊應昌所築而費財巨矣
數年而成內有地連以通城內峯其上舉火號令則千里
烟臺一呼相應吳三桂請兵時軟血于屯今則地連烟
臺不可通亭邊只有危峰白三重由此而入則有甃階
級百餘層因以拾級而上因內外遠近無不入焉但有垂
堂之戒下味時若失一足更無餘地到山海關守城之將

出此門內無驗一行入馬始許入城外漲甚深度有
欄干石榜由甕城而入門上大刻山海關三字又入三重
門城之去為六七丈內扁揭天下第一関世稱李斯筆
或稱朱之畫筆未詳孰是行數百步為觀望海亭
折而南出兩重門行六七里山見望海亭出半空又行
里許入一城門穿過小巷登石榜數十級亭在其上長
城盡頭處也樓下洪濤春撞亭面而縱目水天相接無
一點島嶼但夕陽中碣石屹立如人此乃渤海也北則群
峯重疊直矗之外蓋大漠也縹渺其壯不可名狀嘗
見我國嶺東眼界非不濶遠而猶無如屯氣儼樓凡二
層皆有扁亭前有三碑一刻海天一碧乃萬曆監祭
吳達春所書一刻一勾之多一刻大同海岳筆法皆不俗

自此壘成作臺，穿二穴下通于海，以爲用兵運糧
之道。俯視城根，頗有巖石錯峙。城底都是山
脉。世傳徐魏公鎔鐵灌海中，築守城其上，似未
必然也。關門共海亭之間，有數十步壞斷處。世
吳三柱引清兵入關時，清兵疑其詐，令毀爲
路。因爲不第前後潘行時，輒由此而行，不由門路。
至乃不忘本之意歟。是日無風，如陽春海面如
鏡，欲留見日出而遠，未人馬亦不可不念。遂送
舊路到深河行，十里傳暮，拉宿紅花店。是
日行六十里，中路望見山勢自關山中腰遠，落
脉蹲之西馳，如筆挿架，取其奇，必將作幾百年
帝王之居，亦可占其地利也。本村似不過數十戶，自牛

閣落老樞精侈雖尋常村家亦施丹碧粉牆
門欄甚却徇耀○十五日丙辰晴而風平明發
歷於范家庄去路里許村有范文正公後裔之扁其
門曰范家義倉云而忙未及彼歷諸店行三十七
里抵鳳凰店打火冒風而發自七印陵連巨影
多升降野中村落相望榆柳成行間有蒼松白楊
峻宇雕牆隔水隱映使人便覺眼開心會自鳳城
以來堆糞如阜一堆多至近于車並不齊正如
中繩尺中間則多似土和草草叢積之近閑以後檢
糞者皆撲兩筐或挈一畚競隨馬後過糞輒
以五索鉶拾之甚多務農長推可知也歷望海店
渡石子河行五里至拒宿榆關是日行七十里人

家頗稠密適值交市人畜填咽觀光者擁路簇
 立榆閱世傳蒙恬樹榆為塞交也且日之風雖
 不甚大以路沙土其細如灰車馬連絡為輪
 蹄所碾亦觸輒揚塵以漲矐眼不可開自山關海
 至北京皆向申而行○十六日丁亥晴晚月如畫
 以為開車或裝而裝帶月而行而過上下白石堡
 踰吳淞嶺然多崎嶇天明始得平地按車行
 已蒼茫入曉自此山勢復開豁為野西有支音
 峰蓋文筆峯後脈而易黎縣只在一層之間環
 息黎諸山也其邦文筆峰未至城里有山海河上
 有東岳廟頗雄麗從東門而入城頗寬有二層樓
 四門各有羅尾城門過徐進士家禁已過不得入城

中街坊牌樓極多而夏麗乃皇明公卿古蹟亦
多當今仕宦而文人亦倍出云路北有街門一題
曰德智六鎮一曰鎮鑰西京城中有韓湘廟出西
門外未至里許有羊河頗闊有舟有橋其
又有一水即羊河別流也水自熱河傳車環顧
寧即關內第一風水城池在平野中亦有邱陵
復西南則秀峰羅列羊河自北而東繞城而
環教十里清淑之氣發于山川且乎鍾毓人文之
盛蓋如此也城東山麓高處累石為塔蓋亦像
文筆而然也又過蒼蘆峰以茶棚庵等處有嘉
慶潘幸時新構行宮由小夾門入自復道闕至正
殿繡戶紋牕離錢巧飾皆用金玉而木是降

真樺櫛沉香白檀之屬凡五殿別各差等
千門萬戶不知向方又有二層閣而俯視諸屋
有瓊蕊唐詩中瓊閣在蕊今始覺得閣
牧則為三三八十而庭中有怪石牧丁其奇
馬河行四七皇至背陰堡打火村落可立
臨山後前後高自十領有松林蒼蒼翠便
山谷竟即農及過瓊復初至堡論部為嶺空
堡即古盧龍堡者昔曹操之伐烏桓也次
於今玉田也海濱汚下且為淺滯不通閑
土人田疇為鄉道可用其謀上徐安山出
瓊白龍堆達於柳掖庸乃驚焉遁矣庸塞
無終柳掖雖是過洛而白龍堆不知在何處

復自以何行四十二里按永平府即古之右北平也
是日行九重路有東門外拖城五里行至東門
外唐舍城深濶樓觀繚繞固如西中景沿路
取見城堞亦不多矣登城處輒有門繫鎖不
上深以為恨必欲一覽遂福老于衙門福老即
上判事馬頭也清開女城門旋即進去濼池其間
有石橋之遺有門又有壘危城過三重門始由女牆
而登甍級其峻壁間樓上城廣可三四丈危城之廣
可坐千人布之甍亦火之鏃隙間百步輒置一
危城有危之城攻之甚難一依兵制而守也四門之
間各為五里間有二層閣廂其文昌閣迄今
流丹必得瞻焉俯視城中四鎮雄樓寺觀之

門隍牌樓錯落相望多二千戶都比如吳鱗
 回顧城外青龍何自業采後城西流野廣如砥
 可以牧民而守性而已久烟籠翠嶺東嶺日勢
 難久留來及東門還○十七日戊子晴平以裝後
 青龍河樓觀倒影波心望之如我國百祥樓風景
 二十里到灤河上水自蒙古熱河流出而水大如我國錦
 江水益深而清駛有船一隻人馬則使之先渡岸北石
 磴上有孤竹君廟其夷齊廟隔水對峙徒上入門內
 庭中有古松扶疎廟宇三間頗剝落有樂像而主屋
 儼坐帶得和吉之志仍乃下崖登舟入孤竹城石甃出
 城制甚古門上刻賢人曰里四字前走未百武廟左馬
 前有牌樓扁曰勅賜清節祠萬曆甲子李願書南端

大刻清風百代四字崇禎陳養來書門左右各
有碑東刻忠臣孝子西刻到今稱聖即崇禎
萬曆所立門內庭中有三碑中碑刻孔子曰白
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孔仁得仁又何怨
于首陽山民到于今稱之云云東碑刻伯夷叔齊
于淇澗之門云云西碑刻孟子曰伯夷叔齊聖之
清者也云云即嘉靖十八年張璠書左右拱門各揭
廉頑之懦二字其他甚多與碑所刻山高水長心
曠神怡高瞻風塵天觀寰宇不代山斗萬古
雲霄未文字指不勝屈頌難盡記廟額清
曠規模整肅非許多淫祠可比也三使但以青
袍幅巾執樞內行再拜禮伯夷叔齊冕服並

坐頗有端雅意殿四壁有乾隆四律三首又有
嘉慶四律一首文筆俱非宋間可比孤竹君即
禹浚而姓墨朕一云姓墨名朕初孔最子往唐
玄宗祀義士八人東宮與區春秋祀區宋真宗祀洽陰
駐蹕河東訪夷言廟祭之微宗政和三年封伯夷為清
惠侯叔齊為仁惠侯元世祖至十八年又加封而致祭皇
明成化九年命永平知府奉重致祭大清順治己未宗
奉祀典益勤廟在寧阜巖石上四面通盤潭水繞其東
北而面首陽山在其南里許如我陞之魯城山景巖之絕勝
可其平壤為伯仲而作局差十河洞之法一如我陞白馬江祖
洞之類廟傍有乾隆行宮而洞較始過四五百間層閣共
複道正殿置屏雕刻施考又勝於按寧川宮最高處有

竹高亭三間而業共節果如生竹一般俯瞰隆波利園
影印水面如展活西社屏廂傍有寺教僧居焉墜梵窟
打火厨房倒於屯以亂蔽作區亦為之一笑餘後出城門路有
首陽山左而行自屯東栗梨樹極多村所植各過萬株種皆
成行不亂田畔則如種地桑細条成叢或有已刈去或有未
刈者一叢各為四五十條向之土人逐年刈取葉以飼蚕皮以
為紙骨甚柔可以作筐籠之屬云曾聞北京有地桑云而
未之信矣廣野秀之規之今果如此矣業政甚艱路傍見村童
取薪者所持笊如我山之物以春仰擊笊枝之梢以笊柄繫
腰遍行田間耘耒被括自盈于畚夫行過野雞店店人多
懸桑枝筐或大或小或方圓而皆有蓋一如我園之德坪所
懸柳笊也糾沙河小水而淺沙岸殆過百餘步若值夏秋

汎濫之時則廣可推知西岸即汝河驛從東門
而入出西門外止宿是日行六十里村戶縷過百餘
十八日己丑晴昧爽於教過紅廟有三白王廟中安伏
義神農皇塑像過馬鋪營有行宮忙未入
見過乾河草口有荊門烟樹云亦無入矚歷
諸店行五十里抵榛子店中火昔榛子店多有
美色江右女子季文蘭為胡人所掠賣往瀋陽
店壁上書一絕曰堆髻空憐昔粧征裙揆着越
羅裳爺孃生死知何處痛殺春風上瀋陽
詩下又書惟望天下有心人見此憐而見極曾聞
此詩甚悲之世無曹孟德豈而千人金贖還蔡
蔡文姬也促行發歷鐵城坎路多陵谷坎以是為

名又歷銀城堡寺廣行五十里抵宿豐潤城外是日行百
里未路由東門而入歷見四五碑樓皆自皇明回臣奎用帝
廟二層閣有四層碑文刻甚多且多佛語未可讀於此待
一行偕往太序有校官劉英華在官是七品職為人頗純
慤其之筆談二子而孫俱俊邁可愛見古澗雕刻甚巧
有三足象犀首乃宋制重為六十斤又有象樽色如青
劉石制亦古制朴有菊盈十五而品皆稀種乃我國之所未
見案上有書帙過數千卷仍請太學祇揮而出奎文昌閣
乃二層轉向城上城多壞缺戶數不盈千云此永平凡
後為三之一城上俯瞰諸州之會射之的於三十之步地以大
弓重矢輪射中之在少比之攏網則可謂廣懷由幸門而下
十九日庚庚晴晚風平明蒼多見石灰白導如棺樣在人家

門外牆壁之有又有通穴向于驛卒果是棺也自漢陽以
來墳形皆取土上不用莎直一土阜而多土人家近墳及寺觀
田疇之間人神雜糅見甚可該其棺制一如彩艇天地板皆
有剝四五寸之舉頭雕刻施彩初見不以棺知之屢見覺得
行十餘里到遠鄉河傍有惠鄉橋昔宋徽宗北轅時立馬
河上曰吾安得以此水遠鄉耶河以名焉又行十里至高麗
村有水田數三十頃有小米糕雜以棗肉亦如我吐燕餽世
傳昔者我國被虜人自作一村而居焉見我國使極其歡
近享以酒食自稱高麗子孫近曰驛卒輩強討酒食奸
騙老物不堪其苦閉戶隱避反不如他人云斗少子河歷村
坊等處行四十里又渡沙流河打大過西水橋西為店市處
到龍池庵有行店甚修安園金不得見行四十里桂玉田

留宿是日行八十里。藍田王振生。安終山相。南為叔。才直不得見。夜聽胡兒之琵琶。聲後。徒琴自唱。自和歌曲。初不知何種。而絃聲頗悅。音古為業。絃聲以此糊口。初不蓋占云。

下日辛日晴暖如陽。去曉月白。晝夜以繞城行。里許過西門人家。頗熱鬧。城內外殆過。於千云。天以斜。新亭橋。是三虹。而對石欄干。有雕刻像物。為橋盡。於有材百餘。辰村盡頭。又有橋。盡頭有村。近有百過。枯樹村。自北山下。至枯樹村。廣可五里。而密植。樹如織。如麻。連亘六七里。雖於我。陞之。青。報。見亦未見。如女之茂。密行五十里。挂。驚山。站打大。而過。峰山。螺山。地多石。堆其如蜂。螺之狀。改名。椰子山。亦以山形之層。積累自成。階級之狀也。驚山亦如。盤形。想以為名。矣。螺山。站一里許。有宋哥城。世傳此家。富以累。筆。萬明。未。松。尊。生。康。城。以。自。保。明。亡。亦。不。即。降。以。罰。銀。今。

世貢萬兩曰屯家業遂衰云以城西五里許又有朱家城與
此相望而城中有兩敵樓直入雲霄路上望見使行時多有入見
云行忙未過二里店自屯路由翠屏山厯漁陽薊門而欲於敵
時作路直向張家店敵多亦處行五十里挂宿邦均是日行百
里路傍見有輓害土坑秦棘堆積如阜問于土人為修邦均
堡自官燒造云其害制上下皆若一面可收丈而高如如也
前面開火門人皆立而入空野所積計不下數萬非
矣自極寧以後更作平野至世系三百餘里火
無遮隔土極膏沃盡一丘陳荒廢人烟相續
阡陌相連路傍與雜落白楊柳樹成林
遠望者本都曼銀海雲非雨霧中無收靛橋島
此恍惚高深生所謂薊門○二土壬辰晴時爽

發至白澗店路右有祠曰香花庵有萬曆年
間重修碑過三重門而入殿中重了金碧照耀
庭中植白榦松大過盈抱枝幹竦直皮若塗粉
葉如海松自是嘉木東西寮各為十餘間而女
僧居之衣制共胡女無甚異同但剃頭而戴
僧帽庵西牆外有行客而其侈不得入至溝浚
河即先武無王即錢以冰渡薊州自不亡曠世之
感過三河即古之臨駒縣城池亦完人之頌殿
路上逢着一大車乃蒲林車之類而長過十丈惟慢
雕飾已極侈麗較尺許于尺琉璃附之四面中坐
的一箇好身于後者十餘皆佩劍騎馬臂自鷹
者又隨之聞是皇親方性易州嘉慶慶陵所云

又見一車捲帷而一婦女露面而坐首飾粉黛浪藉
二十內外少年兩火樓坐前衛之家丁四騎並馬導
之後有一官人隨之間是知孫通歸者行四十五里抵
東林庄打火過白鷄屠新店等處路多狹有
矢荷砲步行者取見其制砲樣因問其價則方
尚皇城立番准一朔而歸云如我國之上番軍也
方制大小如我國步射方長而無力矢則非竹幹為
楊枝也附以廣羽簇大如鎗使集致矢方開半月流
星散落地無過數十步立異見蓬萊之戲馬頭天
偉者借方一射盡力寧後斷角折群胡錫集
將欲勒徵十倍之餽呼之以廿五兩錢人心之無良推
可知也然而少不持慮言一笑自羞故為落後難逐

遠前建頻顧後終不能釋念抵滬後將言及護送官
 使甲軍寧來之際天偉隻身大笑而八且奇且喜問其
 集身之由無報事語乃以八十文彌縫此我錢不過報法
 零此漢屢次遊行善漢語又多滴故耳厝柳河屯馬
 起舖茅廬約五千里桂燕郊堡是日九十里燕郊堡
 有城門扁之曰燕市人而之殷富市肆之蕃衍凡他
 屯堡可比喧聒之聲如聞漸氣荆歎明日以入城之日
 也自前例在夜半而亥午時荷桂稅蓋多有舉以
 節次故也東嶺吐月雜尚不明
 二十有餘已晴促一行而亥午十五里至白河以通平上流
 也屯距通州為五里而素祚大都會月下云所入睡可恨
 歸時例當宿廟在屯云白河源出塞外徑密雲亭至

牛欄山與潮河合流而深且廣有津船三隻一行果免
遲滯自通至皇城四千里皆鋪磚石車輪撞擊聲
如地雷頗覺不平行三十里柱大王店中火自北距皇城
不過二里一路羣車填塞驢騾駝之屬迭相來往指不
勝屈蓋漸近京城故也分路左右皆貴家墳
園朱門雕牆金碧牌樓錯落相對門外
穿溝跨以紅橋而甃等之制甚巧連亘二
里略無間斷而其制如一牆內皆種側柏白楊其
密如織墳皆向南累土城墳前立碑以有面牆
及箭門但無石人使有佛宇雜其間丹雘輝映
問是齋宮也行到東嶽廟通官輩已齋食
求候廟在路上一以網東西跨大街有兩陔牌樓

極其壯麗而樓內外俱有扁曰太虛洞天曰
三清上界曰永鎮國祚其一不記亦未過又有碑
其門對峙用白石構成加以金碧石柱瑰奇
門內左右有二層鍾鼓樓過此有三間大門左右
有夾門入此有大殿其簷兩重皆覆以青瓦
曰岱嶽之神殿中塑佛像具袞冕即泰山之神也
左右侍衛仙官共有十餘人殿內塵帷掩映
供器既多非珍奇中央懸一琉璃燈卓前有鐵釜
可受數十斗漆滿其中以炷燈晝夜不滅云
殿附以翼廊象如鳥之垂翼而各六七十間
廊石砌高其肩齊庭中碑碣簇立峰巒
不勝數皇帝所書碑在左右皆覆以黃瓦

為屋東庭有趙孟頫所書碑其文最後面起一帶高樓
 其上似玉皇上帝被者垂冕手執玉圭自外門至玉皇樓
 可二三五方步殿宇廊廡可三百餘間東西廊每間
 皆有塑像也可以千教泰山所屬地方皆神或具冕服者
 有神如鬼卒幸跪或立亦有鳥獸化生有形之色不可
 殫記以松牌貼楹間識其所掌凡世間一切人物死生善惡
 報應之事皆在其中於是三使臣俱以道袍捨車而鞍
 以行里許入朝陽門即此多儀車門也樓凡三層
 覆以青瓦屋瓦城上亦有樓二層覆以青瓦屋瓦四圍不
 作欄檻等而中開炮眼此所以蔽內樓者所謂
 敵樓也城內大砂廡可以十餘丈左右市肆不甚
 華麗而無斷續之象行在里許有漢子街第一也

亭北出皆有牌樓且為牌樓入東牌樓由有牌樓
行無多有城門是為崇文門西都城東門也末玉門教
百步抵西行二里有石橋以玉河橋也夏過橋教十步
至館所一各玉河館一各會同館中聞館舍類敗頽覺
慈龍玉其門館舍一新庭除精潔聞於夏間有皇上下
教入銀子四千兩重修甚新云以馬官服荷禮部呈咨
文行三擗九叩禮滿侍印博啓各七本祇委舉拳手作
相揖揉而歸慎治初設朝拜使邸于玉河西畔稱玉河館
後為鄂羅斯所據鄂羅斯所謂大曼提子最凶悍在
清人不能制遂設會同館于札多姆街都統滿玉之宅也
玉之役甚也家人多自裁以館多鬼魅或我吐別使各行
相值則舍寓西館中年會同館失火以又改建不數十年

垣墻壞缺家又頽落今年果修葺一新書契以前年代
 國都不可攷然自有書契以前二千餘年之間成法
 遺制可得考焉建國之始曰清其後都名曰順天在天之
 文曰其尾之合在地之誌曰禹貢冀州之域其陽氏謂之幽陵
 陶唐曰幽都虞曰幽州夏殷曰冀州秦石上谷德陽澤楚公
 為燕以後今為涿郡又改為廣陽秦唐曰范陽遼為有車馬
 改為折津後之宋改名燕山至今稱燕京尋改燕中都元五
 大都以初為北平之太宗皇帝徙都焉改稱順天至今法
 因而都之律之傍左四千里在擁太平北枕居庸南襟少濟城
 門之正南曰正陽右曰崇文左曰宣武東南曰高化東北曰
 朝陽西有曰平澤西北曰西直正北曰德勝北西曰安遠外
 城之門有七紫禁城之門有三宮城十七里其門有四前殿曰

太和入俗焉其姓曰爰斯覺羅其種女也滿州部其位則

天子也其號皇帝也其職射代天理物也自稱曰朕屬以尊

曰階下出言曰詔者辨曰執其冠曰紅兒其朕曰馬蹄袖其

傳世維大建元曰道光 二十三年甲午晴雜曰該處

負其禪心下屬所任處一時障遮見甚愁亂

二十四日乙未晴而風提督查昌未領食物鴉十五鴉一百四

十鴉猪肉四百十斤羊肉四百十斤魚十五尾淨羊七隻牛乳七

鐵半白麵二百二十五斤鹽菜四斤零八斤十二斤豆腐一百二十五

斤清漿二十斤四斤醬瓜三斤十二斤醬一百二十斤四斤醋九斤

六斤黃酒二百四十五壘香油四斤一斤茶葉四斤十三斤五斤紅

油十八斤四斤花椒七斤五斤五斤全世四斤五斤九斤十斤西藥果七斤

五枚梨七斤五枚葡萄七斤半山果一百十二枚每五枚依例

來後而果品外諸種並上下於而軍中已成前例
古耳 予五月丙申晴食後為觀金魚池其
權上舍早東曾道康行出正陽門又折而西出雍
城門正陽外正門常鎖不通即天子動駕時始開
云由正陽橋夾路市廛牌樓上垂非金碧向東行
五里有岳王廟正門內茶檯夫妻鏤鐵為像縛跪
之巨殿安武穆王塑像面平若如生而邊侍衛偏
裨十許人右有鉄鎗重一百二十斤左神犬弓長
過丈餘自皇帝以下祿以清人不得入門若強入
之必有風雷傾刻昏倒修葺供祀之節僕人鳩
合為之雖不得侈處其他淫祠豈可用日而誦
哉門左有戲臺廣可數十餘間環三面設層欄

因胡梯而上俯視戲狀似五素雜之奕向東行里許即金魚池也各有區別堤堰閑是官家養魚而傍有賣餅者以白麵中空作之投諸水中則赤色鯉魚一時傾巢或山或夫身先吞之六一奇觀而宴時之項費盡小錢四十而歸南邊有天壇即南郊也垣牆其方四而一面各為五里許禁不得入路由琉璃廠出陽門外西南五里許夾道為市鋪東西設閣扁曰琉璃廠一市之長殆過五里樓欄豪侈或有純金的或有金碧丹牘的碧瓦玲瓏若琉璃掛肆帳之閣架一房之積非特五車百物玩好書畫等虜堆之如阜滿肆茶坊俱極熱鬧使眩轉迷不知東西少坐毋肆啜茶而歸 二十六日丁酉晴因禮

部知委于初生鳩臚寺演禮歸路歷花草鋪
一字行闔皆向陽間散為數十間上通明牕下為溫
炕中藏各種花盃可容千散入其中則央然有春
意城內花鋪凡三處而隆福寺東里鋪為最云未
及姓見 二十七日戊戌温地陽春又進上副使聯鑣
往岳廟觀魚池路從琉璃廠由宣武門而入後城
底行轉性象房只有九象而或大或小一象即康
熙時舊物善解人語所謂象奴前日吹角擊鼓
云則以鼻作聲耳又使之角聲即應之欲騎坐則即
舉前足之象奴因緣而上其下也跪後脚其飼也
一塊葉草下果不以籃飯投之前捲鼻知諸口之在
鼻後唇尖不見啣尚飲水霎時吸盡十桶水

牙長過收人立帶用尾短如猪體犬如小屋目小
如牛目耳大如箕若生而人近之揮曼擊殺之
隔板同觀之 二子自己亥晴提督使大吏送
食物如例果品代以片糖之屬上判馬頭雲
招致換術者凡三度各呈其技如我國倡優之
類專以笑人為主蓋以六回中而以五鉄環或金或連
己是裡外又以教把綿繩使我人鈎斷之合為四端盡
在手裡更伸之無所斷後依旧先繩低頭教拘使人
亂把諸口細嚼良久又使人執其端抽之低盡連出長
可教百人不知口中吐出物雖謂之滿腹并非過矣更
磨之燃火他口吐出烟焰焚盡燒着一隻黃雀出自火
中若鳴一遭坐杖以有人許長鈎抽刃細口兩刺

縵收寸末乃徐，拔之鋤頭略有血痕疾涎淋漓一糸
繩自懷裏投之爰成生龍舉段燒，至九眩人之衍
詭誕莫狀。

于九日庚子晴而晚風為規玉鍊

橋行五里乃東安門乃中城門也望見東華門而過則
宮城外門自公廨舍者皆由此門或乘翰林車或乘
四人轎太平車在店多或有從人五六多至數十以
是位尊去慎咽門巷駐馬久之入地安門乃宮牆外門
也過神武門北上门今路左右其之對峙神武門之內
乃宮內也嚴禁而北上门乃景山也宮牆外繞以行園
無一步皆斷都是倉粟屯兵之所行園之外穿溝，
濶為尋餘步步水深延一丈敗藕殘莖系水面長漲
十里盛開之時亦一壯觀景山萬壽山都是造成而居

閣齋出度播多起十字層閣其下引之曰通州白河深
可相丈廣少百餘步西過各起牌樓三坐一曰玉鍊一曰
金鑿跨以兩樁若長虹之飲水之東曰景山水之北曰五
龍亭水之西曰仁壽弘仁寺水之南曰清涼宮紫光閣圍
殿新度其他白塔共素雲未闕指不勝屈在之影倒流
丹玉鍊之景為一塔之最少以管領其大略晚風愈大塵
沙捲起不得伺睫

丙辰正月二十四日上諭貴州等處有青蓮教王劉
珏得等糾眾滋事抗官拒捕地方官督帶兵練
丁接仗獲勝殲斃多名就地正法東河上游所防緊
要備防率完備辦糧石共銀三萬五千兩北岸糧料磚
石共銀四萬六千兩添辦以資修補

二十五日胡林翼等奏水陸攻剿逆獲勝仗督率陸兵
步衝賊壘截殺悍賊數百又將漢陽門外之壘蹋破
焚賊斃及投江死者數以千計李續賓亦分西路斃
賊千餘又伏兵數七八百人城東北各路賊壘均已蕩平
二十方日和春福濟奏官兵圍攻舒城斬殺逆匪古獲
縣城容縣奏擊賊大勝宿州解圍斃賊二千餘各生
擒二千名首級二百八十顆集獲器械云等

二十九日駱秉章奏賊拒郴州官軍會勦收復州城殺賊三千餘人羊山擒殺一千餘名搜戮殆盡

二月初三日上諭容照鄭魁士奏擒匪屯聚南屏等立砲臺鄭魁士帶兵往勦該匪三路迎拒官兵順炮擲火礮斃六七百該匪自相踐踏屍骸枕藉斃賊約三千餘人

初四日戶部奏籌西陵兵餉 托明阿等奏瓜洲賊匪官軍奮勇擊倒斃賊百數十名次日夾擊大挫潰逃共計斃三百餘名兇械不計其數 上諭福建閩稅撥銀二十萬

兩解赴廣東

初八日金陵近總匪兵席蒿林等俘斬無算

初十日貴州銅仁匪徒竄入思州防範不嚴寔難辭咎思州知府張翰草職留任帶罪自效

十五日英桂奏勦匪獲勝一千餘人擒三千餘人

十五日戶部奏撥貴州兵餉

十五日英桂奏官兵失利歸德府夏邑知縣郭鳳恩
蔣霽遠等奏番州匪徒斃殺數百名生禽百餘
偽元師先鋒並賊顆六百城池克復餘賊遁逃
明阿奏瓜州捷

十九日上諭前年逆匪渡河竄特命奉命大將軍
惠親王參贊大臣僧格林沁統帶京營勁旅滿
漢官兵及三盟蒙古官兵尅期進勦金陵首逆日
久稽誅鎮江瓜州尚未克復安徽江西湖北賊跡肆
擾雖捷奏頻聞而兵力漸疲亟應身集精兵
以期大舉速圖克復

二十日英桂奏總兵邱恩被賊抄襲革職擄去劍頂
李鈞奏苗太涼擒匪不敵與其弟苗太恒捐軀被害
分別議恤 蔣霽遠奏叅將申有謀督兵進勦焚
燒賊寨滾崖墜澗斃匪數百首級一百五十餘顆獲偽
軍師臬示

二十五日向榮告甬杭阿奏鎮江逆匪全行燒斃追殺
數十名斬首十餘

三月初一日和春野奏擒匪耿小金等意圖懷遠鄭
魁士追殺千里屍骸枕藉不下三千餘人

初二日向榮奏截剿沿江竄賊迭獲勝仗

初三日和春福濟三河勦匪大獲勝仗斃一千數百餘
二百餘級生禽十三名又浦萬春等斃五六百斬三百

擒一百三十焚斃及八水死者無數擒偽將軍餘名

初八日托明河奏逆匪由西莊路竄官軍截勦先後斃一千數百名擒偽尚書曾永發等五名長髮賊六十七名

十三日托明河斃三百餘名黃巾紅衣賊長髮一百餘名獲興阿袋豹斃擊斃三百餘名燒斃百數十和奏春懷遠宿州擒匪獲勝落水死者不計其數首級五百餘顆是擒四十餘名又斃七八百名

十五日都察院奏河南紳士賈世銓等呈訴擒匪焚掠茶等情命英桂督率江皖豫三省兵勇并調撥直隸山陝各省赴豫

十七日向榮奏金陵逆匪五處焚破殺賊一千五六百名連日焚斬共四千餘名首級耳辨一千八百生禽二百疋十餘隻

二十日勞崇光奏潯州艇匪分竄平南並窺河北兵勇擊退迭勦

獲勝 德興阿葵復揚城

二十二日德興阿葵浦口失事

二十三日向榮奏官軍攻燬賊壘副獲八百餘件生擒二百餘名南岸甯清

二十七日德興阿葵官軍協攻浦口張國樑冲擊共斃千餘名追殺四十餘里

和春等奏擒首夏百任乾等因結雉河賊黨伊興額等冲突斃匪千

餘名又斃五六百殲殺二千餘名生擒一百三十名

二十九日德興阿翁同書奏官軍踏平六合克復浦口合力肅洗計殺千

餘名次日官軍全抵城下奪門截勦八九百克復浦口葉常春艇師搜擒

殆盡賊尚書雷天佑等二十餘名均破殺死張國樑渡江協勦迭獲大勝

四月初一日德興阿翁同書奏連日攻破迭獲勝仗殺五百名

初三日又奏克伏江浦縣城

初四日葉名琛奏廣東省業已肅清文武鄉試循例補行

初八日德興何奏改勦三义河賊匪獲勝斃二百餘人

初十日英桂奏擒匪撥營官軍追勦三十里殺三千餘名生擒擒首張

拾等數十名總兵崇安沿途殲斃六七百擒首張裕隆等數十名

十二日舒興阿奏雲南屬漢回構擾驛使設斃回民多名

十四日葉琛相貴奏廣東洋面匪艇生擒三百四十七名解省審辦

十六日英桂奏勦辦毫境擒匪賊斃千餘名器械無算并生

擒二十餘名

十七日英桂奏匪斃千餘名葉名琛奏獲洋匪不下二千

餘名沈各匪船一百四餘隻

十八日崇恩奏勦辦山東曹州擒匪一千四百名擒二千

二十七名落水不計其數

北京丙辰文科榜

欽命文會試題名錄丙辰科

第一名馬元瑞山東第二名蔣彬蔚江蘇第三名危鴻模浙江第四名黃起元福

第五名周才揚江西第六名邵占熬直隸第七名楊淳正士第八名龔嘉俊云第九名

九名譚能高成都第十名楊東音寧鹿第十一名高廷樞江蘇第十二名楊昌貴貴州

第十三名洪調偉湖北第十四名任連陞河南第十五名孫慶恒英山明第十六名賈春宜奉天

第十七名張揚基江蘇第十八名柴友之山西第十九名鍾孟鳴鹿林第二十名于宗受序

第二十一名李文淳江西第二十二名徐覺因湖南第二十三名胡廷燮山一第二十四名傅列江蘇

第二十五名洪麟設浙江第二十六名廣隔少白家第二十七名俞世鈴江蘇第二十八名楊共惠用皮

第二十九名邱對欣山東第三十名守正序序第三十一名曹昌熙浙江第三十二名於頌相尹光

第三十三名任熙翔山西第三十四名祺廣後第三十五名黃廷金湖北第三十六名龍掌運河南

第三十七名余上華陝西第三十八名魏邦達湖北第三十九名張樹甲東又第四十名

第四十一名同善浙江第四十二名范希淳福建第四十三名儒銀國春皆足第四十四名廷松秀江

四二名劉中祥浙東塘 五六名卓貴應四川 六八名陳春英山東 八十名劉正昂四川

四五名徐景式徽歙 五七名萬邦受浙江 六九名武士進山一 八名韓理雷直

四六名李貽良山東 五八名翁廷緒宛平 七十一名黃金鉞雲南 八二名安卓貴州

四七名許業香河南 五九名陳彬受湖北 七二名孔憲毅曲阜 八三名陳朝凝福建

四八名曾協榮陝州 六〇名朱策山東 七三名劉現恭陝成 八四名陳恭福建

四九名楊振鳴解州 六一名朱有厚浙江 七四名中宜華浙蕭山 八五名劉昭文直

五〇名劉書云揚州 六二名陳善芬福建 七五名陳蓋山平定 八六名楊元律江西

五一名烏拉喜崇門 六三名翁同秋江蘇 七六名李崑河南 八七名袁輝岩

五二名丁燧之河南 六四名蕭廷祐湖北 七七名李光原安徽 八八名孫欽昂江南

五三名劉廷輝江西 六五名統軒山東 七八名楊致文東 八九名孫夏敏直

五四名唐嘉浩江蘇 六六名孫堪清苑 七九名楊北運涿州 九〇名李章河南

五五名戈尚志雲南 六七名吳敏方合肥

九名湯澤山順天 百四名汪松春安 百六名夏敬春江西 百七名唐自貴湖北

九三名李士雲直隸 百五名危運鵬四川 百七名何復亨福建

九四名張錫級山東 百六名秦慶彤江蘇 百七名項福之河南

九五名周至平四川 百七名楊殿棟山東 百六名肖陞宗造化 百七名陳傳奎山東

九六名陳頌揚陝西 百八名鄭琦美山東 百七名劉子英山西 百七名任敘修少唐

九七名陳叔江蘇 百九名銘安廣東 百七名汪朝梁江蘇 百七名梁行蘭保定

九八名楊景遠直隸 百十名王題雁河南 百七名徐昌緒四川 百八名傅慶昭江蘇

九九名李宏煊河南 百十名孫樹河南 百七名李祖植云南 百七名華普芳江蘇

一百名王日煙浙江 百十一名胡義質河南 百七名鮑最安徽 百七名徐錫其陝西

一百名孫長復湖北 百十一名沈秉成浙江 百七名韓寶鳴大興 百七名魏象乾奉天

一百名于國象湖南 百十二名盛植型浙江 百七名文毅乙餒 百八名薛中樞湖南

一百名董文煥山西 百十三名方炳文雲南 百七名陶宜森雲南 百九名邊玉龍山西

百零一名周鶴年貴州百五名劉慶甘
百六十四名^程豫休甘 百七十六名黃文璧陝西

百零二名黃彬岩山西 百五十三名田依渠河
百六十五名萬培因福 百七十七名黃斌休甘

百零三名曹大俊河南 百五十四名孫彥山奉
百六十六名王方榮四川 百七十八名范鳴河湖北

百零四名黃體之浙江 百五十五名交炳煊浙江
百六十七名杜桂一陝甘 百七十九名南汝弼嵩

百零五名嚴助云南 百五十六名吳曾達江西
百六十八名薛允升陝甘 百八十一名李湘元眉州

百零六名陳森印福 百五十七名楊衍熙山東
百六十九名李春容長沙 百八十二名赫德修順德

百零七名彭桂声江西 百五十八名任傳編江蘇
百七十名薛嶸宣化 百八十三名周維翰陝

百零八名于光甲倉州 百五十九名鄭長清河
百七十一名因國光河南 百八十四名王汝臨云

百零九名楊與留山東 百六十名屈承清永平
百七十二名常維朝河南 百八十五名果丙休甘

百一十名劉自之直 百六十一名張社休甘
百七十三名果凡翰大序 百八十六名秦同泰河南

百一十一名羅賢壯甘肅 百六十二名孫家毅安
百七十四名田得吉陝甘 百八十七名張師亮貴州

百一十二名王達才江蘇 百六十三名軒欽休甘
百七十五名孫官云山東 百八十八名彭國方四川

百八名何樞可

百九名畢翰昨出

百九十一名張文炳四川

百九十二名邢景周陝甘

燕行錄

到河候跋涉安否彼虜者亦知人事云所經各站輒設
佛宇無一僧者護者蓋為設祈禱村人俾化主營建
云到底畫像尊閣之焚香燃燭有若緇髻之入齋者
習俗之崇佛多類此

石嶺鏤天雪路斜此晰明日到遼河縣名狼子不偶甫
出驛人心無等差 右狼子山

初三日丁卯晴未明三行偕發踰王祥嶺歷冷井

即朝飯站而仍日寒前進十五里許阿彌庄佛宇朝飯
舊遼東在東南間十五里許新遼東在西之十五里許
俱在指點之中而白塔屹立於舊遼東之界也傳此為

華表柱而亦莫知其然否阿彌庄朝飯後三行偕發
行十五里止宿于新遼東劉克明家連川居朴一得祚
名者來現自言丙子年被虜年才十五入來今年七十
九歲

飲水隨處歇征鞍斗覺艱閑道路難使者遙尋秦地界
夷人驚恠漢衣冠鏡中衰髮緣愁白天外歸心戀闕丹
遼野茫茫華柱屹却疑身在夢中看
飄身處等萍蓬遼東山川領略中華表柱高雲尚
在黃金臺廢跡成空千秋悵望英雄淚一劔行裝烈
士風最是長河名太子至今遺恨謾流東

初四日戊辰晴書狀來見平明三行偕發歷接官廳虎
避驛行三十里到濶泥舖朝飯歷路暫見正使

跋涉筋骸脆艱澗道路厭漸覺東方遠頻愁北風嚴破
堞餘殘壘荒村辨掛帘恨無排悶術隨處捩霜髯

朝飯後三行偕發行三十里止宿于十里堡李作同家

朔漠頑雲釀臘寒北風吹岸惠文冠胡兒躍馬交猿臂
裨屬聯鑣襍豹斑自是丈夫多感慨可堪吾道日艱難
啼紅蠟燭通宵伴却解羈愁淚未乾

皇太子以畋獵出來瀋陽留四箇日獵得之數至於三
百兩大虎四頭小虎十頭獐鹿山梁之數不知其幾許

云太子亟請進頭至於寒凍云

初五日己巳晴仍正使有病日出後三行偕發行四十里歷沙河堡到白塔堡與書狀同會朝飯行二十里到瀋陽城門外捨轎騎馬入宿于察院蓋自禮部近來申飭朝鮮使价之留宿察院不許下處故也方物一隻到鳳城義州刷馬駝人于立其名者掠奪駝人莫愁乙卜駝之互相推調令書狀嚴加究問則于立與劉哥雇車軍相約以木花四祿相換云招問劉哥則抵死牢諱不得已以此馳啓于立則押送于義州府

、駝之征馬樂時休畫角寒聲喚客愁翳日黃茅者不盡

千雲白塔跡空留晴嵐霧，天疑接大漠茫，地欲浮
莫道關山行役苦此行能辨子長遊

初六日庚午晴仍留瀋陽察院書狀未見漢人許志進
來謁以文占進士第已經知縣云即饋酒其人退書以
文字問答則文章贍足多讀古書且以盛京賦一冊送
來乃自作也且送鹿肉一塊故以若干紙筆墨送之翌
日更為來見

初七日辛未晴方物交得瀋陽後狀院堂落修上且付家
書午後與書狀偕行先出城門往見皇帝時正使出
殿故即偕行歷永安橋二更登到邊城止宿

三行偕發經孤家子行四十里到
周流河朝飯與書狀同下處郭垣其名者朝瑞之子也
自稱厥父為吳平西一案遣發瀋陽十六年所至於廢
業云充為站門不許考試有獻款抑塞之意三行欲為
前進則甲軍遮道不出清譯等懇請於押車將處後日
晚三行發行歷新民屯二十里小黃旗大黃旗堡三行同
下處株馬越古城子三十五里冒夜到白旗堡止宿
初九日癸酉晴微風白旗堡朝飯後三行偕發行三
十里過一板門行二十里到二道井止宿道逢載木桶
車數輛向之故載銀貨盤運于瀋陽及寧古塔而一

桶入一千數一車載二十桶揔數幾五十餘萬兩潘陽
即彼人拔祥之地寧古塔即彼人當初窟穴慮後之策
有如是矣

○欲次庚子季家 親韻

二品猶為次月班多身還在俗僧間吾生歷落真堪笑
世路崎嶇轉覺難鏡裡偏教馬新白髮夢中空踏舊青
山絕知排悶元無術強把詩篇慰旅顏

○次南雲卿台丈韻

新民屯接右溪屯荒店尋常八九村西地塵沙多眯目
極天煙樹自傷魂野程大抵連連薊卉服難分漢與蕃

最是無言音海莫曉途人隨處嘿無言

吾表嗟已甚三日已無詩
駛舌言難辨鳥音聽可疑
夜行還不息晨邁亦多時
霜雪驅馳際神明儘護持
初十日甲戌晴平明發行三十里
朝飯于新店甲軍趙
姓人家朝飯後三行偕發行十八里
止宿于小黑山張
右同家

④大漠茫，外滄溟復幾層
煙臺同塔聳埃壘訝霞蒸
路遠行何返愁多病共仍
塞鳴飛已過何處一書憑
十一日乙亥晴大風塵沙眯目
咫尺不辨平明發行過
羊腸河三十里到中安堡家
古王守里家朝飯行三

十五里到新廣寧察院止宿

望醫微高山迷懷

微高山色鎮東維
屈子何李賦遠詞
今日征驂經此地
古人遺蹟想當時
流傳百代空文藻
曠感千秋入夢思
最是羊腸河不盡
駭瀾元似走途危

漠塵沙咫尺迷塞天
風日正淒山將一帶連
幽蘄水學三义控海溪
窓外飢鵝何事叫枕邊
殘燭盡情啼此行休道行
壯袞淡異域雲煙滿袖携

十二日陰平明三行發行
歷壯鎮堡行十里
綏崗陽驛二十里朝飯行
四十里到四十四里十三山止宿于溪

八張文郁家

黃沙白草極望平
撫劍悲歌若為情
霸業已隨鴻雁去
王風無賴虎龍爭
應知白水佳祥處
行者看黃河
此日清弱國
季皮幣辱漢庭
誰是請長纓

○十三山古號石山站

竒峯秀出十三山
天借竒工戲土團
林之甚密雲雨夕
巖覆却訝移來剝一髮

十三日丁丑晴
鷄鳴發行經大凌河
行四十里到四同
碑朝飯于蒙古周姓人家

○大凌河偶吟

戴星侵曉向燕関征旆匆，不暫閑楚之士幾輕秦吏卒。
蠻兒澤潯恠漢衣冠雲將凍雪歸河口風送驚沙打
客顏莫道瓊樓千里隔夢魂長到洛陽山

凡節使之行必於臘二十六日達于北京而排日啓
程日期不_足故欲越一站則押車將操擔不許不得
已自行中負譯商賈輩收歛九十數出給後許之弱
國之羞可勝言哉朝飯後經小凌河柘山堡杏山堡
行七十里止宿于高橋堡甲軍張姓人家

冠蓋遼陽路聯翩行不休地天莽相接河漢混同
流落，誰青眼飄，已白頭殘燈十里盈夕長繞十

二樓

寒宵無睡晝無悵，鬱結男兒硯硯腦。閱世已多羞，
桔槔謀身太拙。笑龍鍾天寒不耐，滄洲鶴歲暮方知。
雪嶺松凋，悵鬢邊霜髮，種鏡中拋却，舊顏容。
十四日戊寅晴平明三行偕發，歷塔山所行二十里到
連山驛二十里朝飯于王姓人家。

憶亭

閑山迢遞剝三千，兩地相思月一弦。老去偏驚雙鬢
改詩成不向萬人傳。歸魂杳，蓬萊上客路茫茫，渤
碣邊不耐鎮原離別恨，塞鴻何事又南天。

朝飯後經雙石城到寧遠衛察院內隗子宋姓人家
止宿歷路往見永寧寺，之內豎兩碑，碑寺剝重
修碑而行色匆，未得遍覽，未知創於何代，廢於
何代，而重修於戊辰之歲，制度頗率，義寺之西設閔
王廟，與我國東南閔王廟略同，廟前床卓之上，有籤
筒，欲占吉凶者，拈出竹籤，考諸占冊，則頗奇，中云到
寧遠衛城內，往見祖大受牌樓，記其四代功績，樓
制宏傑，劉石為二層之制，而去土木之役，於石柱
上刻其業績，而日暮未得詳覽，恨也。
十五日己卯，陰平明三行，偕發歷曹庄驛，到中

中右所朝飯三行偕發經沙河所行三十里到東
 関霍姓人家止宿道逢近千甲軍問之則皇太
 子以畋獵事出来潘陽時錦州衛城將率四百名
 易州衛城將率五百名廣寧衛城將率一百名
 陪往山海関落後還来云道邊逢走兔一時圍
 匝馳突如飛此長技追思丙丁之辱可勝扼腕

寧遠衛

王音

詔贈崇禎末技勦擒兵官左軍都督府左都督祖承大鎮仁大業
 松楸如新慶善塔于四立 恒赴歌國倚千城之重
 琳瑯有赤貞永譽于千秋 絲給錫龍朝隆銘馬之慶 登壇後列

古衛遺墟不忍論 牌樓陳跡至今存
 彩書宛記將軍績 碧血空留志士冤
 冤素崇煥 市虎成譏終不悟 元戎倒更何言
祖大壽以四女元戎至以救禮如
 新慶善塔在四世之句而終至投降故云
 赤貞永譽于千秋 沉吟不覺歸

程遠哀早茫、日色昏

十六日庚辰陰晦雪平明發行二十里到中後所王姓人家與書狀同坐朝飯舉人趙起龍持鄉試冊子未現歷沙河店溝兒河至兩水河彭姓人家止宿道逢送死者謂之送香奠前多列彩幡簫管鼓吹而行僧人等執錚誦經或儀甚盛喪人則只著白末巾洞內相識之人亦皆著白木巾略無顏色之憾哭泣之哀有若鋪張喜事者然人心之陷溺習俗之傷敗一至此哉

皇舟田宜

孤城盡角報霜寒
浙瀝嚴威傍
易冠蠟燭燾微明
復滅酒帶飄拂彩
無斑休言長路駉
馳苦漸覺殊邦接
應難久廢推敲
吾老矣墨兵顛
倒筆花乾

三田宜

臘梅開盡尚餘寒
鏡裡霜侵鬢上冠
戀闕恍惊天杳
思鄉衣袖淚斑
春來不復韶顏
借老去方知世
路難兩雪行看
楊柳返汚人泥
土幾時乾

十七日辛巳日氣陰冷微雪
曉頭三行偈發經前屯
衛高靈驛行四十里到
中前所朝飯于蘇姓人家
與畫狀先發往見望夫石
三大石昂峙其石底作佛

宇置以金佛寺前作素廟以上塑作姜女像置
于卓上左右各立二碑記其事實而於門楣左
右特書秦皇安在哉萬里長城等怨姜女不死
也千季片石猶貞而乃宋朝文丞相筆跡也千
載下令人髮豎立且如回瞻前後左右景色極其清
爽前臨大海且有彎弓近岸萬里長城在於目
前像想當日望夫之烈正氣猶祇今未泯也正使
追到仍為偕發歷八里堡到山海關城外城將
稅官等操切無數歲帑方物及卜駝等物必照數
點檢然後方可許入云卸鞍等待幾二三食頃許

使象方輦再三往復徵索禮單後始為許入日已
暮矣止宿劉姓人家

次南雲卿韻

侵晨秣馬戴星行颯，秋霜鏡裡驚燕塞一年征雁盡
函閑半夜曉鷄鳴山留雄堞城無恙地蹴鯨濤海作聲
竣事還朝何日是漫從烟堠笑歸程

十八日壬午晴平明發行歷紅瓦店范家店大里營王
家嶺鳳凰店朝飯于漢人閔守義家朝飯後三
行偕叢歷望海亭深河驛網子店榆関白石鋪到撫寧
縣止宿于陳德壽家夜幾二更矣主人頗解夜字入夜

後以文字酬酢而羅翟鵬王封閣王胤祥官居諫議已
 入鄉賢皆忠于明朝云翌朝則隱而不現使家奴輩探
 切無殺至於閉門不出蓋欲享索房錢故也漢人之多
 怨無噍多類此越店阻糖而元非越店之所故負役繡
 繡之敬次家尊詩
 十九日癸未晴平明發行歷蘆峰被陰鋪茶棚鋪到雙
 望鋪相飯于李姓人家李汲法潤淋瀝五兄弟其父以
 征雲南國之功經知府身故而家計饒之所乘之轎制
 度極好至置四箇蓋知縣時所乘云且有二冊書畫而
 乃趙孟頫畫馬揚士奇羅繪及宅名入筆迹也自

朔漢胡天竟日風日寒征特每冬來故畫仍成鄉尉秦甫然已告空室于列頭難辨
 桂唐炸果只却越車孤吟不耐鴛原列縮地何緣返浴中

令人珍玩歷三十里歷十八里鋪盧龍縣止宿于永
平府于姓人家永平古右北平亦一都會也人物
之盛城郭之壯與山海關相埒而城樓傾廢而不為
重修倉廩圯頽而亦不修緝皇明文物只有廢城頽
樓只令人感愴而已意者清人無久遠之慮而然歟
未可知也招致一秀才乃田生楡其名者也以文字
問答則方讀周易之而易經多有羽翼之書庶義表
昔口義述朱本冊而廣義最詳之未得覓見永平府文士
甚多發解者十九進士第者二三解元者劉偉石紳
其中翹楚之云

永平府

此地曾為右北平千季陳跡自傷情五花遺塚今
猶在孤竹清風凜若生碣石茫茫天外立灤河滾

眼前橫莫言辜負登臨願擬待明春盡日行

行此日寒
有柳樹
落句及之

二十日甲申晴平明發行經張家店安河鋪行四十里

到野鷄屯朝飯于蔣姓人家行二十里到沙河驛劉

姓人家止宿松都商賈韓機失一隻卜駙於察院銀

貨貂貓茅皮云

二十一日乙酉晴曉頭三行偕發經馬鋪營新店王

家店蔣家店靈源橋行四十里到灤州榛子店朝飯

于陳姓人家歷板橋鐵城坎到豐潤王怡家止宿
王憚即家親赴燕時主人也憚作故怡獨在其時
以秀才未現者凡九人而凋喪殆盡所餘者只王怡
父子叔姪三人而已孤露餘生重到此地愴慕之懷
倍激于中苾苒四十季間閱盡悲歡喜故且與王
生語及疇昔不覺潛然其於人老何如也王生設
果進茶待之特厚而年老性迷不能記當日之事
恨也以紙地及他若干種贈之渠又以烟煤花石報
之辭受之際異於我國亦一苦境也

二十一日丙戌晴平明發行歷高麗鋪燕界鋪趙

家鋪行四十里到沙流河鋪朝飯于盧姓人家醫
負金挺夏失一隻銀貨於察院即內局葉賀易
之價云朝飯後三行偕發歷兩水橋兩家店八里鋪
行四十里到玉田止宿于李姓人封家

曲豆潤縣次月沙古詩韻

沱河之東瀛水西有一古縣河之曲山川尚留萬
古點景物愁殺三韓客百尺飛樓眼前耀萬點炊
煙雲外白開鑪掛帟市肆富接轂磨肩民物
足岵嶢寶塔釋迦廟照曜金碧闕王屋茫大
漠浩無際杳歸路迷南北

二十三日丁亥晴平明發行歷西八里鋪彩亭橋枯
封店蜂山店四十里到螺山店朝飯于蘇姓人家宋
子城在於路在望中而所謂宋子以皇明鴻臚寺
序班家財萬至於設守城池安嚮素封之樂獨
專其利及清人搶掠之日以歲貢千銀納降而今其
子孫至今不替云朝飯後歷十二里鋪鰲山漁陽
到薊州止宿于獨樂寺與書狀同入投宿於各房
寺刹之制宏麗立佛之長逾十丈許卧佛俗謂之
李謫仙而莫知其然否光明燈以水鉄鑄成曾未
之見也懸額筆跡或云李謫仙親筆而無以憑信

宋子城

宋子何季領一區至今遺堞石河隅不知高會率
堂日擊筑傭人近有無

二十四日戊子晴平明三行偕發歷五里橋之傍
設廟堂置女人土塑於卓上俗云楊貴妃畫像又設
一廟堂於山上謂之安祿山畫像未知信否行三十
里到邦均店朝飯于劉姓人家自北京來買賣人言
于負譚革車曰使臣之行例住玉河關而大鼻隗
子方未住當入於舉人之場而設科不遠當為不接
於寺刹云而未知留置於某寺也朝飯後歷白碓店

往見香花庵則只有女僧禮佛談經寺中景致勝
絕制度宏侈澹然忘歸行四十里經八台樂店濠沱
河到三河店止宿于劉姓人家

○香花庵

庵號香花是鋪名白澗云寺深窅到峽樓迥欲生
雲遮列千季翠碑留萬曆文僧尼長入定談佛禮
真君

二十五日巳丑晴鷄鳴三行偕發歷白浦渡行三十
里到夏店朝飯于張姓人家朝飯後歷柳河屯馬
耳鋪燕郊鋪鄭家庄行四十里到通州止宿于沈

姓人家人物之殷富市廛之完侈非瀋陽山海關之比實東方一都會也

二十六日庚寅晴平明三行偕發行三十里到八里堡朝飯往見正使書狀亦來朝飯後到東嶽廟改服團領寺刹盡為燒燼佛像殘碑石像及左右處中列去碑石皆無恙意者鬼神所護耶三行騎馬至城門仍詣禮部通官言內禮部侍郎王封榮當為祇受咨文而皇帝以政糧事出往海子距京城四十里之地昨纔還歸故方往劑中有文書修正之事漢書杜臻督來祇受云移時後漢尚書

來到傳授咨文而傳授之際三行並跪于大廳上壁
上跪置于卓上其倅辱甚矣弱國之羞可勝言哉
玉河館則大鼻獐子來住該場則二月設科事故
不為許入其他佛寺有多寬蔽處而皆權力家院
堂也亦不許入即今督捕司乃皇朝時行人廟故仍
舊時名號使之留住而湫隘太甚房堦無多一行真
役多有露處者所接下處亦甚狹隘殆不可堪
二十七日辛卯晴上使書狀暫為來見乘夕人往見
正使書狀仍留

二十八日壬辰晴仍留

二十九日癸巳晴平明以朝參時習儀事三行率正官
往于鴻臚寺使之習儀而跪于壁上鴻臚呼唱使之行
三拜九叩頭之禮之畢後以為不為閑習更令習儀一
如初度禮畢後又以為猶不閑習當更往館中更為
習儀為當云差晚大通官文奉先金士傑劉論金
次通官崔大保等來到使臣則姑勿行禮使負譚
等拜跪于庭中蓋前日臨陽君之行有失禮事禮
辭即官至於罷職禮辭今番或慮又有此患習儀
至再至三曾謂禮義之邦及被彼虜失禮之責予
良可哂也

三十日甲午陰仍留夕間象舌以通官言未言今有
歲饌排床當祇受後有三拜九叩頭之禮而今始
權減只行一拜三叩頭之禮云故不得已與書狀同會
于上使下處率負譁行禮饌品多至四十二器而皆
非下箸之物造果或如我國义首或如我國糟果而
不和清蜜諸品俱以法油煎出味甚不好肉饌只有全體
一首鵝不及我國饌物遠甚即為分饋于驛卒駭人
輩

除夕獨坐無悰次先聿玉河思歸之作
歲華將暮夜將闌星斗迢，蠟燭殘閑塞極天

魂去遠，羈愁繞枕。夢難山河城郭，渾猶在禮樂
文章末。更看觸目，偏多增感。幸朔雲凄切，北風寒
庚辰正月初一日乙未晴，大風四。史頭三行，率負譯詣
闕中，自西長安門，歷禁清橋，天安門，端門，午門，太
和門，進詣太和殿，庭西班待皇帝。殿清人行禮畢，
仍詣茅四行，班次行三拜九叩頭之禮。畢上，復則
以宗戚之故，仍詣御榻殿坐之前，良久退出。一行
等待，偕出宮闕之美，制度之盛，皆皇朝舊儀。觸目
無非感慨之處。吾之生後，恨未見皇朝全盛之時。
而今未拜跪於戎狄之庭，只增扼腕光祿寺盛歎。

於銀筒以班序饋之而莫惡不能近口班序中往
來清人或有碩大魁梧者大國人物雖無識大戎
亦如此皇明人物之盛此可推知

初二日丙申晴仍留書狀未見

初三日丁酉晴仍留往見書狀譯官吳尚采持寧古
塔奏文一道來示即昨年副都統出來六鎮時梗槩也
略論六鎮城池大小及去寧古塔道里遠近而畢境無
歸宿之語仍即持去故亦不得騰生而翻出清書以來之
而亦未可信當給三十金方可許騰云皇帝出往海子澤
遲速姑未預料云呈與於海子作勅賜春苑行宮至設

往云蓋海子名以暢春園作一遊賞之所云

初七日辛丑晴仍留

次月沙玉河館韻

韶華無復舊容顏情坐虛齋獨掩關魂逐朔

雲朝鳳闕夢和邊月邊龍潭寒松歲暮春分全

節虐雪春來尚在山惆悵故長入望飲冰征旆幾時還

初八日壬寅晴仍留大通官金士傑未言于譯官

曰二月晦間四月初生似有勅行蓋皇太后令

年六十歲當有上尊號之禮媿嬪中當有封

皇后之舉以此二款應為頒赦勅使解文當

使臣先未偕往云

初九日癸卯晴仍留書狀未見

初十日甲辰晴仍留皇帝因坡臨公主病重自海子急還坡臨公主即順治之姝即今皇帝之三寸叔母云

十一日乙巳微雨仍留坡臨公主昨日喪出而皇帝在

日午後還往海子云亦無成服之節云

十二日丙午雨雪交下仍留書狀未見大通官白海保來到關中招致畫工張佑良使之圖出我國八道山川形止道里遠近而張佑良及他負譯等答以曾不遍歷諸道未諳形勢決無畫出之勢且雖以

十三省後宮珍玩之屬無不備具往來無常日以娛樂為事云云

初四日戊戌晴仍留書狀未見

初五日己亥陰仍留首譯未傳次通官崔太保以為皇太子求覓我國人參不可虛其請且若覓給則必有前頭顧讓之事云而既是私送覓給非便不可開路故嚴辭峻塞而姑未知畢竟之果何如也

朝忝日次庚子元韻

平臨

大朝佳麗壯皇都金闕朱門氣像高斗極仙掌

月西湖遙接北溟濤山河盡屬蠻夷手文物空
追漢代龍舉目不堪周凱痛敢言王事獨賢

勞

初六日庚子大風大雪午後晴仍留次通官崔大保以
昨日皇太子所求藻參來督象舌革象舌革以
使臣之意言之則崔大保直為入來于正使下
處三行並會以行中無所責私逞不可開決難覓
給之意嚴辭斥之則渠終不敢強迫畢境以欲得
若干藻參云故正使以為此則當覓給云渠乃退
出○皇太子亦於昨日往海子皇后及諸妃嬪亦隨

畫工循次未此而本不閑於畫法決難依樣云爾則渠
答以此非諱忌畏避之事而有此牢拒人事無形云
更不督迫之云○次通官崔大保言於譯官卞爾璜曰
前日求覓藥參呈呈為換質之計而今於行中無
費之所用亦必有累斤然後方可用之須於後行
若費累斤則可以買得且我國葉南單及綾綾花
紙優數費來古事預為知悉歸宜當云○且曰我國
北道六鎮開市時我國接待差人極其涼薄此後則
各別款待之意歸報慶通宜云○負譯革答以彼此交
易時接待既有定規若或違於約條則方可分付

亦不可容易變通之意答之云

病劇心如醉愁多日似年地卑還閱雨垣峻罕觀天雄
劍空鳴匣新詩謾汎牋恨無排遣術時讀卜居篇
形骸添舊疾時序屬新年久帶無花地頻驚坐井天
寒灰飛玉琯銀勝賁卒牋明流殘燈夜愁未強咏篇
壯志驚新篇韶華惜暮年遙知薊北月同照洛東天紫
禁看銀勝香街爇彩牋皇明舊文物空入朗吟篇
十三日丁未陰仍留書狀未見

次東岳玉河韻

寒燈明滅獨相親起坐中宵看劍頻衰謝偏傷添疾

病駭馳放憚備艱辛日星暎容路千尋馬王館霧愁

二閱旬擬待未春投紱去暮江漁釣任清貧將有水原漁村
終老之約落句及

十四日戊申晴仍留書狀未見夕旬暫見正使

十五日己酉晴仍留正使書狀未見

十六日庚戌晴仍留書狀未見

十七日辛亥陰仍留書狀未見傳聞道路之言皇帝之

女格、公主因妬忌至於雉頭而逝皇帝立斬石哥耐

馬至於一家諸族並為革職云

再置

虛齋岑寂有誰親斗膽輪白感慨頻遙遠殊方淹幾

月驅馳長路閱千辛
梅邊春色近長日鏡裡秋霜過
五旬塞北風煙挈袖滿也知行橐未全貧
十八日壬子晴仍留往見正使書上

十九日癸丑晴仍留

二十日甲寅陰仍留書狀來見

次東岳玉河館韻

梅邊春色雪中生
節序居然萬壑驚
馬天接榆關征
鴈盡地非函谷
號鷄鳴曉宸不耐孤
臣意步步月偏
傷遠客情欲向街頭消
盤討悒亦憎胡騎滿
玉成

吹東岳韻

滄溟連渤海，榆塞亘幽燕。偶作西河執紼，殆同北地邊。
光陰不饒我，節序又經年。全盛皇朝事，空餘百隊塵。
二十一日乙卯晴，仍留正使書狀來見。

次東岳韻

虛館春生日，寂寥朔風吹。雪正蕭蕭，身同汎梗行何
已。心似懸旌坐，亦擬歸。愛頻尋青石嶺，客程空美。
彩高橋還朝定，作投簪計。看我日坐鏡裡，飄
二十二日丙辰晴，仍留往見正使書狀來。

次東岳韻

長街車馬響音車，鞞暗襍丁東。禁漏聲九陌，香風通掖

苑三春淑氣繞皇城山河儘付今
鑿氏文物空追
舊大明銀漢察
白王斗轉獨
馮虛閣若為情
二十三日丁巳晴仍留書狀未見

二十四日戊午陰霧仍留書狀未見明日將行朝
禮大通官問其進參與否三行皆進參之意言及
則大通官等大生惶恟曰正朝、參時俱無失禮
之事而明日殿坐時趨蹌之急倍於元日正使進
參若或失禮則俺等將有革職之罰莫如不參
之為愈蓋於頃年臨陽君朝參時因失禮、部
郎中至於四能職恐有此患齊聲挽之正使不得已

稱^病不進

二十五日己未晴仍留朝參進去十七日白王帝開印
後十九日表咨文公事禮部送于內閣二十日自內
閣始為入奏而禮部以照數查收之意循例覆奏
二十四日以特旨減除謝恩方物而至有嗣後因此
等事謝奏者停其進貢禮物之語通官等皆以
為此是無前異數此處公事三日內即為奏上旨
今則過三日終不回下該部更為稟旨有此特
教曾前或有減除方物之事必於責罰事謝恩
之時自該部措辭覆奏然後方有減除之事至

於不待該部之面示旨特為減除實是稀罕之曠
典云云

二十六日庚申陰仍留皇帝於正月二十九日與白王太
后太子及諸妃嬪往于通州江乘舡仍向東南間
水路二百餘里巴州地打圍月餘後乃還云〇二
十七日皇帝太和殿舉人親策云蓋上年科舉
初試時三閣老之子俱為參榜與孫其臺諫以試官論
啓試官則方為拿囚一人則仍上病斃於獄中一
人則姑未勘罪云而初試時參榜閣老之子皆年未
滿十五人言頗多故皇帝欲為親試以覈用情虛實

云午後書狀未見。公事自內閣送于禮部。

二十七日辛酉陰仍留書狀未見。招見戲才非幻法。該才甚拙。

敬次庚子韻

白皇帝親試舉子

鯨域人從海外來。客中懷抱向誰開。秋霜謾入頭邊

種。春色還看雪裡催。函谷秦鷄鳴未曉。遼陽牽

鶴去無迴。莫言天下奇遊。辨田男子心肝半已摧。

二十八日壬戌晴大風仍留書狀未見

二十九日癸亥晴仍留書狀未見。數三打話後與書

狀同見。正使甫白皇帝與太白皇太后太子及諸妃嬪

出往通川江乘舡下流轉向東南間水路二百餘

黑龍州地方仍為打圍遊玩之計蓋於去年湖水
汎濫民田損傷多費累萬兩財力等桶堤防故無
且審視功力云

三十日甲子晴仍留書狀未見數三打話後仍與書
狀同見上使歲幣方物負譯等領去關中無事
呈納而皮物歲幣木白綿紙品劣之故捧上官
負不無生梗之意而因次通官崔大保宣力得
以無事

二月初一日乙丑陰風仍留

口次東岳韻

幾羨寒鴉集禁林五雲迢遠九門深南天不及隨
陽鳥北塞誰憐填海禽虛館沉，毅畫地繚垣兀
、銀署有岑四旬經過如三載嘿笑歸程惱客心

初二日丙寅晴仍留大通官文奉先等以禮單紙地品
劣之故吃哮萬狀再三點退殆不受去其意忿緊在
減除方物白綿紙而亦難容易出給姑未知畢境之
如何也大通官姜訓周直入于副乾糧 取二同
甘藷而去其舉措之狂悖與類此
初三日丁卯晴仍留書狀來見數三打話後與書狀
同見正使揭告示榜

初四日戊辰晴仍留書狀未見因工部奏議未初六日更為移置于玉河館此何景象良為咄

初五日己巳晴仍留書狀未見

初六日庚午晴因工部奏議移入玉河館書狀未見

初七日辛未晴大風書狀未見

初八日壬申晴仍留書狀未見

初九日癸酉晴仍留食前領賞仍往禮部叅下馬宴漢尚書杜鏊郎中佟寶及提督通官等接待未會杜鏊除禮上坐云而通官文奉先軍將謙讓之禮云何以吾等之言傳于杜鏊……更不許除禮故不得已於杜鏊前并行一拜三叩頭

之禮厄哉國哉初昏三行觀燈

初十日甲戌晴仍留食後禮部左侍郎李祿子以上馬宴
未會玉河館其容貌無識特甚往來時迎接于中門外
亦一苦事也

十一日乙亥晴仍留書狀來見

十二日丙子晴仍留與行齋會修

啓員

禮部回次中百官
堂二字故多執板去

十三日丁丑晴陳序班稱名者於臨行時以從今一別再

會無期極蒙厚待銘刻靡盡等語書呈彼人亦知人

事午時自玉河館離發過八里橋止宿于通州察院

萬里淹留序漸逝百憂叢集病仍侵歸時欲守吟

詩戒纔到通州又不禁

日久蟄羈心切催行客意忙漸知吾玉近寧憚塞垣長
細草抽如黛歸轅快若翔休言到灣輿已喜出朝陽
十四日戊寅晴平明三行盤盤致過菜園村劉哥庄馬耳僅
烟郊僅柳河止朝飯于夏店張姓人家朝飯後行三十里
止宿于三河符姓人家刷馬駝人四名落後入夜不來故
別遣灣上軍官及軍子等招來
十五日己卯陰平明三行偕發憇公樂店白洵店朝飯
于邦均店姓人家到蘇州止宿于獨由寺之南
有趙子昂醉翁亭記云而忙未麻沙手而歸恨也

次東岳韻

塞路終何極春寒尚覺嚴古壘頽有址荒店短無簷
憂與思相亂愁因病共無時、點行橐唯恐一毫添

又次東岳韻

征驂杳、傍水涓極目羨京鴈書遲窮磧春回青入
柳層空雲過白呈碑平生膽氣今全歇千古興亡
不盡悲旅館苦無排悶術呼兒拔燭強題詩

十六日庚辰晴平明三行偕發歷鰲山與畫杖往見家
子城到螺山朝飯行四十里歷蜂山店枯樹店彩亭橋
止宿于玉田王姓人家

十七日立十已晴平明發行歷兩家店朝飯于沙流河宋姓
人家朝飯後歷高麗堡止宿于豐潤王姓人家又以酒
果待之如去時

十八日壬午陰平明發行歷鐵城坎朝飯于榛子店黃贊皇
家朝飯後歷將家茂王家店新店七家嶺止宿于沙河
驛藥王寺

憶弟仍次東岳韻

鴿原離恨苦難排樽酒論文與誰偕萬里殊方淹幾日
三春佳節阻開懷家山香、天東極客路迢、海北涯
惆悵此生成皓首主恩圖報愧無階

十九日癸未陰平明發行到齊齋廟朝飯景致極瀟灑
遺像極木林嚴自令人肅敬堅碑題額多而行色忙薄
未得指點艱也其眼界通望大河之橫流大抵與嶺南不
知庵書院畧同朝飯後三行偕發行五十里到釣漁
臺仍日暮遥望指點而歸來路歌鞍于李將軍射席
石處見左侍郎蔡士吳墳~~與~~羊馬制度及磚石儀物
過於國陵每行偕制不惜人力良可寒心止宿于永
平府章姓人家

二十日甲申陰平明發行歷十八里堡朝飯于雙湖堡^{侯人}字姓
人家張琳^{侯人}未得朝飯後歷北月陰堡^{侯人}蘆峰口止宿于^{侯人}

寧縣陳姓人家正使軍官金挺輝作故慘矣。
二十一日乙酉雨未明發行歷白石澗榆関店網子店深
河驛望海亭朝飯于鳳凰店陳姓人家與正使同會
先去狀啓修上軍官吳相良林惟誠譯官吳相采賚
去朝飯後歷王家店大里營范家庄紅花店到山海関
止宿于賈姓人家

二十日丙戌大風九門口望海亭覺山寺俱是清絕可
觀地云而金挺輝喪逝之後無玩賈之况未得歷覽而去不
能無不得窮扶藜之恨賈姓人家有趙子曰叩親筆親
畫陶淵明事跡而價直十金只令人愛玩歷八里堡中

火于中前所徐姓人家歷高靈驛前屯衛入夜後止宿
于兩水河察院

二十三日丁亥晴風平明三行偕發行四十里朝飯于中後所
李姓人家朝飯後行二十里止宿于東關霍姓人家

○次東岳韻

此生浮世少知音何事今來托契深棠棣可堪懷第
念楓宸轉切憇君心對床剩占三旬話裹餽何須十
日霖也識京華歸去後逢鳩輒說採南吟

九門深邃覺山巍望海亭押海門隈孤負平生登眺
計偏知造物太多情

二十四日戊戌陰風平明發行歷曲八河朝飯于中右所郭
姓人家朝飯後歷曹庄驛止宿于寧遠衛張姓人家
二十五日己亥晴大風平明先發歷雙石城行二十五里朝飯
于連山驛趙姓人家朝飯後歷塔山止宿于高橋堡白
姓人家

次東岳韻

昨過高麗鋪如經我國時恍然驚客意忘却笑歸期
密俗者愈苦龍灣去不遲煙花爛熳色正耐統丹擘
昨宿東岡村今經寧遠縣路遙瘦馬隕風急飢斲倦
裹單早統荒城夕燭生如敵院一盞一吟詩客懷聊自遣

日夢朝北闕次東岳韻

蝴蝶翻_之向玉樓夢中_{忘却}遊旋浮威顏_{此生}空通曉香
 案法殿深_黑殿列雲矛_鱗鱗_鱗何緣塵露補_{此生}空沐渥
 息復今行飽喫腥膻臭_腥林泥日_生槎犯斗牛

次東岳韻

杳，閑河路直，夕照明雲，黃迷籠白，早統荒城
 可耐連枝意，催無兩日程，神山知不遠，畫角又寒聲
 日暮行秋意，_空晨逼恻風霜，病錮寧思健，心灰不復
 陽久留腥穢池，空憶水雲鄉，擬待連枝會，吟詩共把觴
 二十有庚戌晴後辰三行偕發，歷杏山店朝飯于松山張

姓人家朝飯後歷山凌河祿馬牙大凌河劉姓人家行三十里止宿于十三山陳姓人家

十三山道中次東岳韻

閑山萬里路征旆趁春還詩也綠草早疑因鋪青風巾與子車殷

流光如逝水塞月幾成空壯志今猶在却驚馬鏡裡顏

二十七日辛亥晴平明發行朝飯于閭陽驛蘇姓人家首

譚李慶華所騎驛馬見偷於十三山察院且厨房所用

大也宋鉉覓失路逢索鉄累十人罪人以湖廣叛逆妻

挈自南京移置于寧古塔近雲云朝飯後歷壯籍堡止

宿于新廣寧山崔姓人家

廣寧道中次東岳韻

絕塞春將晚邊風尚吼號野平疑失際天廣覺空高
倦鳥顛長路飢鳥集古壕飛塵亦何意巧學汚征袍落台有世人

中安堡道中

隨

中安鋪畔駐征驂荒廡蕭條半掩扉日出牛羊當早放
天空烏鵲傷雲飛風塞塞北春猶早家在城南夢獨
歸惆悵此生成老大鏡中驚却髮眉毛稀

二十八日壬子晴通宵大風平明先發行四十里朝飯于中安
堡王姓人家即去時主人也朝飯後發行風塵杳然不
辨咫尺歷羊腸河止宿于小黑山察院

二十九日癸丑陰風鷄鳴三行偕發歷新店行五十里朝飯
于二道井朝飯後歷一板門行五十里止宿于白旗堡孫姓家
○二道井道中次東岳韻

華髮日星，壯志凋塞門歸旆更迢。滄溟渤澥連窮磧
碣石崢嶸枕大遼跋涉漸者家國近艱閑休說道途
遙卷京此去猶千里旅店寒燈閱幾宵

三月初一日甲寅朝雨夕晴日出後三行偕發歷大黃
旗堡小黃旗堡夕飯于周流河察院招見郭恒與紙墨
行十五里渡江止宿于孤家子張姓人家

白旗堡道中次東岳韻

紅馬驚，漸向東風城何許入望中寒窓刺聽終宵兩
絕漢還愁盡日風斗極餘骸瞻瑞霽枕邊蝴蝶趁歸鴻
遙知南郭春光晚多少繁花暎白紅

何時可度鳳凰城塞北冰輪五缺盈已看行厨艱品物
謾教書記錄陰晴雲收斗覺天閑密風急還驚地軸傾
已决荒裘終老巾從今閑日屬吾生

初二日己卯晴未明發行歷邊城朝飯于永安橋實姓
人家朝飯後三行偕發行三十里止宿于瀋陽察院

牧老自

○次東岳韻

名者以道士為名故送人招見則其不文無識甚矣或妄誣民一至此哉

昨歲行人今始還早，華髮減韶顏歸駘指點灑淚鋪

客路蒼茫狼子山何處竟表江海外可憐榮辱是非間
將身直欲騎雲去玄圃滄洲任自閑

○濟陽道中

豎羊豎馬豎羊去半日是胡雛羊是蕃腥穢至今昏宇內
欲傾東海洗乾坤

初三日丙辰晴日出後三行偕發歷混河行三十里朝
飯于白塔堡優婦姓人家朝飯後歷沙河僅行四十里止宿
于十里堡楊姓人家

沙河僅道中夜寒甚烈

宿後而覺病纏身不可耐效方即序新藥日能尋清北

地何結也對洛陽人山橫漢水魚信春晚榆關鴈已賓
寄書行中備梓屬故鄉歸思也應均

○遠陽道中次東岳韻

何處青金是蒼基世荒原無主鳥空來崔嵬白塔雲雲留
跡慘懷昔雲琦作堆吊古不堪周凱淚傷今誰惜賈生
尋遙知南鄭春應晚紫芍藥繁花爛熳開

初四日丁巳晴平明發行三十里朝飯于瀾泥堡王姓
人家朝飯後歷祭館廳止宿于遼東劉姓人家

初五日戊午晴日出後三行偕發渡遼東江往舊遼東
見華表柱仍歷胡德家行四十里朝飯于冷井朝

飯後行四十里止宿于狼子山王姓人家

○遼陽道中

平生奇氣隘乾坤雲夢常思八九吞莫道遼陽千
里廣秋蓬直欲擬崑崙

浮生於世等飄塵來去遼陽月幾輪路過燕臺頻駐
馬跡尋車表又知津傷時憂國心猶切臨水登山句

益新飲啄元來渾有命榮枯何必漫尤人

不待晨鐘夢屢驚虛窓荒店伴寒檠聽天自好忘

榮悴齋物要須一死生收子孫婚指係念老毒纏病亦

閑情何當歸做墳荒樂共對疎松聽賴聲

寢寫輅未東魯先登夫子堂兩楹陳俎豆數仞見宮
墻道統唐虞接儒宗洙泗長入門撫松栢瞻拜肅冠
崇

右康熙皇帝

卷九十九

平安堂集序汝亨

梁書金潤猛

陪行魚川隨隱宋海邦

金保

畫者張曼碩

馬頭奴枝葉

駢子色如吐萬

棋隣

馬頭吳檢松

以龍馬頭金厚一

畫者李有植

隨隱河女河

金長壽	朴得一	吳梅兮	河長秀	白海甫	劉論金	大通官
-----	-----	-----	-----	-----	-----	-----

姜訓肉	金二兮	金四傑	金元善	崔太保	文奉先	次通官
-----	-----	-----	-----	-----	-----	-----

尹高原訓甲未謁朝飯于嘉山郡守李萬地鍾永

柔縣令朴景登未謁到江博川郡守趙愿以過涉是

使負未謁行五十里到清川江安州牧使許祝虞候

南谷而肅川府使趙以健江西縣令趙正萬未見仍力

渡江止宿于安州兵使李基夏未見身故 玉蓬業雪梅

十五日戊寅晴平明發行朝飯于肅川府使趙以達咸

從縣令尹以寬未謁身故 辰進梅採蓮仙貴鳳臺楚雲貴非順王

朝飯後行六十里秣馬于順安書狀未見慈山郡守已

無齋未謁身故 香春尔花大德仙 得即以上慈山收生秣馬後行五十里初昏到于

壤止宿監司洪萬朝中軍尹濟萬大同察訪李龜以

崗縣令李震松未見房叔

鳳凰臺甘竹晉琴羽李仙

十六日巳卯晴平明發行歷覽浮碧樓練光亭行五十里朝

飯于中和平壤判官洪重其未見金徽事

房叔曾梅杏磨漢仙

行五十里秣馬于黃州兵使柳呈彩判官李徵夏虞候安

斗岭金郊察訪金潤海未謁仍為前進初反量止宿于鳳

山郡守具鳳昌未謁

十七日庚辰晴平明發行三十里朝飯于劍水站察訪金潤

海未謁行三十里中火于陽興郡守韓志讓新溪縣令金魚

史衡未謁行五十五里止宿于慈秀玄驛人乘宗信家正使

前進平山站書狀瑞興落留免山縣令金室金郊察訪金潤海

未謁

十八日辛巳晴日出後發行三十里朝飯于平山平安兵使
李尚齡谷山府使趙世雄來謁行三十里止宿于金
川郡守徐文淑趙生 洪進士夏平車碩建

十九日壬午晴平明發行。七十里中火于南城府留
守洪受瀍教授高緯奎來見其餘佞林武廳來見者
不可勝記中火後行四十里秣馬于長湍府使元振珠
來謁秣馬後行三十里止宿于坡州牧使李德以
來謁
胤兒及南泰說朴僉知文郁尹世傑林萬芳金錫折來
謁

二十日癸未兩平明發行，四十里中火于高陽郡守
洪萬選未見仍為進前到弘濟院任義州胤元盧
監察世夏沈都事琦李昌寧再春柳龍崗龜徵趙
生負兄弟金進士斗壽李生萬濟李之張李漢相未待
入于正使下處東平尉相見改服復命入侍

初六日巳未晴平明發行三十里朝飯于甜水站川邊
朝飯後行四十里止宿于連山館張姓人家

石嶺道中

纒往廣漠野又踰嶺巖嶂咫尺異險夷造化難比
况上有千丈石下有千尋浪此行太支離苦狀不
可量洛城隔幾許瓊雷遙相望叱馭義雖重步月
情難狀准擬投絃去物表任高尚

連山館道中次東岳韻

蒼茫烟樹寒鴉長路轉賈客車遍野竿綿抽
潤早滿山紅白映林花韶光正駕三春節歸魚類

萬里家終老荒裘吾已決烟沙魚鳥暮江叉

初七日庚申晴平發行明三十里朝飯于雷洞仍為發行三十里止宿于通遠堡郭姓人家或云此村有梁患故正使不為住宿先為之前進于松詠

初八日辛酉雨平明與書狀偕發行四十里朝飯于金子塔金姓人家仍為發行三十里涉筧北河止宿于松詠王姓人家見家書

初九日壬戌晴平明三仍偕發行四十里止宿于鳳凰城賈姓人家

初十日癸亥晴日出後三行偕發朝飯于柵門內仍為

出柵止宿于金石山下而副馬駟文演者落後不來故日
暮後別遣譯官李成夏下三錫義州將官三人跟捕
以來刑推一次仍為結縛捉置滄上

十一日甲戌晴平明發行朝飯于九連城下仍為還海
江清城會使金厚門龜城付使吳伯周恭川縣監金
萬曹魚川察訪人金壽益至我州府尹李三碩青水
萬戶
未見止宿于義州

十二日乙亥晴狀啓修上副馬駟人文演等又為刑推
一次放送日出後發行三十里朝飯于所串仍為發行
三十里秣馬于龍川雲山郡守金雁漢龍川付使

重圖鉄山府使李奎成龜城府使吳伯周楊下萬戶俞
敵萬來謁房妓辰暹同庚次正月梅上龍川景雲士香
以上雲山秣馬後行三十里止宿于鉄山府使李奎成
龜城府使吳伯周魚川察訪金壽益來謁
十三日丙子晴平明發行朝飯于宣川府使申燦寧邊
府使李文海龜城府使吳伯周清江萬戶吳瑞來謁
朝飯後行甲里秣馬于郭山郡守李世俊殷山郡守
柳行三順川郡守柳胤興來謁行三十里止宿于定州
郭山郡守李世俊魚川察訪金壽益來謁
十四日丁丑朝晴暮雨平明發行七十里歷覽納清亭

已卯十一月二十五日渡江啓聞

副文

臣等一行本月十九日到義州府方物歲幣改封
裝後整頓人馬二十五日 時量仍為渡江為白在果
方物元刷馬一百四駄内白綿紙所載八十駄段依
近例一隻除出十卷改為作駄則加把刷馬十六匹
是白子旂鷹高道長水驛奴連上馬病斃是白子等以
平安道大同驛子李秀發馬一匹代把入去是
白子旂元盤纏丁銀一百二十兩別盤纏丁銀九十
六兩彼中所用丁銀三百兩依例自運餉賚去是白
子旂歲幣領去蒙學之則直長朴東說自本月二十二

日重得傷寒，彌留累日，證情極重，萬無進前之勢。

是白乎等以同朴東說不得已，落後緣由，并以馳啓。

為白乎等以同朴東說不得已落後緣由并以馳啓
二十七日入柵狀終

臣等一行本月二十五日渡江，事終已馳啓。為白有在果二十六日晚頭到金石山，先送清譯李成夏言于鳳城。是白遣臣等追後發行，二十七日巳時量到柵門。則李成夏回還言內，皇太子以政獵事出來，瀋陽之故鳳城、胡城將方往其處，未及回還。乙仍于甲軍整頓出來之際，似致遲延。是如白乎等以臣等移時遲待，是白如乎當日。時量主客司一人、章京七人、通官二人、迎送官二人。

博氏一人始為出來為白有去乙依例饋酒分給禮單為
白遣方物歲幣及負役人馬一、照數點入後仍為入柵
是白乎旅次上通事前奉事朴東禹渡江之後重得瘡
腫證情甚重勢難前進是白乎等以不得已落後緣
由并以馳 啓

十二月初七日瀋陽伏啓

臣等一行前月二十七日入柵緣由緣已馳啓為白有
在黑本月初五日良中得達于瀋陽歲幣元數
二百四十五包內紅綿紬綠綿紬各一百匹白綿紬
二百匹生木二千匹大好紙五千張小好紙四萬

張青黍皮二十張粘米六石合穀百三石段仍彼
中分付留置于瀋陽是白遺其餘一百零八石米一
百六十二石及方物元穀二百三十八石段一石照
穀傳授于瀋陽押車將以為運去北京之地為
白在果今番段該部恐味甚於前日必欲執頃生
梗大小好紙段置逐卷計其張數是白子等以日
勢自至昏黑其他各樣物種羽立朝始為呈納僅
至於無事之境為白有在果方物卜駮照穀入置
於密院之篋白綿紙一隻終無去處臣等不勝驚
駭即為嚴問于刷馬駮人等處則義州駮人莫克

伊招內其天載未白綿紙一隻乙義州駝人天立為
名者無端奪去是白字矣渠以年少之兒強弱不
敵未免見奪是如是白字等以同天立推問對下
則其矣招內果為奪取傳給於雇車人鳳城居劉
哥處以木花四祿相約買賣是如是白字等以同雇車
人劉哥跟尋幸未使之面質則抵死牢諱終不吐宗
為白卧字所渠既寡弱我國之人終不直招能不如
變欲呈下於此地衙門而近來彼人輩受賂徇私
罔有紀極是如能不如喻同柳哥者以章京之親屬頗
有權力於彼中是如為白卧字所萬無明查覈宗之

理是白乎祿若或因此查覈挽留一行則尤至於狼狽之境必不喻及其對下之時如或見屈則亦無因此生梗之患是如為白遣責來補紙之數至於九十五卷之多添補所失之紙尚有餘數是白乎等以不得已姑不呈下仍為進為白在果近來刷馬駟等偷竊方物中紙卷木匠之契無歲無之而至於偷取一隻私相買賣之狀尤極痛駭若不依法科罪則其流之契有不可勝言是白乎等以同天立及各人等並為著枷押送于義州府以俟朝廷處分是白乎祿方物領來負譯等段不能

檢勅之罪在所難免並為從重決棍為白有在果
方物領將及色吏設置及其見偷之後亦不登時
未告辜極可駭是白子等以並為刑推以為徵後之
地是白子於臣等亦難免不察之失不勝惶恐是
白子於各人等招辭並為封送于義州府以為憑
閱之地為白子於傳聞道路之言皇帝以畋獵事出
往於味乙口東北境三百里之地時未回還是如為白
子於皇太子則未到瀋陽留徑回箇日初二日良
中還為入京是如為白子於次上通志于朴東禹既
已仍病落後是白子等以其矣所授內局貿易銀

貨 兩清澤吳允彬處送授使之賀來為白字
詠書狀官臣俞命雄所騎金羅道參禮驛馬蹇
足乙仍于義州副馬一匹代把入去緣由并以馳啓

庚辰二月二十一日到山海關狀啓

臣等一行上年十月初五日到瀋陽事段既已馳啓為白
有在果同月十七日到山海關守門章京及稅官等聞坐
路傍方物歲幣及一行人馬十馱照數點入比前苛察是白
予茲同月二十六日得達于北京城外東岳廟則通官文奉
先等預為等待以為今日內呈納表咨文亦為白去乙仍為
入城進往禮部呈納文書則漢尚書杜璠來到照數傳受為

白字旆王河館段大鼻獫子方為來接前日留接舉場段
二月將有設場之舉是如不為許接而留置于西長安門外
督捕司所謂督捕司即明朝行人司是白字等以假借舊時
名號有此接置是白字旆同月二十八日良中通官文奉先
來言正朝太平宴段依例權傳只行朝參禮臣等一行
當行演禮是如為白去乙翌朝進往鴻臚寺行禮是白字
旆今年正月初一日往闕中行朝參禮而臣某段白皇帝招
入殿內別無酬酢說詠是白字旆二十五日行常參禮為白字
旆二十四日因白皇帝特旨謝恩方物盡數蠲減而因禮部
多事于二十日始得白字納而方物歲幣木綿紙地皮物等物等

種俱為品第是如為白如可終得無事誠為多幸是白乎
臣等所住督捕司欲為改建是如使之移接于玉河館是
白去乙初六日移住初九日行回送下馬宴仍為領賞
初十日行上馬宴十二日咨文始為來到十三日自北京離
發二十日到山海關軍官吳相良林惟誠譯官吳相采等
先為出送為白乎竊聞見條件詳在於別單中是白置臣
等一行段開月旬望間似當還渡江緣由所以馳啓
一白皇帝開印定於正月十七日是白在如中十九日良中表
咨文公事自禮部送于內閣二十日良中自內閣始為入
奏而禮部以照數查收之意循例覆奏為白有如乎

二十四日良特中以上日為除謝恩方物旨中有曰朝鮮人民被風飄流朕一體軫恤
令回本國這謝恩貢物不必嗣後因此等事奏謝著停
其進貢禮物云故禮部提督及通官等皆以為此是無前
之特恩是如為白臥乎所蓋於曾前雖或有減除方物之
事是白良置必於寬宥事謝恩之時自該部援例稟告
然後方為省減而至於不待該部之請旨特為蠲減曾所
未有訖不喻嗣後著傳之語亦出於曲軫之意今後則深
海潛越人等出送之後可無謝恩之事是如為白臥乎所
其所省獎亦且不賞誠為多幸口是白齊
一臣等一行上年十二月十五日行到東關道中逢著近于甲寅

問之則皇太子以畋獵率出來瀋陽時錦州衛城將率
甲軍四百名易州衛城將率五百名廣寧衛城將率一百
名迎候于瀋陽陪往山海關為白有如可落後還來是如言說為白字
一今正月初六日良中次通官崔大保來言於首譯輩是白字
矣皇太子求我國藥參甚切今若覓副則前頭亦必有顧
護之事不可不覓送是如為白去乙臣等使首譯答以
我國禁令至嚴行中元無賚來之事必比不喻外國陪
臣不當以微廷有所私獻是如措辭答送為白有如于翌朝
又來館中強迫象舌輩是白去乙象舌輩又以臣等昨日之
言有所防塞則渠直來到于臣等齊會之處強請不已

是白字矣臣等以決難覓副之意嚴辭峻斥終始堅執則渠亦終不敢強迫仍為退出為白有齊

一正月十二日良中大通官及次通官崔太保等以為每年六鎮開市之時我國接待極其涼薄自今以後無如前日宜當歸報朝廷分付夏通亦言說是白去乙臣等使首譯等答以館穀之禮自有約條約條之外決不可容易變通是如云則答以非謂大段夏通至於循例供饋之節漸不如前或可申飭是如為白齊

一大鼻捷子自歲前留住于玉河館還歸虜耳是如為白字
弥蒙古段置留住日久是如為白字矣前後朝叅之時俱無

進叅之事是也予聞其只以買賣而不為歸順之狀可以推知是白字夫向其曲折於通官輩則以為彼皆無識不少深責是如為白臥字所亦可見其遁辭是白字孫公主父皆嫁與於蒙古諸王而蒙古地方居處飲食迨不可堪是白字等以公主等於其歸觀之時輒皆涕泣哀訴是如為白臥字所其姦為羈縻而不得駕馭之狀亦可推知是白齊一正月初八日次通官金士傑來言于譯官曰前頭似當有頒勅之舉蓋皇太后今年六十歲當有上尊號之禮妃嬪中亦當有封白皇后之舉此二款應為頒赦是如為白如予十日良中更為來言曰考諸大明會典則上尊號

之禮周甲之歲方可為之封皇后之舉亦未定勅使出
去遲速姑未得預料是如為白齋

一正月初七日初昏大通官次通等來到館門外使之即速
閉門而守門甲軍等趁未閉鎖則通官等親自撞破鎖鑰
入來館中急求乾柿紅鉛甘藿等種是白去乙問其來索
之由則答以不必詳問若見吾等蒼黃之舉則可以揣
知是如為白字旆且曰當送于二十餘里之地是如為
白臥字所意者皇帝在海子有此覓去是白字矣乾柿則
行中所儲無多不得出給是白遣只給紅鉛甘藿等物
則大通官朴得一親自封裹仍為賫往為白有齋

一皇帝上年三月出往海子同月二十五日還宮正月初三日又
為出往初十日皇帝聞其叔母巴林公主病重之奇即為
還宮巴林公主喪出之後旋又出往是如為白卧子所蓋於
海子設置長春苑且設十三省物產及珍玩之物無不備具
是如為白多弥皇太后皇太子及諸後宮亦皆隨往，未
無常是如為白多弥同月二十九日良中白皇帝及白皇太后
皇太子諸妃嬪出往通州江乘舡下流轉向東南間水路
二百餘里霸州地方仍為打圍遊翫之計是如為白卧子
所似聞蘇辛湖水汎濫民田多被損傷出給累萬兩財力
籌糧糧防已仍于今番之行非直遊觀無欲審視工役是如言說

為白齊

一行中負役等緊要文書求得是白有在新刻大清統一
地畝一張廣東叛逆勒捕奏本二張通州中南倉失火
奏本一張格·公主自縊說話一張合五張段軍官林
惟誠購得為白有旆差遣狄願審視六籍說話一張段
譯官李慶和購得為白多旆吏部侍郎陶請市米穀奏
本二張及塘報十二卷段軍官卞爾昌購得為白有旆
京報一百一十卷段譯官吳相采購得為白有置文
書段臣等越江後封進討料為白齊
臣等一行入來鳳城之日護行章京及甲軍等隨京

苛刻必欲生梗以為覓賂之計使价之行漸有難支之勢實為可悶是白如孚及到玉河館之日老除通官朴萬石來見負役等是白去乙譯官金益萃卞甫璫等於酬酢之際偶及鳳城候督之由是白遣且言史冊外書籍禁斷本非當初約條昨年鳳城之執頃可謂已甚是如云則朴萬石以為此言誠是鳳城之人阻撓此極則外國之人其何以支堪予吾於禮部堂上有連姻者吾當往言使之申飭約卷是如為白如孚其後萬石使文奉先傳言于益萃等曰言及于禮部堂上則將有分付鳳城之事不可無報謝之物必須備給亦為白去乙

金之血華等以為若然則幸矣而行中無責來之物固難覓副是如云、則文奉先欲為生色逐日來向說不喻禮部郎中佟寶吳世巴等乙率來館中招譯舌輩言說于提督通官齊坐之處曰鳳城人勿為阻撓事既已停當方為成出文書送于鳳城是如為白卧乎所似聞禮部清尚書席爾達出守泗川清侍郎楊舒專管禮部之事所謂楊舒即朴禹石之姪親故果能周旋是如為白去乎昨年鳳城之主梗專由於甲軍等之阻撓而禮部之不為深責據此可知是白乎旆約奈外混禁似係日後無窮之弊因此開端申明約條未為不可若或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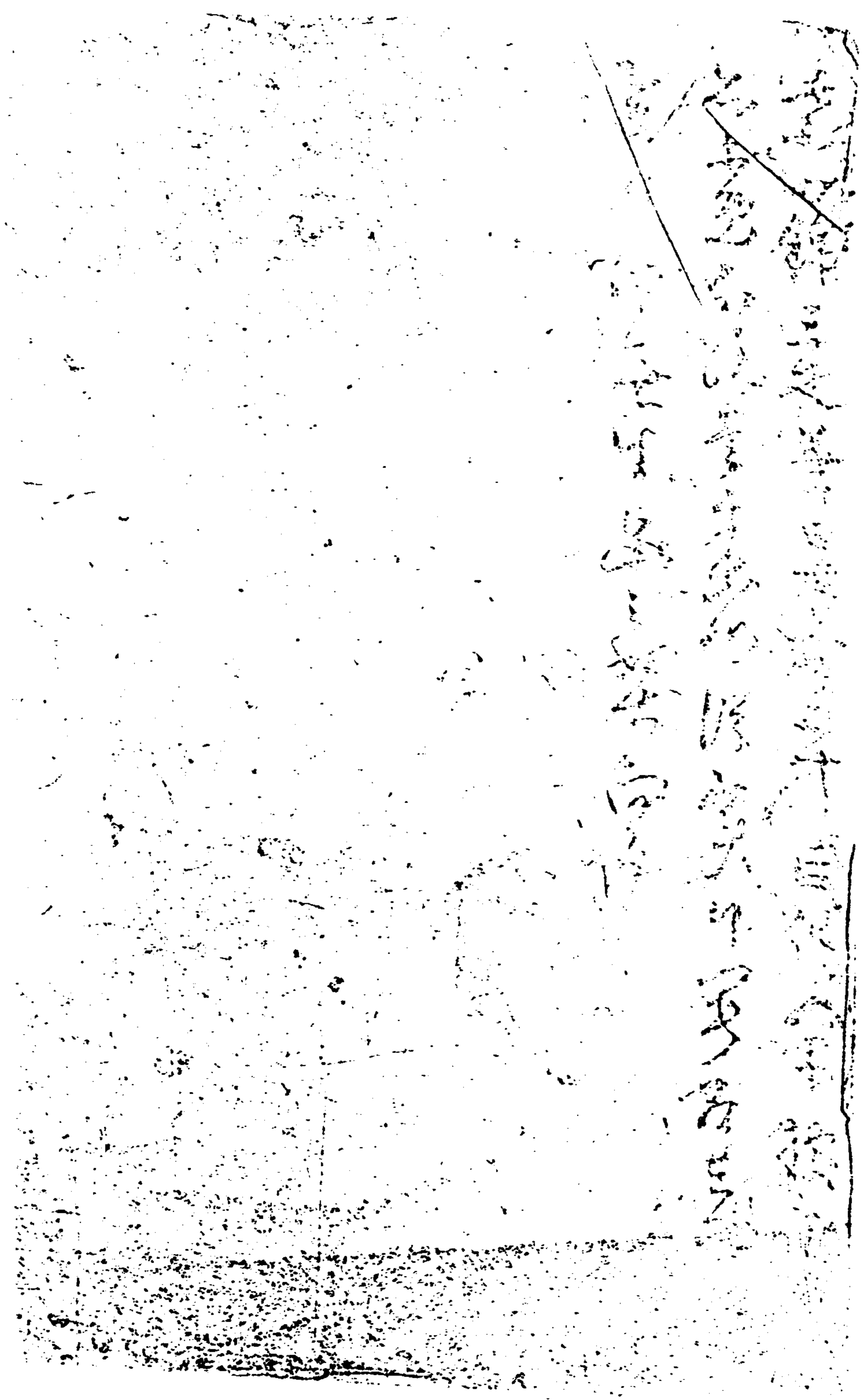
此機會則亦不無後時之慮是白子矣此地之事毋論
大少緊款必以逐事索賂為能事是白去子不但贈物
難以辦出渠輩所言亦不能准信為白有如子十一日良
中文奉先手持抵鳳城禮部公文招示益輩等曰公文
既已成來是如為白去乙使清譯李成夏吳尚賚吳允
彬等翻譯則果是史書外勿為攔阻之語是白遣又使
文奉先騰來漢書公文則措語一揉是白去子既已成事
之後則亦不可防塞其求索是白子亦蠲減白綿紙既因
該曹公事分給負譯輩發賣是白在中除出該曹應納
之數則其所剩餘亦過於求索之數是白子等以分付于首

譯等以其該曹定價外若干利息參酌除出，給奉先等以為嗣後申飭之地為白有臥字所從今以往則鳳城人作架之契或可以少除一分是白齊

還渡江狀 啓

臣等一行二月二十一日到山海關軍官林維誠吳尚良葉持狀啓先為出送為白有在果三月初九日到鳳凰城初十日出柵而禮部有申飭公文是白字等以別無檢驗等察示之事十一日酉時量無事還渡江為白有於彼中所用白運餉賣去丁銀三百兩照數還授于義州府為白字等蠲減油苧皮物段產授上通事使之存車呈納于

為白遣回還禮單亦為逢授上通事持去為白遣於往時
之際驛人馬無一致罷此則多幸是白字矣譯官李慶
和所騎忠清道成歡驛從驛馬到十三山察院見失為白字
旅醫商負金挺夏內向貿易銀包入去時到豐潤縣
察院見偷是如乙仍于以其矣所賣者分付買去
是白字旅公家貿易及負役卜駝未及齊到是白字
所城將等以為負役則不可不更來眼同照點是如
言說白字等以負役等段依近例落後是白字旅
行中購得文書並八張塘報十卷章報一百一十日
封進總由并以為先馳放



燕行日記
單

燕行日記

初二日晴食後訪副使閑話

初三日晴食後訪副使閑話金裕門云皇帝明日當往原明院原明院即暢春苑滿牆云胡人云皇帝為

觀戲子率寵姬而去其還早晚有未可知云云

初四日陰

初五日陰風晴上使來話李世倭來獻白糖一小匣云此是皇帝所喫之物而通官得來云云而味却不
好聞通官輩多諸王家奴子勅使回還後通官輩所得其主盡奪之云

初六日晴聞昨日正陽門外火起燒百餘家皆是舖舍故所燒之財甚鉅云

初七日晴

初八日晴喫羊肝鱸味似牛肝而好却無臊臭

初九日晴食後訪副使夕食後三使坐椅庭中月色

甚朗

初十日晴副使來話夕起金裕門來云鄭世泰之子入送碧桃兩盆文丹花一盆分納於三使上副使占碧桃而留文丹於此處

十一日陰食後同上副使坐椅階上見胡人幻術設

床於庭中置紅袱於其上立於其前以錦紅囊置於
床邊藏小小器械於其中所謂器械不過數十片狹
剪紅黃小木瓢小革數介而已作何許語以兩手翻
揮以剪紅紙片片裂破入於其口嚼之良久始以手
引出而紅黃青色紙十許条捲而齊出如吞之吐絲
其長皆數尺許又吞數十針而並絲吞之須臾引絲
出之針盡貫於絲而出其他幻術皆類此明是欺人
而諸人不能覺所以見欺之端

十二日曉雪訪副使閑話

十三日晴食後訪副使金裕門持來花冠以銀金粧

成價三十兩云此處漢人宰相家或有之云夕食後
同上副使庭中步話仍坐椅階上月色甚明四面發
刁刀之聲令人意思不佳是日掛開市榜鄭世泰之
子及他胡為賣買出入館中者皆分多少納稅於官
家及提督以下諸員云

十四日晴訪副使夕同兩使坐椅階上夜久罷宿

十五日晴副使來訪要與觀吐月山走馬臺余病僅
難之甚強之俱訪上使約同作三使及軍官金

高應斗李春金遇兌俞命得譯官金裕門諸人行循
東安門宮牆北向行隨宮牆北折而西向行有大石

橋、下水頰大入宮牆底似是玉河上流由地安門
二層五門兩狹開門內為通衢大路始望見萬歲山
是造成高處似不下於我國八角亭鞞峴等山雜木
離立而頰蕭疎亦無松柏之屬亦無老大之株環山
而周以高牆間有累石成臺而置彩閣於其上丹棟
黃瓦令人眼眩北牆內有丹青之閣跨阜而聳然者
金裕門云此閣傳云是壽皇亭而懷宗皇帝自縊處
云矣自地安門南向而行至牆底折而向西行大路
通東西似是往來東安門之大街也隨牆而又折而
南向行又穿街西向行出門小門度大石橋北顧丹

樓彩閣羅絡於洲島之間問之乃五龍亭云水自橋
下通於五龍亭橋之中央虹霓水門却以長板鋪架成
橋前後以鐵金環維之皇帝乘龍舟沿河而上連于
五龍亭鋪板板而行舟云不但此橋城內他橋亦用
此制以通御舟云東西隄列短柵防壞其外柳株列
植綠堤上下皆如此前望小峯穹然所謂白塔峩々
於其上頭循山址設木箭而朱漆綠柵外而南有大
石碑獲立龜頭極壯聞辛亥地動舊塔頽落故即改
造云似是紀事碑也白塔之南有小刹前面累墨黑
色大塊石如造石假山而其端築短牆以黃瓦覆之

是為寺之南階。羣胡充斥於寺之內。外今日是望日。為焚香而來云。寺之南崖而入寺中。結構精緻。而却由狹小。黃衣黃抹首。蒙古僧守之。使金裕門語之。要上白塔。則數日後若更來。則當許之。而今日則胡人來觀者多。不可許之云。寺庭中植兩旗竹。大如材木。而高可四五丈。以唐紅漆之。白塔高可十餘丈。下面設三層臺。中間則狀如正形。上安金頂。前而以金字刻字。而不卞字樣。似是清書。由塔之內而緣梯而上。至于頂。云出寺之南門。倚短牆而周覽地勢。頗峻。東南西三面俯瞰。無礙萬歲山。四無依附。無耒厯。始覺野

中造成此山外宮牆之內而內宮牆之外如我國咸
春苑之屬而以都城論之則山處中央而以宮闕論
之在於北隅為宮城之鎮山下宮闕盤鬱遠見似各
成一屋不似連絡繚繞宮室之上黃色爛眩於空裡
屋皆黃瓦而然其中益頂而狀如雨傘閣之屋皆是
皇帝寢室自太和殿至正陽門一串序立而大清門
以無門棲之故稍低隱映於樹間矣宮闕之外周以
內宮牆而附牆周以倉廩倉廩之外周以濠水云遠
見只見內宮牆而馬徒輩皆如此言之西望大山橫
列如屏縹碧浮空間之則此乃西山距皇城為四十

里暢春原明等同在於此山之下所謂河在於其
外四日程云西山之水自西而流通、州江水屈曲
縈回一派北入而為五龍亭橋底設閘儲水以時蓄
洩故無汎濫沈沒之患云用力不及都城處而眼
底閭閻樸地鬱、鱗、而無一草屋壯哉白塔之山
亦如萬歲山造成之山、下洲渚左右柳林成行六
七月之間花盛開香聞遠近光景殊異可想也外
城只一匝而正陽門外退二十里築城環之而南有
門云間都城內回六十里云而無一空閑之土以
戶數言之當數倍於我國都城而以眼界言之範圍

之大幾倍於我國都城矣。少訖下寺門而南渡大石橋。此卽通西山水之火橋。之南有大刹如闕而其墻間以銀大釘鉤連於等軌之間。又西渡大石橋之西三牌樓而金題金鰲二字出此門。大路坦然西望有門問之則乃西安門云。穿街越巷到吐月山。黑石堆積如白塔。南面其上有青瓦傑閣四望通達。山之南有所謂走馬臺。以軌圓等三層臺。不甚高廣。吐月山及走馬臺。胡人男女全集如市。此是胡人遊觀處。而今日是上元。故尤多來者。云賣餅果之胡甚多。升降石滑路。及易致顛仆。由西安門而出。此門對東安而設。

者中間大門開之兩狹門開之而門制不為虹霓如我國鼓化等門更思之東安東長安等門亦當如此門之制矣白塔以南西安以內多大刹丹雘間架幾如兩宮闕者不知其數多皇帝願堂云都城之內坊坊曲曲寺刹與閭家錯雜幾三分之一恠哉自西安門外循宮牆而行過西長安門外南折而又東折過正陽門內太清門無門樓而三門皆閉以立石而貫以石如木柵樣自門東西列樹至于正陽門內而環之其內鋪甃柵內可為百餘間柵之東西折而開路於門前路之左右以朱漆木柵列樹石柵之南即正

陽門而其間不過數間正陽門而門樓為三層而開
虹霓一大門甕城遮之出門而由甕城之東西門行
人通焉東西三城門外只有甕城而此門外甕城
外又有城云市肆閭閻之盛甲於皇都云過正陽門
而北折而行又南折而行路上有牌樓書 上使
入一層門即孽於金所館列坐外屋階上息憊前日
相見之大鼻出來見之甚有喜色延入其內炕連
勸酒茶各三盃副使勸所持薊州酒大鼻飲之稱好
其酒烈而色紅味似甘有香氣余連飲四觥其觥似
木鍾子而似石有斑駁三盃盛於一小雕刻木盤渠

手自就奉於三使前。余輩執盃時，渠稍低頭為禮。渠持喫金卜廣魚等屬，而祿好渠以小方面石鏡及一小銀錢刻人物者及小小錢片六七筒及剪錦小篋刀各一箇獻三使前。上使許，又加納一煙竹，兼似胡竹而間竹烏漆，未知何業。木渠手持一小金色鎖金狀如環而上頭刻人面，極精妙，其開全以鐵為之，而極奇妙。渠開閉而示之，副使持觀，而祿好給其侄萬才而目而藏去，其胡挽留甚懇，而以日暮罷出，送之。中門外各以小錢錢片及剪錦篋刀分給於金，益譙及鄭益良諸人。金裕門不善通語，渠不能通其意，而有鬱

鬱之色渠云異國之人數次逢見豈非幸乎云、出門東向而行有牌門書以敷文北折由玉河橋東隄而行渠水鮮凍鳧鴨泛、水濶如我國廣通橋而深則不可知兩隄列樹短木如柵以防壞西有大瓦家云是親王家而屋制頗大而地似狹窄矣見玉河橋墻邊無蒙古一人似撤去而然矣過東安門村巷而人大路北邊牌門書永明由此門而入觀隆福寺以今思之最初入來時作路此路而歷寶月牌門而抵館所隆福寺結構壯麗而間架不及於東嶽廟入觀正堂左右皆立大金佛數十軀而後而亦安金佛此他

寺所無也守寺黃衣蒙僧索清心丸不即開云堂門
余輩排門而入觀蒙僧頓足叫噪渠云此皇帝願堂
皇帝若知他國人之入觀則渠輩當死云々矣須臾
出來寺庭多有架葦屋之器械以九十日開塲市於
此處而萬貨充物人物駢闐云葦屋開市時列貨云
矣歸路歷入花鋪門內土藏花盆云而以主胡之
出他不得開見云有鸚鵡於鋪內故使之持來觀之
則色玄而與鳩無異矣無別般可觀即出來由寶月
牌門而還館所夕餼三使坐橋階上望月天無點雲
月光如鏡而上於前中門之上少話而罷宿夜頗渴

喫柑三箇路見臂鷹而去者以皮作小囊鞞鷹眼
云是新調者矣

十六日晴夜風憊甚晏起上副使送紙扇乾魚之屬
於大鼻謝其昨日款待之意余亦送杜紙二束各色
扇五倭綾花十張銀子二使籠馬頭三俊送之馬頭
還言渠極感謝給二石鏡火鏡小鏡十箇云副使
來話其馬徒水萬未言大鼻稱謝之意仍納黑皮匣
石鏡以珠各數十貫於鐵絲列插於前匣之上

渠鏡品極佳首譯李世俊來獻白砂盆一三
樹粉紅花之類躑躅而淡白云通官朴長柱持納三

使前以為消日云夕餘副使又來過同步庭中坐椅
階上風冷卽歸宿昨日與大鼻樁子相見時一年少
大鼻入來却剃頭如胡漢使金裕門問之云渠之風
俗生人則剃頭文士及讀書之人不為削髮云其庭
中天柱堂更見之其制為十字閣北面設琉璃大窓
五處

十七日晴間落後譯官申好沈之私持馬斃訪副使
閑話

十八日晴副使來話副房馬徒俊元以下銀五十兩
買來御乘馬於二王家色白而絕大

十九日晴同副使訪上使上使晬辰云

二十日陰晴會上房首譯李世汲等具饌於鄭世泰子之家入餉上使橙子味極佳甘液勝於他柑其他肉品皆以猪肉造成羊肉色味似牛肉而初喫頗有臊臭果品皆絕佳如沙果紫馬乳皆如新摘還勝於我國大棗剥皮肉肥如少餅是南方所產云魚亦無可喫者不但品皆不好盡是生面故尤不好喫

二十一日陰晴朝夕餘後同上副使坐椅於正堂階上日以為常觀馬步打閑話良久還房余要得好品輪着遍言于諸譯輩皆無皂白李燦向得一箇好品

不好故還給之李世倣獻一木罽而類似好品云得
之於金寶柱云給僧頭一別扇二使之轉給寶柱
二十一日小雪晴夜風首譯呼入幻術胡其胡以瓦
盞置數十尺竿頭立其竿於掌中竿上之盞急旋如
坂丸又以三刀擲空獲手迭受手勢捷疾不可下識
又以無刃長尺許之劍插入口中至於沒劍柄而已
譯輩言聞胡人之言此非幻術乃積工而然口中納
劍時赤脫而納之分明入口中誠是理外可恠々々
金裕門來言今日卯時開印云胡人之法去臘念間
封印歲後念間開之其間諸司廢事云

二十三日晴首譯李世倂言使行咨文今日始自禮部移送內閣而以咨文中多如殺字犯字故當過今朔後開印後過三日後始入奏皇帝
國之法歲暮月忌文書中殺刑等字云矣
二十四日晴上使使倂元輩連買胡馬而來馬價至賤步好之馬多不過數十兩銀騾驢之價極高中下品之騾價不下三四十兩稍大之驢亦不數十兩可異以此行中買馬者甚多云李世倂云前則使行雖買馬自外密求牽入於館中者數年之間始有之可見此處紀綱之日頽矣

二十五日晴同上副使爲觀大學出門副使驛新買
之長余亦騎崔始大館夫盧胡長耳自門前向北行
一里許去北都門不遠東折而入少許有牌門書扁國
子監以丹棊木自正門環立成巷由西邊狹門入去東
折而入持敬門門內卽殿外庭也庭頻廣濶側栢如
織東西各有行閣東行閣扁以神厨宰牲司閣中有井
庭之四面列樹栢目碑上頭皆書某年取第一甲姓名
等幾人其數或三百四十人第一甲賜及第出身第二甲
賜進士出身第三甲賜同進士出身云、其數或三百餘
人或二百餘人或百餘人或四五十人不一其規皆列刻

泰壇之姓名殿門扁以廟門門凡三間而非兩層之制而階上環以石欄而為石欄之路制亦如太和殿階與上副具黑團領使首譯李世倭言于其守廟之胡世倭還言持敬門北邊有守廟胡所處之屋而只三胡踞於坑上許使臣之入觀云々遂使世倭言于在傍之胡教三胡索紙扇清丸命給之猶加索不開紙扇持去之物甚少無以充給將欲回還之際持鑰匙之胡遂開之門卽正三門西階下狹門趨進正殿階西邊再拜殿二層九間之制而中三間類大正路右欄之制一如太和殿扁以先師廟庭之東西側栢數十株對植皆老大

連抱而無他木路西立三碑閣東立四碑閣而皆高
此閣中立龜頭碑石而高可數丈廣可六七尺而柱間
環以丹木箭故不得入觀不知所刻云何正殿之左
右連以側屋如東嶽廟之屋仍周遭以行閣自簷內周
行之路間設小虹霓門而內外正門及他門皆不用
虹霓而由正殿東階上巡簷而北折又却南折而入
小狹門入殿內棟柱之高壯無比鋪棕安席北壁下
南向架雕屋如我國大明殿內圍以金紅段帳前而
開之內安紅木牌而以金字書至聖先師孔子之位
西卓上安復聖顏子之牌亞聖孟子之牌東卓上安

宗聖曾子之牌述聖子思之牌其前置小鐵爐其後
面左右列安從祀諸賢而未能奉審孔子位牌前梁
間以金大字東邊書生民未有中央書萬世師表西
邊書與天地參以金書字紅板綠飾全刻東邊書下
着雍正御書中間着康熙圖書西邊着乾隆圖書康
熙書近蜀法似我朝 肅廟御筆雍正乾隆書皆生
硬無可觀殿宇極其崇嚴而雜胡欄入吸烟竹唾涎
於殿內尚忍言哉門及殿閣皆用唐紅及真青黃金
為丹青燦爛畫出殿東狹所由入之門由西階下升
正門內西邊間所謂石鼓如中石白而上面頗剝

落石理簾劣而四面刻篆字而不可卞識又以板刻
周宣石鼓文而忙不能細觀門有三階路如外而所
見而中間左右列立丹棊長木各九介上頭插金尖
如鎗而制樣頗怪不可認勿論殿內外余輩行處雜
胡充斥惡臭不可近間有抱兒之胡女胡亦隨入良
足寒心正殿及正門皆覆以黃瓦諸閣上與下皆黃
瓦中間青瓦似黃瓦最貴而然矣出自持敬門由去
路向南行一里許東折而入順天府鄉校兩官胡正
堂坐椅羣胡分立於階上習樂其所持樂器彷彿我
國樂聲亦近似而稍低弱東邊六人西邊十一人執

丹漆竹木如十字物為回旋提舞之狀却整齊不亂
官胡吸烟竹時、下椅步於輓上使首譯李世佶問
之則習樂之類乃我國樂工之類非儒生而習釋奠
時樂云矣其所持樂器使之持耒則皆持耒示之所
謂笙聚束小烏竹如針銅樣而竹之穿孔使之唱之
其聲清越可聽笛則聲低不如我國之聲笛丹漆而
兩頭飾以金他樂器皆丹漆或玄漆而皆精好而飾
金者多矣胡房即順天府地故亦有府學校云正堂
扁以明倫堂文丞相廟在於學之東邊由小中門入
數間瓦屋安塑像再拜卓前丞相之容面短小而似

端妙下髯長而上唇甚短欠魁厚氣矣塵埃滿屋且有村女擔砧之具想薄待之極令人感慨還館中日才午矣城內大坊曲則洞口例建牌門不但十字街為然路上望見西北間有層閣聳空問之則乃十字閣云而十閣却在一隅未可知也以經過處言之城中絕無一間草屋皆渠、瓦屋壯哉首譯李世役來言劉萬權云咨文入奏、數日今明當下之而皇帝見有刑殺字文書例流涕執之許久不下是可慮也仍發笑金寶柱云此文書刑殺等事既係皇帝已知之事何必每每執之而泣乎仍發笑云

二十六日陰副使得嵩書石許多箇而皆好品其中
一箇小石持來萬載來言殿石四箇索價五十四兩
當還給云可見胡慾之無厭也即還之

二十七日細雨食後同上副使往觀五龍亭由館前
大路北行一里許西折而循宮北墻入地安門門即
一層五間之制而東西末間為坑而守胡處之三門而
不為虹霓之制由門內北城下西向行南轉而入五龍
亭北小門地勢南臨大池通官朴哥先入開宮門門
即板門而上用紅箭門之制門傍皆朱漆板墻又入
板門南正門如牌樓之制而兩石柱高出堦上門之

左右壁皆以黃青磁土刻花甚奇以上石面刻壽壽昌
二字庭之左右有竹田而不過數間正門之庭北有
甃級而左右無石欄級盡又有正門正相對而如天
安午門之制由西狹門入去至于宮後牆內禁內不
鋪甃不甚廣濶雜植果木頗踈庭之東西有葡萄架
而甚短低牆外則卽外城內空閑之地而牆內無園
阜籠鬱之趨牆皆覆以黑瓦由後殿內周覽殿屋殿
屋重複結構皆精廉而却不壯高中間一堂以鈐
瓦蓋之牆亦以鈐瓦亦覆之守胡開戶示之入其中
觀之以間教諭之則似不過十間而前而構屋如無

薨之制而如閔王廟前而屋其設窓鋪氈槩如常胡之家而板子皆小欄以塗以白唐紙四面皆設丹窓北邊中央作小屋如房帳之制而柱與四面都里皆以瀟湘斑竹裹之左右及後面設窓而窓制甚奇塗以唐白色紙中設一小坑而鋪白氈窓飾皆以鐵為之前面似垂帳故不設窓房之左右窓外各設一坑似胡皇侍人所宿處亦鋪白氈皆蠹蝕年久之物氈之底以篔簹鋪之其底氈上以灰塗之無塗紙可謂儉矣帳屋大一間之制而制度極高妙鮮楚出而之他堂其制亦如此屋而屋之東邊南窓下設紙屋如竹屋

之狀而高極於 而開而於南窓之下故同面墻
屋頗大而西邊障以戶守胡云皇后病危則移置於
此紙屋中死則出置於戶外甑上云矣出而又觀他
屋而皆同制度或有花木植盆石榴以土裹根而置
諸坑上一門內有低屋四五間而以松瓦覆之不施
丹雘制樣極淨楚其門外置大紅床云是皇帝廚房
如桃李梨之屬庭之去甑一尺而植之皆整高不亂
大抵皆果木之屬而無老樹亦無階層花卉大抵此
屋比宮闕不甚高壯而結構精妙金碧輝煌而丹青
年久稍渝所謂五龍亭皆兩層雨傘閣之制而皆列

置於壽昌門外池水邊南向金華通觀內屋由入去
之門出來休於池邊池邊有朱床云是鈞臺云見東
邊一閣以石築池渚而造閣於其上而閣內制樣不
能見池水如湖水圍以老柳渚邊無防築事而多蒲
葦之根東邊上有彩閣所謂龍舟藏於閣下云鳧鴨
泛泛白塔當前萬歲山橫立於東南邊白塔前大石
橋亘跨水上景色廣潤有波澤之勝而葦無山林幽
淨之趣矣金裕門忽言親王方閱兵於亭之近處
通官云五龍亭不可登後日更來為好云館內日氣
頗暄有春意見宮內花木皆有綴英之意覺春序之

早矣關內花發之時而關外雪積云矣由所來之路還館崔始大以十三兩買館夫盧哥之長可五龍亭內屋之制如太和殿自後堂至壽昌門洞開則如繩之直無有屈曲倚屋東西南北皆整齊對待無一偏倚空缺大抵此處宮室之制雖私家亦如此矣

二十八日晴天清氣朗有春意副使以昨日之行多後人棍上房馬頭命萬上使頗有愠意首譯李世倭言通官金晉柱輩言胡帝昨歲得十九歲美女色可傾國極寵溺皇太后責其沈惑皇帝以此之故不入見其母頗作原明之行挾此姬遊樂之計而避其母

之責言也云：明日當還。蓋來月初二日釋祭，初四日春分祭，故為齋戒，不得已轉還，而過後當即還云矣。此等言公言道之不少，餘忌可恠云。食饌轉益難堪，強進若干朝夕之飯，而元氣漸衰，窓日甚明，使九三拔白髮，右鬚七八莖，左鬚兩莖，下鬚兩莖，右鬚拔四莖，衰折不可禁矣。右鬚髮偏白，氣右邊氣偏虛，而然以右鬚之空觀之，亦可驗矣。寫字官鄭尚禧言：昔年因張判鵬翼所啓，有馬商則禁之，而員譯賀來之馬不禁，下教故其時自備局公事，義州府俾勿禁。故義州開市時，前此禁胡輩之賀來，今則不禁云。

鄭世泰之子嘗言清人禁彘無禁馬之事乃明朝有禁馬之彘云々灰色帽灰色亦係禁物未知何謂也云々近聞某人買馬時所謂收稅官捧稅銀而印紙以給之且鳳城胡馬無告其官生事之事以此觀之尚禱之言似然而未可知矣

二十九日晴訪副使穩話首譯李世役來言咨文已下今番有謝恩方物畧循例下之則禮部當以謝恩方物移準來歲之意責奏達又待此公事之下而今番初批以謝恩方物移準判下該部將無文為奏稟之事極為多幸此似是大通官朴飛阿之力也飛

阿之女方為宮人故以初批如是判下之意言及今
果然矣云々又言通官言來人中有善角觝之人皇
帝欲見之罷姬欲見朝鮮人之故將招入云々以無
之答之罷姬必欲見朝鮮人故將有上使行見之舉
云々

燕京風俗

宮室之制多兩層三層之制一層而三層之制絕無
殿內皆鋪氍而無廳事正門及外城門用虹霓之制
而宮門間有不設虹霓處關內諸殿閣皆待對而設
無偏倚不整畫丹青皆真青黃金唐紅故久而愈絢

爛椽木皆稍細而端直如出一孔每間必十數階級
高峻處絕無太和門築階高一丈升降之路皆以輓
方鋪而亦無高峻處太和殿後有兩金闕制如雨傘
尾有黃尾青尾之別間有上黃尾而下青尾處勿論內
外庭皆鋪輓無一瓦空土而有平鋪方鋪之不同窓戶
則有細箭及刻牡丹之別而或一間四瓦或一間一
瓦皆無戶樞如我國之制如我國箭窓而闕門皆板
門而以黃金鈐加着釘處正路亦鋪輓無築石之事
橋梁闕內則皆石欄石虹門橋前對蹲石獅宮墻以
大輓築之高可三丈覆以黃尾草多生其上以紅灰

塗墻內外四方方正宮墻至東長安東西龍樓如凸
字形兩金閣加金頂宮外墻內有通街閭闔正陽門
為外城。門而其外又周以一城東北西三面都城
只一匝而下南邊兩重城云

五龍亭皇帝居處之所亦設炕無房鋪輒無廳所謂
殿內竹屋亦如此而前面不設窓戶似寢時下帳而
然一間窓戶或有四隻或有一隻而大抵多不加戶
樞似不便於開閉皇帝所居之處底鋪簟席而上施
厚白氈別無花席等物輒上則無所布椽楣間。有
鐵索懸燈之物庭氈之間多有設孔處似是隱溝水

道其北庭又不設甃無石假之屬亦無奇花異花之
列植不可謂之侈靡矣

親王家覆以青瓦及鸞鴛瓦閣家以女瓦蓋屋不敢
覆夫瓦

公廨間有覆黃瓦處如太僕鴻臚寺

都城內路上所見絕無草屋大街大洞口必有牌樓
書街名洞名路之左右市鋪居多

石橋大處皆石柱石虹而以鐵銀釘連石縫

親王家屋雖大而大門則無高柱特大之事

凡作屋無連絡周遭如我國斗字形段之作造不使

連綿宮闕外八雀之制絕無雖大室例以甄上而面
朴宮如倉舍窓戶隨便設置而無裝子塗內外之規
大屋則前而多設廣窓不用樞開則以木撐之牆皆
以甄築之雖私家刻花於甄墻前後而

屋舍無壁藏樓上可以藏置日用之物置大木藏於
坑間以藏物故人無老少上下皆着黑色衣而富則
雖賤胡着錦段

胡人食時置大床於坑下老少各坐椅而圍床隨食
隨盛食饌無如我國人初盛充器之事
胡人逢人無拜揖之事前以執手以示殷勤之意有

致謝之事必叩頭無老少皆踞凳或椅而坐

胡人勿論有職無職無牽馬之事有官胡則其奴持
方席騎馬而隨之

以鐙子下其官爵之高下紅寶石為最貴次珊瑚次
青寶石次水晶次玉所謂官服無高下曾稱武虎文
鶴方席亦有品數豹席最貴

冠帶以膝蘭製如芭蕉葉兩崑掛之於兩肩上以膝
蘭如女裳撲服之於其裏其上着黑色裘如我國肩
巨里狹袖長至膝而着之帶則着之於其裏以外而
見之不知其為着帶如肩巨里之衣似是上衣如我

國道袍之屬膏襜施之於正衣之上中破分屬於兩衿
常時駢馬出外皆着此服袴則甚薄而狹尚容脚着
黑色黃段靴此亦無貴賤別無冠帶所着之履冠帶
時垂念珠於頂上珊瑚以下亦有等數冠帶時所着
之抹首以絨紅絲廣厚覆之加金飾於頂上舍以
珠石如肩巨里之衣着毛貂皮為貴各以其家力不
同所着之靴與履皆黑色黃段或三升無貴賤皆同
無皮鞋皮履芒鞋之屬其底以縷飛為之不用云矣抹
首綠縵則官貴者貂皮其餘各以犍皮羊皮之屬
所謂秀才雖無官而着鍍子

城中閭巷寺觀可居三分之一如東岡隆福寺及宮
關之西邊多大刹黃瓦彩閣金頂可埒皇居白塔石
橋南一刹外圍圓牆而以大鐵鈎丁加之於連甍之
間

胡人之屋多以兩都里對架而無甍之屋五龍亭亦
有此制我國閨王廟亦用此制似是華制

胡人之女工針履底而已無服之事汲水炊飯之
事皆男胡為之

胡人無背負之事以長桑木兩端掛物以肩荷其木
不然則直荷於肩胡人行役其寢具必有荷而行若

無寢具則胡俗以為盜而不許住接云
胡人見尊者以右手據地而一膝跪而以首至地謂
之叩頭不限番數尊者使之止則止之
胡人跪膝謂之拜以首至地謂之叩頭
胡人馬牽者絕無之有牽者則左以長繩牽之而牽
者亦騎馬
胡人無語、訓無尊卑之別只是一般
故人百物必秤衡而以斤兩定價買賣故皆有定價
無臨時高低之事如筆果馬草等物皆秤量云
胡人飲食不服器用皆取之於市無家辦之事

胡人賤蒙古相詬病必稱蒙古一樣

胡女乘太平車其奴之牽者坐於車杠吸竹幾與乘車之女接膝

胡人貴騾而賤馬庸騾之多必多於好馬長耳赤價

高

皇城正陽門外間里甚壯麗左右舖舍所由之戶以全塗眉間令人眼眩如藥舖則百藥充棟如錦舖則錦墨溢宇一舖房所莊之物累鉅萬云

我國佛寺法堂只用丹青而此處則屢百閣行閣皆一樣丹雘所謂丹青非我國之比皆以唐紅泥金二

三青之屬塗之故爛絢照耀

我國則只大闕丹青而此處雖閭家皆丹青我國則只廣通等橋為石欄石橋之制而此處則荒邊如遼野瀋陽皆有大小石橋石欄我國則婦人莖服錦段而此處常胡馬卒皆着錦衣財力之不同不啻

井欄以石開孔莖容汲瓢無墮井之患

城內皆隱溝故路傍無污渠腐臭

胡人之衣無領寒則以毛条緣領胡人之衣無帛条之合繫者皆以單鎖之袷則皆向右

胡女之衣亦與常胡人之同衣履更無分別

胡女之騎驢而去者遠見之裹頭之也似幅也所着
之衣似道布

胡僧以黑狀如木枕而着之所着之甫羅色道布
而頭盡削無辨髮

道士綠髮而削髮望三分之一存髮而斂而上周結
如我國人之上髻而無所着衣則色甫羅而狀如我
國小昌衣

胡女僧削髮如胡僧

胡人勿論貴賤騎馬去馬飲路傍槽水則以錢一分
擲之於槽中胡人於井傍置大木槽或石槽盛水而

待之往來之馬飲之

胡人運水者相續於路或載桶於車以一輪車狀如
輶軒而載四桶於其上一胡自後執兩杠而轉之
蒙古僧例黃衣黃羊毛抹首所謂柳下色亦皇帝所
着而蒙僧着之未可知似是守皇帝願堂故也

二月初一日陰晴食後與副使聯轡而行由大路歷
滕將軍廟東牆內牆外築短牆而周植側柏望見牆
內有黃瓦雨傘閣未知何廟果何廟也巡正陽門南
城底出正陽門甕城由東狹門左右市肆之華麗果
如所聞向來火燒處已有構新屋而方為土役可想

已解凍渡大石橋似城之濠水勢之廣大可泛小水
舟似通。卅江水過橋行一里許東折而作行南望
有遮城都城之制南邊為月字之制者果然矣又北
折行路傍有黑獸而羣胡圍觀副使在前停馬觀之
近而視之則乃馴熊也狀如大犬而毛厚且黑尾細
而短四足亦如火而足節屈處比犬稍長足爪亦稍
長以鐵索繫其頸能人立解胡人語轉身如倡夫胡
人擲六箇木片能以前足把握如人手之執物人行而
事其胡吳譯泰輿給一扇數錢於其胡由所謂海岱
門而入門制為三層閣而甕城。對正門正門上設

門間穴大孔如窓而其數不能數正陽甕城對正門亦如此制未知何制也甕城西有狹門而門外有收稅官所處之屋間載卜物之車皆以此門入稅官數之而收稅云巡南城底與城而北折列觀象臺令吳譯囑守臺之胡開臺扉之鎖臺附築於東城由臺底輒級而上臺高可十許丈輒級北向上而東折上休脚而上可知其高矣臺上又以輒築臺自北而西自西而南高四五尺下樹鐵柱於輒間臺上環樹鐵箭高三四尺如窓之細箭西邊石級所上處以鐵作圓窓形以為開臺之制而其鑄刻之制極為工妙西臺

以錫鑄成天形如大鍾刻銀河及列國分野星宿之名星辰之狀如金 鑄置於大圓機之上如環樣鍾之西底置錫方檣狀如加其金物以鐵貫而連貫於鍾底機之南設栝如戶樞守胡以手轉鍾、隨手而轉不少礙磚其刻畫之妙鑄造之精無可為比余出示於守胡曰此何制也守胡書荅曰此天體也余曰何以只刻星辰而無日月守胡書日月東西二字而以其言縷、書之使吳譯解之則吳譯不能解無奈何南臺有地平日影等錫器五箇而制槩如大環其制不可名狀其所置之機亦皆以錫刻龍獅之形制

極竒巧有小鐵層梯上而觀日影測候種々竒巧小
臺又有一筒書問各樣名目則守胡書云地平等臺
而不能悉對不但制樣竒絕其工力亦非小國所可
成似是明朝舊物而不能知矣是處高峻間於城內
城內且是平野故東西南北如臨碁局壯哉下臺倚
東堞而俯視濠水綠城深澗濠內築倉舍綠城而長
可壯哉濠外倉舍亦彌亘濠外圍以方牆而多側栢
樹云是貴家塚墓守胡自言以江西人來守此臺一
年俸食三十兩三十石米渠之同官為四十數輪回
守臺云臺下北見大牆內中有十字樓北邊有衙屋

而東西若田畝若波濤之狀云是塲屋而一行為百間而其行數妙漫不知為幾間每一間入一儒云余倚臺眺望副使牽之曰何為不緊遠望之不見近處紅粧更視之則臺底有一紅衣女胡而顏不大段相與一笑啜秋露一杯下臺而出來臺下屋藏璿璣玉衡及他側候之物而皆初見之物製樣竒妙以門鎖之故不得詳覽大門書扁觀象臺小折而行少許歷入試屋入門牌門書以侯國泰賢西牌門以明經胡士四面墻皆高峻而覆以荊棘守胡終不許開門乍坐牌門下出來少折而又西上穿街度巷歷入花舖

掘長坑覆以藁子而列置花盆有曾所未見之佛手
花等數種而除外皆凡花矣還館日過午

初二日晴微陰食饌首尾數朔前後一樣胃氣大敗
厭食或甚一日所噉不過數首氣運漸覺備敗副使
來話

初三日晴陰夜洒雨序班輩持三書冊而價粉紙所
印一卷至數三錢大史連紙所印不下八九分比前
太高云矣冊多刊漶落場處故未免手自校訾須覺
瘦神

初四日晴陰訪副使

初五日晴陰日氣過暄無異深春冬夜復覺重鈍而
恐觸感仍着多汗出時訪副使李世役來言領賞文
書入之云十三日間當復路云

初六日晴食後同副上使作行譚官徐慶運補道貫
隨之循內宮牆外過地安門行少許度大石橋：北
有大池，水由橋下入于五龍亭池過宮牆西北隅
而向北行又折而西作出西直門之為三簷二層之
制甕城有對樓層制亦同而外面設穴板戶十二間
三層而下無門此則藏穀云城濠水濶已有舩浮北
向行渡大石橋又西向行傍渠水路北周以甃牆而

建門內種側栢之處鬱、相望是貴家墳墓墳墓或
有望見處狀如大瓮而以灰塗之或累、撲地有似
北印處或有造後山處路南田中衆塚累、如瀋陽
城外所見行五里許過直覺寺或稱五塔寺到萬壽
寺、下有太石橋中間亦以板鋪之水中有兩小船
水自橋南築階石虧瀉出有瀑布聲聞引水而注之
石間云入觀寺內第二門東西內外刻石為窓而宛
如真窓制極竒絕扁以行住坐卧由右挾門入佛堂
坐佛諸赤脫之狀以白錦遮其下體以錦作除禱無
數掛之於梁間其端懸小鈴四三箇此他寺所無又

由右挾門入佛堂為二層之制而上層甚高譯輩及
從人皆登觀而余輩只坐階上仰觀又由右挾門入
佛堂只坐小佛一軀而左右皆僧徒所居之炕頗華
整其後堂有一間屋而以銅鑄成小龕渾身刻小佛
如拳者如衆鳥之集木不可勝數而種々精妙傷僧
云數為三千云其後以恠石築山空隙地以輒側豎
如八面盆形而中鋪小礫水磨石如銅半邊石狀
如斑紋山石有大樹數十株由恠石間屈曲而北入
有小虹霓門內有小屋而作於假山下恠石之間
如窟屋中有紅大床傷僧云此是萬歲所坐處

云其上又有屋有女佛宛有山林間蕭寺之勝其後
又有二層佛堂而有玄佛甚壯其後又有二層佛堂其
後又有二層佛堂而中有大佛之左右狀如山棚而諸佛
無數壘立階下有白皮松七株皆老大枝幹扶踈白株青
葉極可愛翫前後佛堂階上皆設石欄梯級皆以石為
之左右繚以月廊華整工麗無比少歇松下入東邊小門
庭中有八角紅閣而極精妙僧云皇帝納涼處北有一字
彩閣而為複窓之制而內窓塗以青紗屋內東邊設八
面閣而其上又架八角小屋其上又架雨傘小閣中層閣
周以輓而細刻畫如城築狀又開城四門其內設三層臺

上臺坐小佛中臺塑坐人無數下臺塑人騎馬騎牛
騎象騎獅之狀俱極精妙前置卓有木漆器香爐之
屬四五箇而玄漆如拭似是玄玉而問之則仍漆木而
造之云此亦皇帝所敬處僧云皇帝雖尊而至此地
猶拜佛朝鮮大人何不拜之令人發笑出來少坐外門
外門內左右有張將之塑而取之牌書聖二字此地寺觀
幾與村舍錯列而皆無居僧只守僧數三而已此寺則
居僧無過百餘人皆皇帝皆人給一朔銀二兩而其中
有月食百餘兩之僧云內外庭有石池廣可數間深
幾一丈似是雨水所洩處此寺前有渠水處地稍閑

曠而大抵處於荒野墟墓之間無可觀矣行數里歷
八五塔寺、皆覆以紅瓦由東邊小門入去庭中有
大石屋為六層之制而每層列刻小僧四面皆如此
其數不可 矣中間佛堂而門上扁以金剝寶聖天
明成化九年七月初某日造入觀佛前置鐵絲籠大
燈中儲黑汁而燃炷問之則乃漆汁云西登木梯而
北折又東折又北折而登臺上四面環以短石屏上
端刻山形四隅及中央造石塔各十一層中央十六
層而加盆頂層、或刻佛像或刻鳥獸奇、恠、不
可名狀中塔之南造一層屋可四五間而棟與椽皆

以青黃磁造成見之絢爛而臺底鋪礪石與上副使
啜秋露二盃雖登高而眼界只前野而已遂由梯下
來下來之際設梯處見暗不知投足之地以左右有
欄干故執而移步費天下之財力而築此無用之佛
臺令後人悲之殊可慨然萬壽寺佛堂題扁皆是康
親王之筆以審觀之知之矣或書慧日長輝等字而
筆法似過於姿媚如尹聞和之筆矣五塔寺守僧皆
是蒙古僧黃衣者四五出見頑醜特甚由左路而還
倚渠而行、觀未觀處捨西直門而向東行度大石橋
由德勝門入門制與西直同大抵北邊門而非之

正門向南而行少許東折而行北邊正對地安門有
十字門三簷二層之制而閉之而不使人行過十字
門隅南向地安門而行路有羣胡聚看馬徒輩云車
載生虎與上副使下馬而往觀小斑毛虎以鐵索繫
頸置之檻車之中兩胡以鐵端之木從木箭隙動之
則虎輒張目吼聲欲躍出由地安門北牆外路還館
日已晡矣宮城水道既論之玉泉山水鑿渠引水自
萬歲寺五塔寺前流下至皇城外一派為外濠水一
派自西城底流入為五龍亭上流一派過德勝門外
自北城底流入為玉河橋水西直門外渠水無非引

水作沓處。皆耕旱田土性不宜於沓而然故未可知也。金遇允云此地必新貴以蜀秦之幹代薪故有田而無沓云此亦近理。

初七日晴訪副使副使來話去曉聞轟輶之聲殷。到曉似是地動恠之副使云自去夜胡官擇宮女故車聲達夜十三有人擇之女其數為三萬人胡官初擇於衙門其數則不能詳初擇之後皇帝與皇太后同坐禁園親擇之以入於八推之人無論貴賤皆入於擇中貴官之女皇帝執為後宮其餘貴官之女定婚於皇子皇族其餘賤者之女充於宮人之數云云。

初八日晴首譯李世倌方物文書夜已下行朝當在
於十三日云矣副使來話

初九日陰洒雨首譯李世倌等輸納方物還云來十
二日例開筵若開筵則十三日當領賞云矣副使
來話

初十日晴李世倌言十二以開講為定故領賞當行
於十三而領賞後即撤館中料食故閣老三台言于
禮部以十四領賞為言蓋十四日乃月忌故不可發
行故曲為之地如是周旋云矣

十一日晴回還時上副房 送人馬各一匹於三房

使之輸冊馱矣今番副使謂以李房冊馱數多不可定送云副使來話

十二日陰洒雨夜風有寒意訪副使尹鳴夏金九三貴萬處賞銀各五兩式馬徒李用才書者韓次真各丁銀六兩籠馬頭李三俊丁銀五兩左牽金世八方物馬徒金論世各四兩坐車馬夫三名各二兩式分給金益謙許三兩送之前例三使軍官及譯官堂上皆喫從人賞銀十八兩堂下從人賞銀皆合叔分給於諸驛卒副使以為此甚不均今番勿論堂上堂下平均分食而其餘數分給於驛卒之意往復於上使

上使初甚持難副使分付首譯以為然則副房兩奴
名賞銀當出給平均分給上使不得已從之云

十三日晴副使過少醉命驛冊卜為二馱

十四日晴訪副使早食同上副使與驛裨輩出門由
東安門度東華門外濠橋沿內城東南外由闕左門
入五鳳門西庭少憩於西月廊羣胡多集首譯來言
當出立三使出立西庭東向立午門前東庭禮部侍
郎張廷玉及諸胡聚立通官輩引余輩稍進立北向
隨之呼行三拜九叩頭一跪而頭三至地如是
者三合為三拜九叩頭畢後使之稍退步去而往立

於初立處通官引上副使又進立北向跪東庭一胡
持小紙而呼之如我國人讀件記之類隨其所呼諸
胡持銀與足段貂皮來于上使之前一胡又執件記
而考之一胡受而立傳於上使上使仍跪而受之首
譯受而給於下輩受畢一胡牽白馬兩匹而立上使
之前上使執其轡端首譯呼下輩牽出此則國王前
賞賜也上副使許賞給亦如此受之訖上副使退立
於初立處余進立而受賜如上副使之為胡人傳給
之際余舉手而目首譯受之通官奎寶柱輩傍立見
之謂首譯曰書狀不親擊似無敬受之意云、可笑

訖退立於初立處首譯以下又進跪而受賞訖通官
輩引三使進前北向行三拜凡叩頭如初乃罷張廷
玉招首譯要接而三使尚仍趨來西庭余輩進前張
也致殷勤之意而回去狀貌極精明而衰白矣由左
闕門出來館所元朝出入闕庭曉入而出由天安門
未能仔細認得今番更見云東安門乃方門之制而
為七間南北末間為守胡所居處中門閉之而左右
門皆開而使人從來門內度大石橋此則無石欄此
外城內濠而水深廣亦七間橋盡而以石柱為三門
而椽則以黃磁架之而覆以青瓦而無門扉左右門

低一級行一里許又有一大橋有石欄橋盡而有東
華門為兩層之制中門及南邊門閉而北邊門前石
橋乃內城濠水而橋上下濠水深廣左右以石築之
濠內城外繚以倉屋外面築牆有簷見之甚壯濠城
隨城而南曲至于午門東樓下而止水涸見荷根荷
時光景可想內濠之外、濠之內人家舖舍如城外
內濠邊有僧寺外宮牆不過數丈而以紅灰塗之黃
瓦覆之其制如我國宮牆內宮城以甃築上高可十
餘丈峻如削鐵上別有女牆如都城之制城連東
華門南馳四五十間方折而西馳而接於午門東樓

闕左門自午門東樓南邊而始有馳道月廊闕左門
中門下闕之內城南邊濠南階上側有老樹鬱然而
南牆內有黃瓦大屋云是宗廟午門東邊樓為兩層
兩簷之制而南頭閣四面五間而行閣十四間連于
北頭閣、連于午門、樓、亦兩層而為九間中央
間稍大每一間設四窓上層則無窓西邊閣制亦如
東邊東樓北邊下有左掖門西樓北邊下有右掖門
三正門南向正樓下列闕外為方門之制而內為虹
霓之制左右掖常開而正門則西門及中門閉之而
東門開之胡人往來大抵內城盡於午門而左右闕

門以下階橫繚月廊右闕門外即社稷端門則虹霓
門城左右接於月廊規制井井方々莫不對待見東
邊一隅則西邊可知內城南邊曲處上有層樓午門
門樓皆覆以黃瓦左方四頭閣皆加盆頂合為四門
樓丹雘施以楚絲泥金遠望如瑟瑟錦窓則純丹飾
則皆塗金壯麗無比午門左右有黃瓦小屋在於簷
下似是守胡所居左右闕門與午門樓之間各有一
間屋而極精妙未知何樣屋也賞賜錦段自雍正時
命給內帑所藏好品云午門正樓女牆內東西南升
降處有小梯望之極高妙

十五日晴早食三使往禮部坐於南月廊禮部諸郎
負乘車由狹門絡繹入來其數甚多最後禮部侍郎
和林由正門入來乘轎入來如向日滿色之來階
上諸胡排宴具於床上和林自內廳公服而出來通
官引使臣升階上北邊布簾席和林見余輩致殷勤
之色於簾上北向三拜九叩頭余輩列立於其後隨
而行之自後見其跪狀以一足着臀上只跪膝其公
服裏服琴蘭長圍衣肩荷如覆芭蕉葉之物外則琴
蘭內供則紅紬着紅石如珊瑚鐙子着黑段水靴子
不見紅石鐙子則與通官輩無異以大珠磨如

基尾着於青絲條分上中下如女兒輩其着石牛
黃自後掛之於念珠之間未知何製也侍郎坐於大
廳板位上西向坐方席全輩南向坐譯裨輩坐於全
輩之後通官輩立於侍郎與全輩所坐之間矣進宴
床所排各種砂糖及果實以烹鵝及羊全置於
諸品之上似為上饌一胡如木瓢子之器羊酌粉紅
如淡乳之水進於侍郎之前侍郎倒飲次進於全輩
飲之味淡而別無味次進酒盞各三五味如煮酒盞
則銀而其餘器皆錫才進盃背後有喧譁打器之聲
回視則刷馬驅人輩入收裨驛之宴床自前如此云

侍郎使首譯言館中上馬宴當進而若進則有行曰
次時稽遲之患故只使提督參宴行李好、為之仍
起分付首譯令輩使之降禮入來諸胡無一介參宴
而又無禮數於侍郎之事未可知也隨侍郎後行三
拜九叩頭於初行處罷還館中卜馱山積於館庭群
胡填鬧殆同亂場午後行上馬宴於館庭通官輩以
羊肉之未及持來姑待之云、通言使除之排宴床
於庭只北向三拜九叩頭即發行到通州日未昏黑
諸驛輩以未盡計數多落後
十六日陰洒雨夕晴平明發行由北門橋渡通州江

江邊材木山積皆斲六面異於我國材木以船隻鱗
鋪水面以椽木鋪其上覆以蜀黍幹而平土為浮橋
朝飯軟鷄堡堤柳綠野草青胡人多耕田以驢
騾馬駕犁而耕之者甚多牛耕者絕少犁根甚小而
起土亦薄未知土性軟故能以驢馬耕之也午後抵
三河縣

十七日陰晴平明發行渡漳沱河朝飯邦均店譚輩
次第趕到騎騾而行逸足如飛令人蘊快午時到薊
州日氣太熱改着春衣作家書未到薊州五里許北
有山距大路甚近馬徒輩云此是盤山而山頗大而

無峯巖之秀出者間有洞壑瀑流而路甚惡使行之
入觀者前後無多云

十八日晴平明發行朝飯蜂山店先來驛官金岳鼎
軍官李著李以夏發去令人倍切思家之情付家書
午後抵玉田煩渴飲山查煎和水一碗披衣揮扇無
賣盛夏

十九日晴平明發行朝飯沙流河午後抵豐潤唐女
之呼乞錢者續於路上驛卒等無給錢者

二十日陰風平明發行朝飯榛子店夕時抵沙河驛
朝飯站與宿所皆入去時經過處通州主胡甚悍惡

索房錢至錢九兩之多云其女年可十餘者去時給扇與藥果出見而有依依之色指而問能記有則笑答曰知了

二十一日晴平明發行與上副使約觀夷齋廟余與上使騎馬先發副使追後日在辰到江上上使先已來到坐巖上同上使上小艇舟樣如我東而第船上鋪板有漁艇數葉沿河左右使馬頭輩問捉魚與否舟胡舉筐示之銀鱗玉尺撥刺筐中令人發興令上房庫直金萬悅買而斫鱸泛舟而上沿流上下江分雙派而中有小島有孤竹君廟北巖多人家羣胡島

登岸下視而已副使來回舟而泊副使同登舟厨人
進食與鱸相與啜酒喫飯於舟中風味絕佳飯訖刺
船上下清風臺巋然於松翠之間斷崖千尺松樹處
處清流綠壁而灑灑、燕京中第一佳山水也副使得
一七絕使金益謙聯紙執筆若將聯句幅者余即和
之至起去而座中無人出一句還可笑也舟胡盡日
擔提頗有飢色向馬徒輩有侏儻乞還之語余輩不
聽亦可笑也捨舟登清風臺乍憇而發渡三大橋到
永平府日才過午矣

二十二日微晴平明發行朝飯背陰鋪有巖壑之趣

松檟錯立尤有爽意過撫寧縣山下村落令人可愛
日落抵榆關入去時主胡叩頭坑前有款接之意而
與乾糧馬頭三俊終夕爭房錢喧聒不已殊可笑也
二十三日陰小雨天明發行朝飯范家庄到紅花店
捨大路南馳二十里渡數溪水溪水卽角山等山所
發源也到望海亭下有附城如公尾城而北向有城門由
是門而入內有村廬東向由甃級登望海亭中南而
向而下層石梯數十級兩處卽海邊而長城盡處城
入海澗為衝波所噬城與入海處前墜巨石合縫處
以鐵鎔鑄銀釘無痕尚宛然想像功力之無敵也還

上望海亭，在城角而俯大海，下石級處為甬道之制。亭庭有古碑三四百字，頽漫漶，庭有上下，庭所立之碑書天開等四字，而幾不可識。上庭東碑大書一句之多，西碑書瀚海等四字，而二字不可。下亭扁以海濶天高，亭內壁多刻明人詩，而成語之詩殆無有，未可知也。朝飯時飲燒酒，至是登降氣頗憊，問亭內東有木梯可達樓上，而鋪板多朽敗，且有門而鎖之，不得登覽。西邊有寺觀數區，而不往見。少選由城邊路入山海關，到外城東門，以迎送官，不持兵部票，文而來守城將不許出送，余輦被雨衣而立於街上。

以不能周旋拿入首譯李世倨諸胡員始驚動騎馬
往言于城將云、使首譯以下隨往乞出余輩下憇
路傍小屋小屋卽甲軍所住處甲軍填闕來視困辱
極矣少間首譯以下來言城將許出遂後先而出間
首譯費清心丸扇子各數百然後卜馱許出云胡人
之出闕者各受守胡公文然後出闕云故車馬駢闐
織路以此之故此處甲軍輩之悍惡甚於他處云矣
抵二里店日猶未昏首譯以下多追到卜車皆出來
領卜吳東興以下皆來謁而先去

二十四日雨雪夜大風撼屋平明發行朝飯中前所

逢雨雪大風一行皆呼寒路甚泥惡夕時莖抵西水
河曾聞山海關內外暖寒之迥異關外柳未青而田
不耕所聞果然

二十五日晴平明發行朝飯中後所城外午間抵東
關驛城中下處極陋惡難甚

二十六日晴平明發行朝飯沙河所午後抵寧遠衛
城中下處淨敞舒體息憊昨日路中輟迹多深陷坐
車傾仄難於作行食盤有土蛤頗覺醒胃

二十七日微晴陰大風夜小雨平明發透路見温井
去寧遠南行五里許入中門庭有温泉圓甃長丈許

廣一間許水從地底上而泉脉極壯水鈴續々浮上
熱甚不堪沈手前後開石竇引注作四處大湯而其
上皆架屋而東則屋甚大胡人男女之來浴者甚多
副使以下皆勺而飲之味頗鹹云望少許由南邊小
路行二十里出塔山站路遇大風堇々作行朝飯高
橋舖午後抵

二十八日陰洒雨平明發行朝飯松山午後抵小凌
河飯有竹蛤味頗好

二十九日晴寒凍大風平明發行朝飯大凌河午後
抵十三山店淨水清頗覺意愜訪副使夕食後首譯

李世伋來言有女胡馬上才者三使同觀則好云云
與副使出門上使出來相與坐椅途傍村胡屯聚一
女胡年可五十騎白馬馳突忽側身於鞍下以一足
掛鐙子上如鳥張翼之狀過數十間忽復上鞍運捷
身捷趨如飛猿如是者三次所見極快又有男胡馳
馬而為左右七步比我國兵馬上才者極捷疾可
觀女胡及男胡為上馬才之時按轡徐行一番上下
然後始馳突徐行之際一男胡持錚整之於馬前而
上下首譯又言有女胡乘索呈才者可觀云俱入上
使下處掛大索於庭中高可三四丈年可十三四歲

兒女胡緣木上索如猿猴之升木大竹兩端繫小布
袋執其中而往復步履於索上坐卧起居唯意所欲
我國才人曳足索上而能運步此女舉足移步如踏
平地良久乃下年可十餘歲兒女胡又上索以短索
兩端繫之犬索為雜戲如我國呈才人之為而其於
捷趨非我國才人之類畢兩兒女胡一男兒胡為地
才如我國才人而不能高蹴而折腰翻身如柔柳可
觀以錢散擲於地上三胡折腰口含十不遺一亦可
觀年稍長之女胡為生涯所迫不得已呈才於眾中
而顯有羞愧之色令人可矜矜來而別賞一別扇受

而笑指余所持之僧頭曰願得如此之物還可笑也
容顏亦端妙聞之則夸以閩內海邊之胡無路糊口
流離到此云自行中賞給銀兩云間東之言往觀
戲子戲其所着紗帽冠帶全似我國曾聞此戲尤明
朝冠帶而如優人之戲云果然矣遠近村女胡之來
觀者

三十日晴夕大風副使初主厯觀桃花洞之議以風
日不佳寢之余獨行無輿以不厯為定平明發行朝
飯間陽驛午後抵新廣寧過閩陽驛十餘里北望桃
花洞令人悵然第風埃迷天不堪登高遠望以此言

之則不往實為得計矣副使夕來話

三月初一日晴大風平明發行朝飯中安堡路險風
惡馬累顛倒堇々作行午後抵小黑山聞朴譯道貫
之言胡皇壽陵定於廣寧方運材壁官員秤土斤量
而往北京姑未還云似以土之輕重卜地之美惡矣
初二日晴風平明發行朝飯二道井午後抵白旗堡
當宿二道井而越站抵白旗堡為百里程譯輩皆云
道路之順無如今番小黑山前後烟臺隅冬至使回
還時每患泥濘必迂由北邊直過烟臺隅渠輩創見
云夕食後副使來過聯訪上使下處

初三日陰有雨意晚晴大風平明發行到柳溝河前路泥坑深堇、前進朝飯小黃旗堡夕時抵孤家子周流河有傷浦涉渡至河般渡河不過丈川般如我國般而船上鋪板坐直樵而上下以長大索繫於河東西緣索而行舟大風動地而水波不興似淺狹而然今日亦越周流河為九十餘里般渡巨流河或稱周流河大風揚沙、塵蔽天
初四日晴暄平明發行朝飯大房身三使騎馬作行乍憇汗伊願堂午後入瀋陽北見黃尾丹閣盤鬱於林木之中問之則乃汗之陵云亦平沙之地四無培

樓往副使下處對酌十餘盃。瀋酒味如薊酒，極清爽。
初五日陰晴，夕風雪。平明發行，船渡渾河，朝飯百塔。
午後抵十里鋪，與上使同下處。首譯李世倌、金裕門、
朴道貫、朴尚忠、明曉先向柵門來辭而去。

初六日大風雨，晴。平明發行，遇風雨，路泥頗側，狼狽。
發行後，許多下蜚，跋涉泥中，堇堇作行。朝飯爛泥鋪。
午後抵新遼東門前清河。千山雪色，嵯峨令人
開懷。與副使發涉洲邊，乘馬上泇河江中。
初七日晴，平明以馬上渡江，朝飯冷，井路惡，石多且
多泥，淖處艱辛，作行日夕，抵狼子山東，一站稱水泉。

之甘放心飲冷

初八日陰風平明發行以驛度青石嶺朝飯天水分
度會寧嶺路峻且泥堇作行午後抵連山關鴨水
已近家信將至安否莫知心緒難定近鄉情更切者
信然矣

初九日雨上使以雨留在與副使食後作行跋涉泥

淖中夕時抵通遠堡下處敲淨前對山巖

初十日晴與副使出溪邊借胡網捉魚數十鱸斫鱸
佐酒風味頗佳上使行到溪邊對酌數盃夕還下處
訪副使夕時軍卒回來見家書聞平安喜不可言

十一日晴平明發行主胡悍惡以房錢之不滿意開門持杖有阻行之狀極可痛憎朝飯八度河溪水清駛前岸樹木籠鬱極有佳趣午間抵松站下處迺惡令人難堪訪副使義州饒物吏始來到

十二日晴平明發行朝飯乾志浦午間抵鳳城下處王順昌家其弟敬宣入北京云

十三日晴會上使下處有花煎酒饒副使歷過

十四日晴午後先來李以夏金禹鼎回來得家信

十五日晴暄暖如夏訪副使因副使分付領卜官吳泰興徐慶運玄默玄泰翼捉來聞延卜人馬渡鴨江

船覆人馬多溺死數則不能詳知云

十六日雨平，明發行到柵門，與副使同下處。副使拿
入領卜驛輩分付，而正使馬頭輩搜捕迎卜驅人輩
與胡人綢繆者決棍，招首譯及掌務官全潤河役出
卜馱假都事雲山郡守河大淵謁迎卜驅人搜驗，捉
得銀二百兩，論報副使以待處分。題之午後，首譯以
下來告北京卜馱已盡出柵云。三使出柵門，獨轎及
馬徒諸譯卒皆入來赴京馬徒輩至此，落後嚴飭迎
卜領將使之馱卜離發，留假都使之領來首驛以事
下皆落後檢卜獨朴泰孝隨之乘轎疾驅，快豁如鳥

脫籠日黑到蕊秀清流渙、樹林
舊回思去時光
景况如一夢與上副使小酌露宿

十七日陰晴風鷄鳴發行朝飯
渡中江小西江

鴨綠江隨廳妓輩出迎於船頭見之依、義州府尹
金相奭候於沙中幕次府尹先還衙郭小部守申煥
清江僉使皮萬構大同察訪許琛謁張妓樂上使、
妓輩騎馬前導張樂而入城下處鄉社堂供饌皆惡
草不堪下箸

十八日晴與副使訪府尹訪上使張妓樂小醉夜還
十九日晴食後同上副使登九龍亭歷登統軍亭張

妓樂府尹上來卽去似無款洽之意訪壽星村清陰
遺蹟碑閣丹巖方伯時所豎而士元筆也登聚勝亭
卽壬辰宣廟駐蹕所也其後改葺云回筵臣陳達自
上有繪上之教悔心侍寢

二十日晴食後會上使下處發行午憩所串日落抵
良策宣川具文泳龍川申載夏謁清流繞陰能華滿
壁景色殊佳同上副使登巖臺上移坐巖下觀妓樂
臺春侍寢

二十一日陰平明發行午憩車輦府使沈東尚謁午
後抵宣川會上副使於倚劔亭觀可色劔舞才格超

等小醉下處掛方亭主倅具文泳龜城李聃錫謁可
色侍寢

二十二日雨食後發行午憇雲輿館主倅申煥謁日
落抵宣川會主倅金士重於松柏堂兒妓柳色侍寢
二十三日晴平明發行午憇納清亭午後抵嘉山魚
官博川郡守李謁會上副使於客舍觀妓樂初與江
西金誠之約會遊於寧邊東其室忽聞方伯尹淳病重
罷巡來寧邊中止書報誠之

二十四日晴平明發行小憇太定江岸清川江舟中
承府夫人訃書日高抵安州副使在私下處往慰安

州牧使金令廷潤平安兵使尹令宅鼎祥原郡守崔
肅川府使洪泰三謁下處紫電樓方伯尹淳故
於碧潼郡

二十五日晴訪上使同登百祥樓定州妓柳色退來
侍寢

二十六日晴平明發行午間抵肅川下處小雪堂府
使洪泰三慈山鄭德載謁李門樞以衙客未見相對
驚喜供饌之珍妙平生所罕見副使為過成服發行
落留

二十七日晴平明發行午慈順安通官申輔謁、箕

子墓由七星門午後抵平壤訪上使於練光亭景色如畫中第一江山之稱儘不虛矣

二十八日陰訪上使於練光亭順川前倅朴宗誠與尹俞嶺謁食後同上使泛舟上泝登浮碧樓中和尹光毅謁夕時副使來會於練光亭

二十九日晴平明發行庶尹辭於舟中午憇中和府使尹光毅謁午後抵黃州下處秩廳牧使李思齊兵使李義豐謁

四月初一日晴食後發行午間抵鳳山郡守沈鳳徵謁訪副使於待鳳軒

初二日晴平明發行午憩鈞水站長連進官殷栗李
副中文化權基彥謁日落抵瑞興縣監徐宗秀新溪
俞直基謁

初三日陰雨夜大雨平明訪縣監徐友命臣於衙中
發行午憩慈秀夕時抵平山路遇大雨府使徐幹世
謁

初四日陰晴平明發行船渡猪灘午憩金川暎水樓
初更抵松都入見留守徐台虞卿

初五日晴平明發行午憩長湍逢兎輩與開校理士
淵路逢尹台鳳叔班荆初昏抵高陽尹應教景平過

訪尹兄夜還主簿曹命宰謁

初六日晴平明發行舍叔從弟輩出待於弘濟院暨
拜晤太僕馬出來騎入幕華館近處訓使下處改朝
服入肅厯拜暗洞美洞還家內俱無事相逢驚喜可
知具卽郵慶出迎於沙峴安命說金龜瑞等諸譯亦
出迎陽輝子彛雲章靜而士謹

華
行
日
記

華行日記

序

余靜居可以闕眼惟汶水

江門前也

一帶也每思觀海難

水之喻欲然自少及究子思子海爲一勺水之多之

訓然後始可與觀於海者詔吾區區占弄之趣而益

知觀者之必有其術焉吾友芝山翁孝鎮晦軒安子

後孫也翁之言曰孔子朱子吾先子之一生宗慕也

吾往孔子之國謁孔子之廟拜配天祠觀過化之真

境獲欲叅之列國正宗教之異同折異言之叅差與

至聖夫子孫弘碩諸公及佗諸名家之俊哲多士行

相見之禮講下學之旨耳鐘鼓日玉帛奉先聖之傷
謁晦軒神道碑銘若三聖賢編年年譜序於衍聖公
卽吾意也今年春與一二同志渡鴨綠而過奉天宿
天津而涉黃河過兗州而入闕里閱一朔而還其所
經歷諸國山川人物風俗寓目皆記感物之什論議
之作溢於縹緗總目曰華行日記願余弁其首余盥
讀三復不可以陋見相上下然余惟不知翁者謂翁
之抱括天下許多奇壯知翁者謂翁之慕得上世晦
軒之方寸心法復觀於聖府也然以翁之大觀援出
余坐井之觀使遊心於四海無窮之域而遵聖府之

導迪扶教於吾土戚君者億萬中一二端入正士也
譏翁者五大洲飛潛活躍之儔也是以遇境噓唏者
多矣未知芝山子不謂余淺之知者乎以芝山子之
有術曾海必不謂余知之淺也辛酉孟春上旬咸安
李祥奎序

人生當世無一事可聞而老死牖下可悲之大者也
是以志士勵節哲人飭行以成其功功得以成則名
可垂於不朽也然苟非積於中者厚而有光近及遠
之大者不能也余於安芝山翁深有所感焉芝翁素
樂道好古之士而與余嘗友善者也一日翁過余而

喟然曰吾道將墜無由可救矣道統祠諸儒擬欲印
三聖賢編年年譜廣布於天下以新一世之耳目而
吾當請文之員以吾知子勉子爲偕余曰請將何去
翁曰闕里也余斂衽曰昔先先祖晦軒夫子倡起東
方闢距羣邪使至聖大道日月于天下人至于今受
其恩矣挽近學校荒廢人文掃地春草之嘆又甚於
昔日於此之時明聖道尊賢蹟使賓迷者去暗就明
則吾道其庶幾乎雖然余以病冗不克應而辭之居
數月翁自闕里還奉讀其請來二文一是三聖賢編
年年譜序也一是安子神道碑銘也文勢煌煌燦燦

大加發揮殆東儒之所不可及也翁又示新稿一冊
乃其八華日記而中國山川風土人物都會謁聖廟
謁聖林與夫唱酬討論傷世憂道之言爛然備載真
盛錄也且觀孔少霑蔣虎臣及他諸名士之稱許翁
之此行寔有光於東方東方於中州執壤之价不絕
於前後而闕里風化始克發揮於今日何也蓋采詩
頒誥政令所係朝華之車不及於聖府者理勢然也
翁今挺身遠役自擔斯文之重而克闡東華之文明
其慕聖衛道之誠非撐柱于頽波其可能哉夫之實
是錄而傳諸後宜也詩云庶幾夙夜以永終譽非翁

之謂歟回念余病不能偕行寔由余衛道之誠不及
乎翁也不任感嘆遂書于此玄默閣茂大呂月中旬旬
河東鄭琦鉉序

安斯文芝山子寔余益友也年近志合切德以徵逐
自少至老知乎其素畜其所博學篤行乃賦性以致
力然不墜乎外誘而克固其內修以立志於衛道亦
其慎思以明辨也噫今異學懷襄吾道將墜地芝山
子挺身赴闕里徵得大德山晦軒安子墓神道碑銘
道統祠一聖二賢三譜序於衍聖公孔燕庭大提學
孔少霽而來表乎八域而垂之百世不惟有光於晦

軒先生足以發明於海外昏衢偉乎邁哉於乎萬里
華程乃我東人之所罕行故所過瀋陽天津濟南之
雄府風物黃河泰山之絕境形勝曲阜聖廟聖林聖
府之禮樂絃誦及夫闕里諸公之往履書信武夷朱
氏之記實碑文并舉而收錄目曰華行日記乍按而
讀之其所闕眼於明山麗水以致其仁智所樂服膺
乎嘉言善行以篤其禮義所交而得遂衛祖扶道之
志者寔由乎固修之素畜也記雖一編短稿邁乎他
謾述萬卷而殊使覽者殆有所曠若發矇亦一寶鑑
也余於是實有所感遂舉其素畜而書焉昭陽作

華竹日記

先祖文成公晦軒先生作六百六十二年己酉春陽
南士林與本孫重刊先生實記於晉州硯山齋越
年壬子本孫重修長湍大德山先生坐儀而并床榻
諸品一體維新至於神道碑本孫所立碑依舊舊
而士林亦欲建一大碑致力以伐珉越二年癸丑
林與本孫追體先生精舍故事建祠於硯山齋後
至聖像配以朱子而從祀以先生揭扁曰道統祠
刊孔子編年朱子年譜先生年譜擬徵石大碑銘
三譜序文於斯文大家僉曰中華闕里至聖賢孫

聖公孔燕庭令貽聖府大方元老孔少霽祥霖
可也遂薦尹薌友憲夔爲謁員蓋薌友學士薌公集
肖孫徵士蘇公輝冕高弟曾經府使承旨而勇退
中流去任于中華奉天府已有年矣京會命薌友
文謁意往復于薌友承其欽諾又推余爲先選奉
謁員余不敢辭漣川族少承一請與偕行余員督
焉都事鍾永縣監鍾冕尤山宅鎬菊圃秉鏐七松
錫牧使升玉主事性善諸族老使承龜承一承初
族少收奉編年年譜三刊本及請銘書請序書
納于行囊又幣品二櫃付之運送社使達于奉天

余乃買取毛褥一綿衾一硯一筆一墨一納于柳齋
中發向南大門停車社卽孔子二十四日也
丁巳二月十四日戊申早朝也同舍族父老少皆
於驛亭余攜承一直登汽車車疾如電且未刻
壤府乃箕子故都滄桑閱劫聖蹟湮沒
存焉不勝感愴遂步鄭知常練光亭韻曰
化民多聖德千年頌文歌浩劫滄桑無限恨寒
作大同波仍向肅川驛被困下車泊於李國極館
距龍浦一里爲近遣承一使報來由承主事
人員一卽起臨館仍與同宿話懷十五且

別昌一發抵安州驛解橐於旅館攜承且行在理
 到松城是族黨閉也先訪直員炳謙家恆植滬國
 諸翁咸會握歡解抱十六日庚戌南毛聖懣鎮
 余于松城款洽有頃邀余還其家母西斜矣家
 此與松城炳億同往嘉山之於義洞蓋以宗事所關
 也十七日辛亥榮麟榮鶴族兄弟邀祭饋糕餽
 樹頗爛十八日壬子同榮麟性鎮兩族還酒於松
 嘉旆之炳億承一兩族已來過宵矣遂載書
 于永慕堂明軒共同文堂道統十九日癸丑發
 定州淋國植諸族餞於洞外炳億偕到驛

酒饋以冷麪卽登車抵定州驛訪允瑞族其禮符類
敦本郡守閔再錫嘗與余接壤世好夕晚以款意語
于允瑞允瑞命其外孫白敏永秉燭引前明路經
門投帖本守出迎甚款夜闌使僮執燭歸館暫宿
甲寅日初高本守臨館以續上夜未罄之緣日將寒
矣遂別閔友直到鴨綠江江上有三條鐵路車是然
車所行北是入去人所行南是出來人所行其爲創
制甚宏且壯日以四個時開閉中柱使過車並船帆
亦異常也賦一絕曰橫江三路鐵條長中走輪車簡
步付腰次二杠能斷續有時開閉使過梁道渡登

安東縣縣是申州界而舊名沙下里也又驛驛
橐品此乃該驛之已制也訪李學勳之大同驛
京族人侍御英淳書書乃誦余善護也邀余使處
室乍坐歇脚出戶放眺挾江數萬餘家之正商農
比密繁盛浮江萬有餘船之歐羅貨品聞島地品
繹延互誠使人駭矚也二十一日乙卯海風大集
可墮指近午登車過高麗門門以是爲號者抑昔
高麗界而然歟心甚悵黯行到鳳凰城峽中關驛間
閭稠密亦遼東之一勝也暮到奉天府萬戶燈臺
里郊光旅曾洞悵蓋府古之瀋陽也情殆祖初業

所都而自移北京後使居總督也入權重健朝華館
蓋重健東長方湍入而營業於此也館後有塔下圓
而豐上方而殺高可百尺圍可十抱下以珉築中
石實上以金弁而畫獅畫佛形形色色怪怪奇奇
可勝言此乃清始祖之所造而建釋氏家於塔下
千有餘間名之曰皇寺教僧守護蓋設塔於寺之東
西南北而此云西塔也二十二日丙辰訪燕都友於
皇寺北夾室室是薊友胤子墳在塔之側屋也墳左
業於煙草而役於英美草司故薊友姑寓於此也
與話晤論確心直又美鬚朗貌迥出衆人胸襟亦

家風氣也二十三日丁巳風急沙走舉眼頗艱此
北土之自來例景也又訪鄉友打話倒困日晚風
乍歇攜同李永宰登府西門樓俯瞰府落物色殊異
起人愁慘而憶昔三學士之殉義實不禁寒涕之
臉也因賦一絕曰野無涯障宇空萬戶中央作麻
雄扶豎天綱三學士凜人千載尚餘風轉轉循城
東門從城外坦道還館付書示宗忠忠下下四四處處
同館牧山尹胄榮乃梧陰先生后裔而曾典典七七雄
州者藻思清絕筆法道勁與晤多日足解旅抱也相
十五日己未又往鄉友室用厚紙裁三帖乃乃三三請

序書所寫本也二書不書於東方而帶稿以來者以
其認得華式而準就故也二十六日庚申困憊積餘
閉館送日囑館童安孟式賀炭一筭煎服所帶以參
蓋孟式貫以廣州而家金海者也渠父留前寮及
地道子而獨歸故主喚孟式備於茲館也
辛酉隣館有李垣鎔者年壯而善於書法紹翁季
宰邀來于齋室寫請銘請序二書蓋請序書物以李
南川道默首書而金頃在京承計今於典重文字不
可以如生著載故以講長閔稽樵致亮首書以
月淵道樞添載二十八日壬戌牧山翁見帖

規又書法之美遂使收翁夏裁帖而正寫之書與

銘書題西川曰朝鮮嘉善大夫前吏曹參判金鶴

嘉善大夫前吏曹參判鄭閔朝通訓大夫前

校理李晚燿等謹齊沐再拜上書于至聖先師

嫡孫燕庭衍聖公閣下為東國之斯文先師

生安文成公某求乞其神道碑銘昔在唐虞

曰契教教養立則天下文明矣後在東國

惟曰安先生教發國才惟曰安先生拒斥異端

正學使聖入之道復明惟曰安先生陞配先

子廟先生高麗人也在麗季政高俗下禪佛

生曰吁華將夷矣夷則獸矣乃入告時主曰夫下古
今吾師孔子而已吾道六經而已太陽乎天則百邪
自遁巨雷作則羣陰自解中原守萬里先聖嚴乎載
我聖則聖我華則華王曰俞遂遣博士官采金陵宋
得夫子畫像又七十子又朱子又購書萬卷而還鑿
還遂勅太學宮尊奉畫像安先生遂舉萬金楚資漸
口之力以充國學遂勸勵同列於是乎原田假假終
誦洋洋逮及朝鮮全國之凡三百六十四州莫不郡置
學宮而家家孔子人人六經英才作而國滋明遂勅
一大猷于堯舜之日月者實維我安先生共然之機

契之之力也國人爰伐大石易將用之于大德山鳴
呼高麗之斯文先正晦軒先生安文成公某神道碑
欽惟大德孰可其銘泰山高矣黃河遠矣聖人胄孫
今有燕庭衍聖公春秋之筆凡天壤之爲大賢求言
者捨復奚往東人相率北首齋拜求乞大銘其請序
書李惠山著作
尹牧山刪正曰朝鮮晉州硯山道統祠儒生閔致
亮李祥奎李道樞鄭圭錫趙鎬來等謹再拜上書于
光祿大夫花鈴二品銜集賢殿大提學孔少霽老先
生閣下伏以高麗斯文先正聖廡從祀文成公晦軒
安先生東方道學之祖也時以神佛戒俗先生曰

貫道立宗教孔子也繼姬統明宗彰朱子也啓子二
當先學朱子奉孔朱兩夫子真像於宅後精舍朝夕
瞻謁仍獻宅爲國學以倡明聖道掃廓弊俗使此東
邦日月乎昌平江山乎紫陽而稱以小華今行自爾
餘年異學滔天聖道又墜地生等大畏之議與域內
宗守孔教多士建道統祠于硯山奉至聖像醴以朱
子從祀以安先生合刊孔子編年朱子年譜安先生
年譜三書以範世茲遣前丞宣尹憲燮安先生后孫
前員外郎孝鎮士人承一奉呈聖賢譜合刊本敢請
弁文特存道筆一言俾扶東方墜地聖道萬首齊

二十九日癸亥攜同承一與館主重健訪到運送社曰丸合公司其掌務者曰金錫鉉也聞余所運物到否錫鉉曰社之主務者乃日人也而余出外亦不可我擅出納乃不能推尋佇立而周覽社勢結屋數十間間無所障只有東西洋諸國物貨之積聚而納無常輝煌紛纈眼不可遍及古所謂婆娑肆是也乘昏還館閏二月一日甲子夜作大風雪至十時中寒咳肆神氣不和煎服所帶敗毒散二貼即晚見漢城大譜所源德姪書書乃昨日出也此距漢城一千六百餘里其遠而一日夜書足通焉亦甚奇事

也認得家姪旅安解了鬱抱書足以替面非虛語也
二日乙丑送畫於鄰友室夜央還館仍念運物之淹
滯而未到挑燈書葉三片一付於漢城菊圃族一付
於安東縣李學勳質社使運越口脊丙寅曉報以運
物到著卽與承一同狂錫鉉家錫鉉勞出戶仍與赴
社錫鉉直入社內指三櫃於萬櫃紛積之中熟看之
乃余手束也引出門外開而視之所藏諸品皆存啓
封痕此乃安東縣社所檢也而諸品毫無所損其信
義儘可服也錫鉉出視一片紙票乃安東縣社稅金
所推也依其錄出給一圓二十五錢金遂求其夫

人擔還鄰友室日已暮矣四日丁卯攜行囊乘入
車至鄰友室理裝將發牧山翁亦來參涉看紙品
豐儀曰此雖中華所貴不如稍略而備品也中華贄
禮赤皮最重以愚所料莫若放白紙一封換得赤皮
一領鄰友曰牧友言是也遂從之夕晚登邊門車此
乃中華所管也牧山在方重健皆來餞焉五日戊辰
曉到山海關關之爲地也後負山嶽前通國溟互沒
野涯惟城址頽破猶在山上是所謂秦始皇所築萬
里長城也而關乃城之東門也城廢之日關亦廢之
只築圓城於山下使居守官若列縣樣然猶以關爲

名以其用舊號也賦一絕曰負嶽臨溟大陸乎八方
工賈雜農兵二千餘載垂凝想尚有崇皇萬里城
城者本防胡而不惟莫防一胡也八方之萬國
往於城內固知防敵在德而不在險也換車留小
發向天津過錦州有一少年從內行而來內行登
客室少年登車與余同卓歇未幾一奴婢從女室開
其後門而出來告由於少年少年出銀錢幾緡以
之奴婢買得餅果等物入內室而去此必奉獻於某
內客也留意而夏察車制槩同於普車而其男
所居割一邊作女室特書女客室三字於門上以

板牢障以限內外所居其別制亦異常也將暮抵
津華之童兒輩手持旗標而登車內給標於諸客
標樣則懸半尺布於竹策木策之端而書標於布
面棧卽東國所謂館也給余三人以悅來棧標故
知其由而取之及至下車乘人力車往集在研至館
卽悅來棧也此乃棧之請客法也而諸棧皆類是也
棧主曰王殿使余登二層樓樓之爲屋也四壁以木
板而四牕於板中付鏡於四牕而向開半空亦爽好
也然而坐以木廳而布以秫皮茵乍坐輒冷冷透刺
骨遂布所帶毛褥冷稍謝焉坐未久棧主命備酒

溫水使之洗面又供熱茶使之解渴此固棧之已例也出棧門巡欄而放眺樓屋之盛大風物之繁華雖不可盡記海一曲衝入野央幾許百里而海在岸矣此距北京二百里直通而要重於京城故北洋鎮總李鴻章增制以壯大云也遂賦二絕曰黃潮通潮與郊斜挾岸棧連十萬家繁物欲收難盡記心神卻似夢中過三人獨臥二層樓萬物皆疎定遠愁慣顏雖有東溟月夜尋孤客照似愆愆以余七耄齒骨過猶於不火之室實難耐了然藉褥覆衾寒不能其襲回於發行初帶寒具良覺得善也六日也已近午將發

飯價於棧主主曰一人一病一圓卽出三圓來給
又棧童以朝夕供茶索錢出一圓金分給三童童
人力車使到站站卽東行車之驛也買曲亭票登車
暮到黃河河橫乎千里野央而築橋於河上鷲鴉
泣橋而高據半空亦一壯觀也以筆話問河油於
人答曰河今變名以大清河其變名者以其變路也
余聞而訝然曰河之變路容或然矣兩名亦隨變而
哉古傳云黃河清而聖人出抑有聖人出而致安天
下耶賦一絕曰黃河曾耳識今日見黃河塵愁滿
腹試滌借渠何行到泰安站站後漸巖卽所謂泰山

也看無草木只積以巖石疊疊而屹然峯然矣用
土入曰山之全體皆濯濯若彼乎出矣向
嘉木蔚然奇草交秀鹿獐狐狸窟焉而彼
濯濯者以其遠於郊而斧斤日尋也奈曰此
子昔日所登者乎土人曰然感賦曰泰山雖
以夫子高夫子一登後泰山天下驚我到
暗路疎疑信在臆未暇下車車輒發行道
蓋錯行三十里也以具圓銀防道失例其
曰外邦之人容或失例不必收銀且向關
尊焉然姑例不容容情以違之故收之對
遠矣

余謝而退遂入賈毓麟家宿焉棧正其款洽賦
昏無暇察車留錯認晉平到兗州館中迎客
聖隣猶解禮優修七日丙午晚朝起床月朗風
還曲阜站毓麟曰此站距闕里二十里曲阜
里十八里程遠近稍差然此去曲阜
莫若自此直抵闕里余曰唯唯遂求馬車乘
幣品與承一馱鄰友及余徐行過縣店酒
家村落門欄宏麗必是士大夫所居也場畔
條弄珠原上牟麥抽苗青嫵以其地在東南
春氣也舉眺遠憑野闊無際潏浮以煙塔凝

野野接海矣賦曰千里無涯岸一望野也虛稱如本
賦之村似海中居午晚到曲阜城定館於廟前
昇棧棧主曰趙維連室不火而冷透牕者表為骨節
難堪居雖然不火而居乃中華之東南古俗則羽
翮之失也遂解所帶衾褥以藉以覆足可安體然
此於我東火突溫處則遠矣蓋曲阜為城也北泰山
東泗水西汶水千里開郊四通五達中有城周而
十許里高可二丈許門開東西南北而懸巨鼓於梁
上晨夕報更城之中外所居人家殆以萬計而都
以街為名即我東京城之洞也曲阜城之街曰闕

五丁巳

十一

本孔子所居故以闕里名於天下而宗孫世居
 府也曲阜城之所居於姓雖未可知必孔氏最
 次顏氏劉蔣陳鄭諸姓亦未知其世居也然自
 宋急雨迅雷乍作雷止三日皆困憊顏床前所
 變新湯以調理然床冷如冰莫得取汗鄉人少
 實養體骨尤難堪耐館主供一衾以形恐其寒
 嘉因賦曰面目相似我豈無肚腸同語音惟
 對但心通付書於菊圃明植及家兒源晨
 求馬車使承一先在衍聖府傳達室獻六書
 年譜安子年譜與
 實記請銘請序
 與八幣
 赤皮一領
 封大壯紙
 封大壯紙

紙一封大簡紙一封粉周該掌招待員孔瑞年慶錫受

幣幣留于案書納于聖公公按單歇歇點映紙一封

曰幣貴禮禮貴廉也而幣甚殷受之傷廉餘皆讓焉

承一以是回報余與鄉友同車御以館王行到聖廟

有上下兩大門而上門書闕里古宅穿闕環補之

於下門外而書下馬遂下車入下門孔過殿大門

至傳達室瑞年下階揖迎余亦答揖而入室室中設

一巨床床上備有硯筆紙墨瑞年坐於東余坐於西

鄉友坐於北以筆代話叙初見禮瑞年乃聖公之

親而年行六旬善文善書看有道氣問聖公讓幣

由瑞年以聖公命語語之余曰幣貴禮禮貴誠
幣是東儒之致誠也有何傷廉瑞年入中堂有頃
出報曰聖公有足病不能動作難以接賓禮陳
至於幣儀太殷傷廉固辭不允余囑瑞翁使致
以納帶昏而還館十日己酉早朝瑞年臨館報
之言曰病劇不接遠賓甚悚至於徵文不在幣
在禮尚則一種且宜八品泰侈不可依循余嘗
薄約况一乎讓固聖公謙德然萬里輸捆亦不可
念也請先生善稟瑞翁唯唯而去朝晚又使承
詣孔少霑公家獻五書七幣其讓幣亦如聖公

公之讓甚於聖公承一一走還備報余與鄉友同書
前日而狂書公家家之峻傑縱不及聖相
夫所居需公方有疾不風命其第五子命無
外西室筆以替話敏達出倫以二十士妙
才藝實所興敬敘話畢令侃曰家君有命曰
乎玉帛不在乎豐豐則妨禮不可收也品與
一封而六封皆退余以夏稟意囑公侃遂欲
侃曰家君命渠曰萬里來賓使處于旅店夫非
入者道理况以文字相尋者乎使之留連於
余以穩語辭之令侃固執不許又以店留待
余

令侃命其跟從謂三入自行起莊盡形不得歸
來不獲已應諾令侃命跟從九人使之使殺於室
人其所供茶供盥等節無所不款洽而姓尋各至其
者最勤於我也及夕令侃命設巨床於室央約設在
椅子於床之東西北使我分坐於三椅先陳檀頭
白沙盞於床中次陳白沙匙黑牙箸各一於盞對於
陳牛羊猪肉饌各一器於床中一跟從舉樽與跟從
奉盞令侃立南而勸飲飲者固辭而後止數畢而
沙小鉢三器盛飯置于床上仍陳魚肉蔬菜諸物
製法略如東國珍饌而極精極豐極嘉餽所謂

蓋一飯飯凡四五度替器以進而饌隨以陳其儀甚
盛食畢因進糜飲訖因進茶而所謂熟水請朕後
進焉十一日庚戌著三詩一書囑令侃使獻其大爺
少霑先生詩曰四溟漁利日煩喧誰抱麟經獨掩關
今到昌平觀道氣大方惟有聖人孫東方宗學爽然
宣禮義堂堂六百年誰識聖宮春草恨又如吾祖賦
詩天萬里求文苦未休只緣同道又同憂願分蠶繭
餘光借照我沉昏海外區書曰朝鮮遺士安秦鎮謹
齊沐再拜獻書于孔少霑老先生閣下伏以崇鎮產
育於小邦質性鈍魯識見短拙不足與論於聖人前

道然先祖晦軒之承乎千載之下而明乎萬里之外者聖人之道也以之化乎全國而人人師承夫子家法乎六經國之尚既如是而家之守亦不得廢矣歷世二十閱年六百父傳子受惟是聖人之道不以孝鎮之鈍魯短拙而襲習於日用常行但知聖道不知聖道之外復有佗道也此不獨孝鎮然也舉國之人皆以服法服言法言行法行而以至稱乎少華者蓋由我夫子極宇宙互萬世建太極垂大憲之神妙也儘子思子所謂人力所通舟車所至日月所照霜露所墜天之所覆地之所載凡有血氣者莫不尊

親是也雖然必有後知後覺者作而繼其統明其道
以啓衆蒙然後愚者變而智頑者化而粹異學轉而
正夷狄掃而華此則已見於東邦六百餘載矣苟非
晦軒之作於高麗之末而尊夫子真像明夫子之道
則東方之羣賢輩出而儒化丕興亦未可知也嗚呼
國主崇奉之國人尊仰之以至躋而夫子廟之應者
以其有功於斯文也上自王子紳士下至牧豎販夫
皆知夫子之爲聖人晦軒之爲聖人徒而道非斯焉
則不欲習不欲行也嗚呼今大局所變土教邪教有
起而鼓舞萬應而驅駕以誣毀聖道雖國人之所

良能者亦枉性失行胥溺於其海况庸陋蒙暗不
其自溺者乎夫子之道吁將墜地而無人可扶矣
是國中士家之宗守夫子教者大畏之相與有論曰
天下萬物中最貴者人也入之最貴者道也故夫
祖述堯舜憲章文武以成一貫道而垂嫡統於萬
如其變此則異耳故楊墨作而孟子闢之後世諸
子以謂闢楊墨之功不在乎大禹治洪水之下此
扶道爲也噫今異教熾於楊墨吾輩以凡心取
乎亞聖然不可垂頭縮頸塞耳閉目只發仰屋之
任他縱橫蹂躪盡漂乎吾黨也遂勸硯山遂道統

又豎大德山之神道碑是也事實太略已陳於諸篇
上書想已燭徹矣竊惟先生處衍聖公至親之族而
居聖人之里行聖人之道作天下大家而為天下
表以模楷乎天下萬邦苟有一髮有光於聖道則
不以人微言淺而有所遐棄矣蓋尊晦軒所以尊夫
子也尊夫子所以尊吾道也如有道筆之筆而所讚
則非但扶吾夫子道於東夷也凡天下舟車所通之
國亦將變化而尊吾夫子有如晦軒者必作於頃刻
發陽之日也伏乞先生曲垂鑑察朝晚霽公強疾
來十餘跟從前護後扶行至外西室門外余與鄉友

承一出門以待乍縱而觀焉則雖褻服垢面其襟履
清表殊有道氣霑翁揖余使先入余揖讓而後
是凡三次而霑翁遂先入坐於椅上余三人欲拜翁
使勿拜曰主人病不能禮賓而賓拜之亦不為國禮
也余遂并坐翁以款顏歷看吾三人因取筆代誌
僉位遠涉問余老物感不容言鄉友曰早知山斗今
茲瞻範寔償所愿翁曰乍按晦軒實蹟今始認得斯
東方晦菴也萬里隔遠倡道實蹟今始認得斯
幸至於道統祠之創設如非晦軒之化國必文教而
義銘於心澤浹於髓惡能然乎所問序文我雖塞

其於仰慕賢蹟俯感盛舉當傾微悃至於幣品其輕
傷廉不可盡受余曰謁文而有幣亦古禮也韓文公
朱夫子之惠入文字非止一二而未聞其讓幣也余
曰禮貴儉不貴豐豐故敢辭耳余曰所謂是幣不
爲儀而其誠則萬里所輸也若剛辭而卻疑則勢將
輸歸萬里也是使困矣耳困矣恐非君孟所當爲也
請更思之翁曰芝友誠善辭者也以困於責交吾寧
傷廉矣仍批余詩曰峻逸古雅可誦可誦余謝曰敢
實而不得乃止於俚下耳不足照乎亦亦家眼藏
今蒙謬獎還不任愧仄舟談筆有頃翁頗有困勞

子請以明天夏晤翁曰諾乎二日辛亥擬謁聖廟

林中華謂墓鳥林請令侃使循禮侃曰我當陪在末待

伯母不可雖聞邀其隣友劉毅青段文燦禮官以偕之又

招馬車二乘以備之文燦策一乘以車鄉友余乘

車路乎陋巷街至北門外有坦途向我直闕按路

楷柏而皆過抱蓋楷我東窠有堵也柏即我東所

側柏也行近一里有大門屹然出空挾門建兩閣於

左右而閣中豎碑皆書以大字曰神路碑又過也

行一里有墻周可三十許里跨墻建傑閣有門有室

門通神路室居守僕下車入室僕之數亦輩也

揖迎饋以清茶茶罷一僕人持硯墨一僕人持紙筆
隨余而來步入牆門楷柏連頃蔭秀皆過對面
不可記年而初無一株以凡木伍也楷柏茂稠
累累此乃孔氏之家族共同世葬也路左有仁古
條皆枯落只餘腰下築石以埋根傍建石碑兩
貢子手植楷也行一里又有牆周剝許里而路
墻下建短碑曰蹕路此必天子所下車也循牆
數百武而路折轉北跨墻築石門橫書楹石因沫
橋行數百武有傑閣曰享殿殿前立設官人石
石於左右過殿行百武許有土封若堂設床石
爐

於前建短碣於床石之後碣面只書榜字曰至聖
師孔子之墓蔡蓋張於上楷大於側蔡斬而楷蓋
蓋華俗以爲藏魄於林而葬必貴林故不曰墓而
林聖墓亦曰聖林是也行三拜九叩禮蓋華俗於
師用是禮左距二十許步有伯魚墓前距三許步
有子思墓伯魚碣曰泗水侯墓子思碣曰沂水侯
床爐儀石與聖墓同也拜禮皆如聖墓右有一小閣
題楷曰子貢子居廬所閣內安神位行三拜禮即轉
禮畢周行塋域彷徨遲遲而出享殿門守僕輩請坐
椅上又供茶飲畢給三圓銀又給七毛銀於奉碣後

二人路左有一短碑而豎伍於衆珉叢畔乃大明
李蔭之賦林以題也遂步其韻曰聖神如日月
賴林寧列植又繁植護靈是慕靈豈容况沐秀直
瑞條青燁燁光千載莫教風雪經行還到此門
午矣問聖廟遠近於劉友劉友曰墓距廟計里
遂向聖廟行到金聲玉振門外下車於下馬神
乃聖廟之外門外也門凡三間而峻傑踊據
敬劉友入聖府有頃而出請余三人各帖即持
之此乃依令侃指揮而豫備在袖也劉友再
有頃一偉人偕劉友并來以款顏揖余三人余皆

揖分立於路左偉人命門直以數語必是使開門
入也直之一丁走入門內小頃守僕四人出來導余
前行偉人揖余三人而去此必孔氏人而掌務於聖
府者也劉友隨僕前行入門余皆隨行行至第門
劉友揖余使先入余讓不入劉友固辭以相讓讓
三四余遂先入及其過門劉友又先行凡過五門皆
如是也行到第六門有閣甚宏壯橫互百武衛守僕
數十輩例直於此也皆下階歡迎使坐於椅幾獨
供盥供茶飲畢皆洗面嗽口脫笠子著儒巾巾非聖
廟例用乃我準備者也行過三中門有三層渠渠者

曰奎文閣也過是閣而瞻宮則禮場方正廣而殿
可過數百步聖殿特在於場北而凡十間也階砌
石磨鋪退柱以玉裁建高可四五丈太過之
龍於柱身鍊金爲欄欄垂於東西翠壁丹楹朱棧
瓦盤鬱於半空題扁於外楹曰生民未有題內楹曰
大成殿行三拜九叩禮於殿階遂入殿奉審則中
五聖而孔子北奉向南顏惠東配向西曾孟西配向
東又十二哲分配於東西而六哲安於顏惠後亦
安於曾孟後蓋中古儒議以有若晦菴之學何及
哲追舉聖殿以配享是爲十二哲也五聖身生哲

以塑爲像孔子範九尺十圍而奉安於崇卓生不
瞻則不見面宛轉若望之儼卽之溫而令人興敬於
千載之下也遂感賦曰天地與終始厚高遂歎悠悠
方瞻日月萬代有春秋貌是七分觀道從六合求
溫望復儼起敬不知休五聖十二哲皆安以宋玉
像前以表其某位殿之東西設兩廡安七牛山及漢
唐宋元明清諸賢而皆用木主主面或書先儒或書
先賢先儒則若漢之諸儒也先賢則若宋之諸賢也
殿後有一廟曰寢殿安拜官氏而奉木主殿西又建
啓聖殿乃叔梁紇塑像所奉而曰殿以其追封啓聖

王故凡節皆用王禮也後又有一廟曰寢殿乃叔梁紇配位顏氏所奉也啓聖殿前亦有二門甚宏又聖廟墻內神廚庖廚家廟禮器庫樂器庫東西墻門碑閣等瓦屋比椽對楹於周五里而大成殿前東邊有宏精一閣扁曰聖公齊宿所乃衍聖公之享祀時樂齊也余登西廡奉審鄰友承一奉審於東廡廡互許里不可斯須盡審也守僕引余登奎文閣先以第來層則中設椅子無數若虛位而室甚幽邃余審看北壁壁是玉也而畫間以大屏樣子間間映像非畫非塑非雕若對鏡現面者凡四十餘像也問由於劉察

劉友曰此皆孔子像也而此個中有真面觀者審審
精詳則必有真面之所露也余乃奉審以至誠而
能辨其真面甚嘆甚嘆因登中層則暗昏陰沉不能
昭悉其如何而意是虛堂也攀梯登上層廣可以坐
萬人高可以建五丈旗倚欄而放眺身如憑虛也萬
家瓦屋比密滿城而絃誦之聲洋洋相傳府有新宇
街乙字街丁字街十街則直通于東西南北門之衝
丁街達於十街街鋪商廛交易之人亦可摩肩也馳
望則泰山縹緲於雲外東西南杳無山色而惟汶水
西流泗水東流穩流之光浮映於千里野史也雜糅

風煙不能盡收乃下閣行至中門門之泮人又供茶
飲罷給銀三圓劉友遂賦別曰吾家坊有客訪到
專价以報禮當在迎且今禮展已畢請以明河渡
余謝曰禮行終日心腑倒廩而忽然分張悵惘無色
因徐行出金聲玉振門車夫留待於牙馬碑前仍登
車直到於少霑公家十二日壬子是日乃清明節也
中華禮尚以是日祭墓與廟孔氏數百人皆赴聖林
亦盛儀也乃以一圓銀給尋玉庚買華壯紙并張欲
徵道統祠同文堂柱聯而封晦軒實記一帙并帶映
紙一封周紙一軸簡紙一軸同鄰友發向隣南蔣處

臣志堅家蓋虎臣曾經翰林而書畫見稱於華
令侃適出外而來問余所行余以實告之令侃曰余
步行之蔣家八外室對話半餉其春風儀範使人起
敬也趁暮而還十四日癸丑朝後又邀劉黎青偕往
陋巷街擬謁顏子廟而先訪其宗宅到其門外見
屋樣亦甚宏壯而題其外門楣曰世襲翰林院五經
博士問其胄孫養齋景埵於門价价曰主爺適往必
明天還駕遂向廟門守僕二人奉紙筆墨陪余兩前
導行當外門門之宏傑不下於金聲玉振門以石柱
橫遮於門之上下以石柱撐柱又以石裁駝及於柱

之西東西路守聖林東路守聖廟也入外門門內立
短碑書曰顏氏之子其庶幾凡過三大門而有廟廟
之制樣縱不及聖廟亦甚雄麗而楷柏之列植於牆
內金玉之華飾於欄檻丹雘之照耀於棟椽不可勝
記行三拜九叩禮入門奉審亦以塑像安奉仰觀
其玉貌粹潤寶所興感也出廟門轉東出中門廟
又有廟奉以塑像而廟制與塑體不及於右廟地
垣而審畢出外中門給一圓銀於奉覲守僕及守
還焉十五日甲寅承一全身生癩若疹證必是水
不服之所致也以余所帶衾重覆之使溫洽夕後

尋至庚步竹到孔瑞年家奉呈晦軒實記一帙
謝甚款焉對話有頃余謂瑞翁曰余來萬里而
是得謁衍聖公瑞翁曰吾今以私禮使遂况
余至聖公寢室使余立於門外瑞翁先入留
出迎余偕入聖公臥床強起瑞翁取筆寫聖公
照余曰貴賓來而病不能禮待愧悚愧悚仍
晦軒先生實記倡聖道於東方大令起敬使
醺甚款聖公之粹儀弘道寔所興感雖狀
困勞底樣子故不能倒困以陪晤只展謁
日乙卯承一癢肆仍添浮故欲用防風通
聖散取

圓銀給王庚使之製來適令侃自內而出見王庚所
指問其由王庚以實告令侃取銀還給余曰實病用
賓錢大壞主人也即使王庚依本方買來蓋製法箇
箇作丸丸如黍米遠看如散也服之再三度頗有差
效蓋王家之朝夕饋節極隆至於出入必備以車馬
實所未安且承一病臥故苦請以還店令侃曰出店
乃薄吾也又親教不許不可從命乃茲仍留館待賓
以腆禮似今初見也十七日丙辰令侃請余往孔教
總會會乃康南海有烏與少霑公之所設也會本擬
置於皇城矣衆議以爲皇城乃中華一國之所宗由

卑惟至聖發祥而聖廟聖林所在則乃天下萬邦之
所宗也移設於曲阜使皇城上海設事務所使雄淵
巨府設支會使郡縣諸部設分會蓋張皇其宗教也
總會社在於聖廟右門外四氏學學乃孔顏曾孟
氏之所學故扁曰四氏學也屋制甚宏可容數千
後有一廟而奉兩神位於北壁東奉位曰昊天上帝
神位西奉位曰至聖孔子神位此以孔子配上帝
也行三拜九叩禮退還于四氏學孔祥繁孔祥藻諸
公咸會十八日丁巳少霑公撰序文使命侃照其本
草曰安先生以總議著安子余三人齋拜以讚誦令

侃仍奉而入去有頃令侃奉正寫本以給按覽之其
文曰朝鮮開化最早知殷太師箕子之流澤長也我
先聖亦殷人春秋時發祥曲阜集羣聖之大成爲中
華立教之祖中東輝映蓋歷數千年於茲矣慨自秦
漢以還孔子之道久亂於異端曲說迨宋儒周程出
而道始明朱晦菴夫子又集羣賢之大成昌明聖學
啓千載之文明故讀六經者必以四子書爲階梯讀
四子書必以朱子近思錄爲階梯此學者入德之門
久垂定論中庸曰是以聲名洋溢乎中國施及蠻貊
凡有血氣莫不尊親聖人之道久必推行於五大洲

此中外所同認也而先被其化者實爲東華之國
季元初羅麗之際釋教大行儒術陵替歷數百年
安文成公晦軒先生後晦菴四十二年而生篤行好
學勵志希孔麗史忠烈王十五年從王入中國時朱
子書新行於燕都安子見之知爲孔學正脈遂手錄
之并寫孔朱真像以歸二十四年復入中國謁文廟
與學官辨論性理與朱子脗合無間學官等大加敬
嘆曰此東方朱晦菴也二十九年安子憂經籍未備
又送博士金文鼎於江南奉先聖諸賢之像求禮樂
器六經子史朱子新書而吾道東矣其爲學以誠敬

爲主克治既嚴表裏一致教人必先以孝悌忠信精
忠力踐引以至於高明之域本末備具階級不逾以
此人士皆依歸之無愧爲東方道學之祖忠肅王五
年從祀文廟宜矣論者爲儒教迂緩不足以應世變
而定邦家以故小華一域未克保守中朝亦愛莫能
助且宣統辛亥革命軍起而中華國體且變矣嗚呼
此豈足爲儒道咎哉國家之興廢乃一時政治之得
失天不變道亦不變聖人大同之教愈久而愈見其
真雖偶晦於一時必大明於萬世安子嘗奉孔子朱
子真像於京東里以闢異端崇儒教可謂識之卓而

慮之遠已今彼都人士協議重刊晦軒實記藏板於
硯山齋又建祠於其後奉孔子神位而以晦菴晦軒
兩先生配之定其號曰道統祠歲丁巳閔致亮李祥
奎李道樞鄭圭錫趙鎬來諸儒送安子裔孫買外郎
孝鎮君士人承一君偕承宣大夫尹憲燮君來華柱
顧敞廬并攜新刊一聖二賢編年年譜各一冊屬爲
校正祥霖衰病餘生曷克應命按孔子編年爲續漢
胡氏祖孫校刊朱子年譜本於寶應王懋竑所撰安
子年譜創輯於後孫正郎在默祠會士林病其疏脫
因叅之原本及實紀釐爲別本皆足以傳信後世

霜不揣謹陋謹書弁言如右以誌欽崇之意云爾
子二千四百六十八年閏二月日孔子七十五代孫
孔祥霖敬題余遂欽奉而納于行橐有頃令侃又題
余以聖公所撰神道碑文草余讚其大章然以孝鎮
承一徵文意與尹憲燮並載余謂令侃曰本孫徵文
碑曾既豎存而此乃士林所徵也則只載尹憲燮可
也令侃憲燮謂余過謙而詰焉余竟固執以剛辭令
侃憲燮乃以得義稱善少霑翁亦聞詰焉而向報以
善乃刪孝鎮承一以正之夕晚令侃奉正寫本以給
之其文曰東國故箕子治衍洪範以敘彝倫用夏

夷而後覺者鮮焉致陷異教凡千有餘年高麗之委
知尊聖道國庠鄉序文風蔚興羣賢輩出變而為
又六百有餘年余嘗謂其間必有豪傑之士作故
能變其難變也日有金鶴洙鄭閭朝李晚燧諸紳
送其舊僚尹憲燮抱晦軒實記一部走水陸數千里
訪余於闕里古宅徵晦軒之神道碑文以余為聖嗣
也按實記而三復之乃恍然於能變千有餘年異教
而明聖道至六百餘年者實為我晦軒安子也安子
高麗人也入中國見朱子書知為聖門嫡傳嘗曰欲
學仲尼先學晦菴遂摹聖幀及朱子真安於宅後精

而從祀以安子合刊編年年譜三書以垂百世邇遣
前承宣尹憲燮安子後孫孝鎮承一奉呈三書敢請
弁文特存法言一大章俾闡聖道於東方萬首齊包
另垂炳燭十九日戊午朝晚瑞年訪到敘話畢出給
請序書使獻于聖公撰序寄送于道統祠瑞年欽諾
奉去乃取映紙百枚分給於王庚輩仍欲還店令觀
固挽不許遂寫弁銘二文一付於永慕堂一付於道
統祠又書於李惠山祥奎鄭竹軒泰鉉二十日己未
早朝以發行意替告于少露公回報曰拙作序言祇
謬讚愧惶尚祈攜迴請諸同志方家改正敬宗守

庭所撰神道碑文諒亦脫稿并酌用可也其餘編類等件容俟郵寄近日手創痛甚手談亦不能暢悃對之至雖道遠以後可通音信道統祠孔教支會成立卽報告爲要又霑公使侃問余資斧足否余以剩有贏餘答之霑公命侃奉玉印聖像一本聖門禮樂誌各一本聖府故蹟數十種碑碣甲類印刷三十六種碑碣考一冊總會雜誌一冊總會章程十張以給余使置于道統祠以爲寓慕又使道統祠設孔教支會而寫帖以給之領納于行囊中霑公命侃又具馬車使餞于停車社其款禮不可拒矣余謂鄰友曰周公

廟在曲阜城西門外一舍之地曾孟兩聖廟在曲阜
城東門外七八十里許而禮當趁謁然只以王家馬
車僕夫之貽勞而未果第俟徵文後出店而行矣今
不得出留於店則遂至停車社定館留連幾日而周
遊至聖發祥之全境歷謁周曾孟三聖廟而後還國
可也鄰友曰然仍告別霑公以瘡苦不得出餞替書
以謝曰病不能送餞悵惘何如悚惶何如使余三
乘馬車令侃亦乘馬車率跟從四五人偕到停車社
買奉天票三枚以給余又招酒肴盛饋有頃天津車
忽到侃先卽登車余三人亦隨而登車向日所約留

店周覽勢自罷機嘆恨曷已及此而輒悔乎曾不猛
圖也該社曰曲阜站站本姚村爲名而境屬於曲阜
故乃號以曲阜站也因問侃曰餞于此站待賓禮至
矣而又登車何哉侃曰萬里遠賓止餞於十八里外
恐其疎矣且吾伯母在濟南一謁亦宜遂與同行因
賦贈侃曰許輸衷膽一旬過泗月涿風關里家惜別
猶餘殷款在送吾行到濟南車又賦曰堂堂行路自
安安萬里無難故國還鄒魯風煙收滿袖向東將照
舊人看又賦卽景曰向晚憑車放眺闌地形人事似
瞽看且怪迷茫煙霧裏童童暗樹起如出行止濟南

侃請賦別遂握手悵黯而分張余亦下車留宿于店
書二札一付于永慕堂一付于道統祠乍看站制甚
雄巨社舍可據一里人力車挾路分任可以千數東
凡三路分張北向天津東向煙台南向金陵二十
日庚申凌晨登車行過大陸有一府在於路右其城
勢雖頽殘廬屋甚稠密此乃趙平原君遺墟云也行
行宿于車中二十二日辛酉朝過黃河暮到天津下
車入悅來棧棧乃前過一宿所也棧主與茶童皆有
舊面出迎甚款歡焉夕飯後巡欄放眺萬戶燈籠定
起遠人旅懷遂攜鄉友承一下棧歷數十商店或

錦繡價或問金玉珠珀價到當一店乃藥酒家也沽
一壺三人分飲又沽二壺帶來以爲明日車中取興
之資彷徨嘯哦於大街上良久而還館挑燈對話仍
謀北京一見之舉而問於棧主棧主曰此距二百里
矣解橐置於此棧明曉登車則可到城於未明天也
盡日觀望趁暮而還棧可也余從棧主言而明天欲
往鄉友曰承一痛餘尚困吾亦身頗不健莫若直在
奉天以調理余從鄉友議而罷意因以興溢話闌未
暇就睡而遽奏二夏仍登車行至山海關朝已闌矣
二十三日壬戌抵奉天夜未央入朝華館館主權重

健出迎甚喜頽臥旅床百骸碎疼煎服敗毒散一點
二十四日癸亥曉起而視之牧山尹翁夜來同宿以
昏睡不知其聯枕積日勞攘亦覺其困茶也裁五帖
一付家兒一付明植一付菊圃一付惠山一付竹軒
昨過濟南楊柳青繁今於瀋陽楊柳微黃亦異常也
遂感賦曰濟柳青青瀋柳黃一春何事不同光職由
寒暖殊南北不是天施有短長安州族人擬徵其先
祖典書公壇碣陰記於薊友而囑余以申請故余以
其請札照薊友薊友不辭二十五日甲子朝後往薊
友室敘話竟日蓋奉天古之瀋陽而今曰南滿州也

土沃入稀又無戶役故東方人男負女戴日計百以
來而關西嶠南之人最多蓋地之爲郊也千里平廣
而本無水田東人始解作畚其喇尤多中州本自馬
繁牛殘牛之大者不過東國中牛耕多用馬馬不具
則且用驪其耕穩不及東也尹在方傳一札乃承龜
族之寄余而其義則乃開城多士擬建晦軒勅學碑
於開城成均館前而欲徵孔氏文也開城儒之慕賢
雖使起敬書滯於中間不及我在魯故不能致力咄
咄中州人聞余徵文事無數訪來請覽闕里文咸誦
其盛著且極口讚余曰東儒之崇賢迥出於萬邦或

醕酒以待也二十六日乙丑館主待余以午饌甚豐其款意可感且尹在方饋余以夕飯甚盛尤所可感也二十七日丙寅早朝別鄰友登車至安東縣日既過午以換車留數鍾頃於車店登車行至定州夜已央矣入允瑞家宿焉二十八日丁卯朝後訪秉怡族弔其父喪仍尋主守閔再鎬乍話以車站之告急卽向車社主守餞余於停車場其意甚勤行至安州驛下車入松城炳謙家留宿二十九日戊辰早朝欲發行淋國植榮鶴性鎮敬植諸族苦挽留一宿以治積愆余曰文旣徵矣不可汗漫逗遛諸族曰弁銘三文

方謦寫而未畢遂仍留到午而發抵停車社諸族並
來勸以崇酒三月一日己巳暮到京城入典洞石塘
翁家歡極而宿焉二日庚午訪譜所所自永慕堂移
于京城西門外吳貞淑方已閱旬矣老少僉族倒屣
欣迎停設饌以笑語送日從子源德亦無恙尤所
爲幸孔氏弁銘二文奉照于譜所在所僉員皆欽服
謦寫而銘本奉給于晦軒先祖主鬯孫都事鍾永氏
使奉于不祧廟世籍所藏卓架三日辛未僊劇調理
于典洞石塘庄承一告別歸家悵戀情私有非平昔
可比強疾出店酬醉以分張四日壬申曉服正氣散

一貼午服參五根夕服敗毒散一貼五日癸酉德猶
未悔又服雙和湯一貼六日甲戌呻苦頗解遂在譜
所話懷終日七日乙亥同鍾永秉鎔兩翁往茶屋聊
陽德錫永族家劇醉而還八日丙子安義鄭周聖文
燮同鄉李子明炳憲訪余於典洞敘話九日丁丑獨
周聖子明訪李友瓊瓊不家遂向水門洞訪李叅議
熙憲握歡半餉仍登酒樓劇酣帶月而歸十月初五
同鄉許上舍容斗鄭蓮汀煥喆鄭乃薰在璟訪余於
典洞晤語移時鄉懷乍謝十一日己卯同菊圃我若
兩族翁訪張韋堂志淵于包洞倒廩半餉而歸十二

日庚辰同鄉鄭進士淳賢訪余歡劇夜闌而去十三
日辛巳同鍾永鍾恆秉鎔紀淵熙載承龜僉族與許
容斗鄭在璟二友往經學院院卽成均館也惟司成
朴穉祥直員鄭喆永在矣說與華行事因照其文朴
鄭兩友皆欽讀曰有斯德必有斯報安子倡道之蹟
與天地終始仍道崇報祠之實由遂向其祠祠在成
均館之後右蓋泮人廢古之報本壇仍立崇祠以主
已日報祀乃其報舊主也先子勅太學時納奴婢
口使之供役今之泮人
其後展謁而還十四日壬午同菊圃叅奉濤賀未大
也極曲柄扇各十枚仍裁衍聖公少霑公及瑞年令侃

書并付于闕里十五日癸未早登南車直抵金泉下車入旅舍該郡百花洞李教官教達聞余行聲晝夜以待遂對蓋歡仍與同宿十六日甲申別李友登甸動車直到九羅村下車入介坪竹軒庄鄭玉泉煥宗鄭宜石義鉉鄭稼軒在瑋鄭丹石琦鉉鄭槐庭汶鉉盧雲松奭鉉鄭素石友民鄭貧園宇鉉諸友皆在座蹶然起迎笑語跌宕之際鄭丈山在千李梅庭碩信從弟光鎮與盧進士碩泳並到爛據十七日乙酉鄭茶泉翼鉉盧無名窩正鉉鄭梅下準民及鄭參奉近相同來敘話十八日丙戌竹軒翁命一僮使擔橐

還家一門合眷依穩甚幸越晦日赴道統祠得惠
李月淵鄭驥汀李素山趙霞峯文默字黃東湖命
後先來集安洛鎮安源哲安源張安源貞安定植
明植安炳周老少諸族咸會以敘倫堂有司出示
聖公書與序少霑公暨瑞年令侃書乃余闕里賦
後寄郵以到而留在堂案已閱旬矣謹閱而奉覽
聖公書曰安君雅鑒春間遠荷惠臨得瞻雅範恩
返旆輜褻殊多既幸且愧辰維元旋迪吉無任頌
令貽闕里守祧幸無隕越居諸虛擲之淑堪陳
齋下金鄭李諸君一書閔李趙鄭諸君一書命作安

子神道碑文及孔子編年朱子年譜安子年譜合刊
序文電勉撰就而序茲稽付各覆一函錄稿呈政由
郵寄上所察八俯賜轉呈示覆是所至禱泐此奉布
順請大安伏乞回賜垂察不既序文在下又少霑光
生書曰安孝鎮先生大鑒手書謹悉卓識偉論佩服
曷勝聖教之保存爲當今第一要務弟不才忝任總
理兼以衰痛一切未克進行殊深悚懼尊意擬開支
會於晉州道統祠甚善甚善但不悖本會章程儘可
自由組織本會槩不干涉惟俟開成立會後將會員
名數會長姓名及辦理情形以一紙報告于本總會

可也茲有總會章程數張及去年大會報告一本送上察照弟日來手創復痛勉強執筆上復瑞年書田安孝鎮先生大鑒丁巳年閏月同貴省諸君子不遠數千里辱臨敝邑得晤大雅光輝卓爾不羣維聖道於東方守斯文於直道受益多多實爲欽佩越三月十四日接奉華翰敬悉種切又承厚貺猥以葑菲之材自慚樸拙而厚情高誼見愛良殷况雲山迢遞用情周到之至誠卻之不恭受之有愧耳錫在聖公府司招待之職除酬應之外不無瑣事加以疏懶成性未及裁答實深抱愧今特敬具蕪牋聊伸謝悃並候

起行安善望乞察收是幸令侃書曰安孝鎮老先生
閣下頃奉來函敬悉種切前閣下及鄉友承兩先
生旅行我邑下榻寒舍招待不周未幾分枝各駕北
行上月得讀手書并賜曲太極各扇厚情可感多謝
藉審彼二君皆抱採薪之憂吉人天相當早占勿藥
念甚念甚近維起居多福爲道自愛是祝家君瘡疾
剋尚未愈然較前稍輕額聯俟愈時舟寫寄上不誤
兩奉教言今方作答手惰之咎僕不得辭尚望原宥
是幸覆此並請大安余乃答上衍聖公書曰孝鎮
禮白上春多吉攀躋聖府獲償夙願今承寵函得

至榮感林之誠已傾愚衷矧復賜以大著二文俾扶
一線道脈於異教懷襄之東方耶士皆重若天球延
頸擎手目覽口誦又謄寫以家珍而戶壁者蓋以其
先聖夫子曾孫之繡肚所吐嗚呼夫子之道賴是而
不墜則寔我東方再造之恩也愛戴欽誦不惟孝鎮
之畢生無已東方多士無不上手屈脛北首齊賀孝
鎮近遭仲兄喪慟苦情私無以盡達但道統祠支會
頗有擴就之道是云幸耳尹憲變現寓于中華瀋陽
安承一亦家於絕遠之地故俯問至意皆替郵轉傳
另存下燭答上少霑先生書曰叨陪函筵辭還故國

動經五朔嚮慕一緒鬱結于中而欲弛不得今伏承
寵垂恩書審得瀘患差向復道遠外仰慰實無右於
此報孝鎮赴祠今閱一旬而尚叫宿楚是乃役萬里
積愆之餘肆耶不勝愧咄孔教支會以函文命義歸
報於本祠諸儒咸曰天不欲喪斯文冥詔於老先生
俾扶垂墜聖道于吾東一齊奮厥神氣且立歧遲回
者聞立會消息翻然相謂曰少霑先生卽吾夫子之
肖裔天下之大家也不信乎此而復誰依歸爭投名
帖勸以千計遂開大會定其規例分其職任擬將印
照于八域而先且繕寫一帖奉獻于軒下祈以釐正

俾協實務且一言勉命於帖首大令東人有所依附
信仰千萬千萬答令侃書曰惠垂復教亶出迴眷目
覽口讀擊不釋手紙旣毛而毛且秃仁兄之與人衷
感至此極哉郵便傳命遽涉二旬不審大庭老先生
手瘡愆候已臻天和定省餘棣床湛翁有優於詩禮
涵泳耶仰慮仰祝後先勞悃孝鎮以會事組織酷被
衆友之挽引尚未歸家頗覺旅味之轉苦越五日衍
聖公撰正三譜序又寫祠額以致書曰安君雅鑒接
奉覆函讀悉壹是稔聞鶴原之痛不勝馳系尚冀善
加珍衛是所禱祈拙作二文方慚譏陋乃荷異常被

餅益增汗顏晦軒安先生以總詩已改稱安子則文
撰自應一律卽請將敝序中晦軒安先生改爲晦軒
安子其稱安先生及先生處皆改安子至諸君子
功實不在安子下并非過情之舉此語自當仍之不
必過謙也其用先聖紀年遵改全書改刊成後尚祈
見惠數部爲幸道統祠額遵命書就寄上卽乞察收
此覆順請近安諸惟垂察不宣其序文曰聖人之道
大而博學焉而各得其所近是以及門有四科之別
遞傳有八儒之分近世乃有漢學宋學之判宋學又
有朱陸之異同所謂洙泗之間斷斷如也實則皆所

以學聖人之道本不必過於自分畛域也然從入之途則不可不擇漢學家重考據謂朱子偏於義理陸學家重尊德性謂朱子偏於道問學然則朱子適兼二者而有之矣故入德之門以師朱子爲最得其門高麗晦軒安子之學專宗朱子以上希聖道可爲能自得師矣東國自安子以來學風丕興於今數百年其教倡明有小中華之目邇者世局奇變異說競作東國諸儒懼聖教之將墜建道統祠於硯山奉先聖像配以朱子而從祀以安子合刻孔子編年朱子年譜安子年譜三書藏之祠中以爲國人矜式問序於余

余惟學問之道莫貴中庸先聖所以爲百世師正以其庸言之信庸行之謹不爲新奇過高之論故能千古循之而無弊也今之邪說橫流何莫非過於求新求高之流弊乎朱子之學慥慥篤實不敢稍騖高遠允爲聖學真傳安子宗之亦同此正軌今此三譜列先聖昔賢平生行事以示國人正如天之四時行百物生爲不言之教東方學者誠能奉爲規矚亦步亦趨吾知先正典型必能永保不愆不爲末世波流之所汨則諸君子之功不在安子下矣此余所以東望率然不敢辭以一言進也余與李惠山及趙霞峯同

修道統祠規則一冊奉上于少霑公而裁書並呈矣
答書曰安孝鎮先生大鑒前奉手書並寄到規則一
冊捧讀之下足見衛道熱衷不遺餘力所訂條文周
詳完密極臻要善欽佩欽佩惟承屬拙書各件本當
早日奉上奈自台旌去後霖卽患病纏綿床褥至今
未起容俟少爲痊可再圖復命頃辱函催先此奉繳
順頌道綏惟照不一域內有懷異人以入闕里毀道
統祠之意匿名投書於本祠故余欲躬往對質而發
程到京京會僉族皆曰萬里遠路不可輕往今此先
書于衍聖公得見其回報後去就可也乃循僉議而

修書寄上矣答書曰安君雅鑒屢奉惠函企荷隆貺
謝謝適以公赴燕都未能卽復爲歉遙惟道履暢亨
懿行廣被頌禱無量來書謂有懷異者欲以萋斐之
言來相誣罔希圖侮蔑道統祠并無其事諸君尊師
重道奉行惟謹此心耿耿可表天日斷非蜚語所能
間卽或有以讒慝相加者令貽亦萬不肯輕聽幸緣
塵念至航海來華一節固所歡迎但令貽將有遠行
歸期未可卽定恐從者惠顧之日正令貽佗出之時
萬望跋涉不得一面殊非得計深望勿輕舉玉趾良
語有緣正可圖諸異日也恩恩佈臆愧無伴函之物

專泐覆頌公綏越月少霑公撰寄道統祠支會頌曰
聖道之大流行萬里入同此心心同此理箕封故域
代有傳人晦軒初始吾道常存因時立會無間西東
執誠毅力告厥成功八道同心干城是賴吾道大昌
外莫能外會祠諸儒皆愛讀欽誦余亦撰孔教創會
頌寄上於總理少霑公曰天縱地毓孔子于生建極
萬世敷教八方覺有我祖施及我東國庠鄉序家誦
戶絃夷變而華六百斯年大宇忽暝洪濤懷襄綱頽
倫弛人獸同疆大家是懼會同闕里木鐸重警起惰
遐邇萬里海外且聞厥聲爰文支會硯山之巖

諸航多迴絕潢日月容照萬國同光天地之道至聖先
後往萬來億生民未有暫晦何患愈久愈真有人有
道無道無人晦軒先子神道碑士林與本孫協議致
力伐珉於江華海運以船陸運以車治以豐崇請使
海觀判書尹公用求正書衍聖公所撰文豎建于大
德山先子墓下永慕堂前仍印刻本又印祠額刻本
奉呈于聖府而碑文印本以金叅判鄭叅判李校理
三老名裁函祠額印本以李惠山李月淵鄭驥汀趙
霞峯四老名裁函以寄上閱未數月少霑公訃書忽
到道統祠支會僉員皆望風痛嘆挽誄以寄送者數

十餘人余亦挽三絕曰叩曾落魄不堪居萬里驚
一訃書屹柱頹波扶道力有誰能與大爺如及幾猶
容似我癡冒風扶疾賜顏時煌煌撰語光三譜萬世
垂猷道統祠天寒木落雨蕭蕭眼斷中州首夏翹聖
範惟留洙泗月照東煩我記宵宵又有祭文曰恭惟
聖門先生乃生鸞鳳之姿光岳之精學懋時敏孝格
神明大家詩禮克紹厥聲於不顯乎早歲蜚英金閨
珮珮主節羽旌志非溫飽奚役榮名希文二憂君實
一誠量八量出時止時行柰氣數何風潮震驚神州
陸沉大廈榱傾學弊道喪俗益晦肯以一身分自在

興平湖學績茂河臬風清興儒育材斯邁斯征善萌
透燠游刃恢鯨庶務咸底宗教可貞乃倡孔會于海
于京爰豎赤幟曲阜古城總理注措允協輿情仰以
山斗徧于寰瀛粵我箕邦梵唄縱橫晦祖扶斥聖道
大亨變夷爲夏家絃戶響巧厥表章始遂識荆不我
遐陋曰弟曰兄克恢家學闡我文成敷司徒教演考
父銘有斐絢藻大放瑤瓊昏衢燭炳蟄域雷轟闔族
感戴泰河猶輕永以惠我卜言積庚孰料一夕遽追
夢楹如隱漢淵如微慷慨又闕痛伏隔於脩程每仰
梁月幾度眉盈蓬寄濱綿痛哭千莖異遇曷報餘韻

莫賡一幅遺真千古典刑顧我右我惟先生靈又修
少霑公胤子令佑令侃令健令佺僉哀慰疏繹紙曰
蹈循禮書所蘊莫馨竊惟先府君老先生病患雖曰
沉重惟僉哀純孝感神且天必不喪斯文則宜有冥
助以謂躋筵遐域而日俟吉報也忽承訃書不審瘡
痢變患釀禍竟使中東儒徒失燭迷行而號泣於昏
衢耶孝鎮尤蒙至德不能再謀叨陪遽告永設至痛
復何可極地距萬里不克奔走乃以三絕挽數行誄
循例以寄郵道理蔑矣情禮掃矣惡可望厚原也只
自北望痛叫也已僉收諸員挽誄合封以寄送矣僉

哀孔兄躡函疏謝於挽誄諸人越一旬尹鄉友訃書
忽到而胤哀壟未詳其任所故未能致挽誄而動經
三霜適菊圃族翁以先事作義州行而韓友葬云在
安東縣州距縣乃一江有間矣菊翁製文擬祭墓故
余亦著誄文付菊翁使祭于墓曰嗚呼惟公繩墨齋
家詩禮服業已成異器而早能筮仕歷敷內外朝右
倚顧不欲無公於一日也而一朝捨故土走殊域竟
葬于南滿荒堆者以公視之則可哀也以國人視之
則可惜也天胡不畚其懿德而獨畚其壽使畜其義
而便不遂其志耶造化翁之取舍予奪固不可測也

雖然風聲之樹諸五服之口而垂之百世者洪水燹
可以泯沒哉公嘗憂斯道之衰墜同余在中華關里
徵我晦軒先子神道碑文若道統祠編年年譜合刻
序於孔子胄孫燕庭衍聖公及聖府元老少露先生
而來此雖出於崇賢衛道之血誠其所冒風雪踏冰
陸而萬里賢勞者不但八域士類之崇拜也寔我安
闔族之所感戴况余越境同役而照肝輸膽翱翔乎
黃河泰山嘯詠乎汶風洙月肅瞻敬展而得遂至願
於聖廟聖林者乎始聞不淑如割骨肉道途脩遠不
克奔走只自翹首頓足嚶嗷塞魂散而動經三霜几筵

奄撤九原莫作難追辜負今因族人秉鎔替醑于土
封之前而告之靈其知乎不知乎涕淚同賈千古至
恨本祠以中東諸方家致誠衛護凡務皆善就文字
亦美備而惟紀實碑文闕焉嘗聞中華崇安縣朱子
后孫緝齋敬熙之聲華然以地距絕遠不能專謁員
爲恨適有安州族人在熙之所薦乃博川雅士朴景
山炳疆也而尋師早遊於緝齋門者也遂使在熙囑
于炳疆余遂致書于炳疆曰縱之雅分近因弊族在
熙稔聞聲華而向傾瓣香有若蕙之於蘭也嗚呼今
聖道墜地冠裳之爲筮籬可謂舉天下皆然而乃有

朱緝齋先生作於晦菴夫子之門以闢異學明聖道
爲己任儘承晦翁遺緒也毅我足下挺身奮勇舉翻
乎九霄雲衢而止於邱隅以熏陶乎法門此必天佑
我東方篤生足下俾扶斯文也顧此硯山之道統祠
亦域內士大夫志與足下同焉者實捍萬弩四至而
獲被闕里衍聖公孔令貽少霑翁孔祥霖之盡心力
勸獎十分擴張足下必燭悉於在熙叻報也祠旣就
焉則舉實以銘石垂之百世義不可闕也故方伐犬
珉致于祠庭擬徵緝齋先生之法文然萬里隔絕恨
無梯緣矣適有足下而志在本祠此實天眷而借便

也請誦祠蹟於緝翁徵寄于本祠頂手以企堂儒李
道樞鄭閻教李鎮輔趙相來安明植聯名致書于緝
齋曰朱緝齋先生崇鑒伏以硯山於武夷地距萬里
界分中東承顏接辭縱不能償願傾衷慕遑不自不
勤茲敢北首齊顛仰乞道統祠記實碑文請以衛道
博義迴垂炳燭焉發祥乎中華而立宗教於天下至
聖孔子也發明至聖教於天下晦菴朱子也學宗朱
子闡海東之至聖教晦軒安子也此東邦多士所以
建道統祠於硯山奉至聖像配以朱子而從祀以安
子合刻編年年譜三書閣而藏之以爲依歸也血氣

所尊天下攸同然異學滔天祠是萬頃頽波之一柱
也遂徵道統祠三譜序於闕里衍聖公孔令貽少虛
翁孔祥霖刊頒於天下惟茲所未能鉞巨石而垂百
世乃祠之記實碑文也敢將衷悃注向武夷而替使
吾黨人朴炳疆排萬歧尋九曲致誠以謁焉者寔由
我晦菴夫子孫緝齋先生克紹先緒而道同憂同也
祠之實蹟載於年譜實記另加覽悉而特著太章俾
扶斯道於海東至祝至祝緝齋答書曰同文堂諸先
生均鑿萬里重洋難親道範登高望遠夢轂爲勞竊
以中國有孔聖人猶天之有日星地之有河嶽朱文

公生孔聖後重復講明絕學繼往開來而貴國安文
成公又獨能服膺朱子遙接道統之傳使舉國翕然
風從至今不墜誠世界卓越之賢豪古今不可多得
者也貴國諸君子爲勗葺道統祠於硯山仰見扶持
聖教表率海邦不獨崇德報功實裨益於世道人心
者不尠佗日貴國文治之盛可於此預卜之矣賀賀
今祠已落成諸君子又復不憚煩勞求碑文於千萬
里外部人才疎學淺曷敢居著作之林然雅意殷拳
又不得不力圖報命但微才蠹測難名聖道之高深
而未學蠹辭莫副鈞期之遠大謹撰紀實碑記郵寄

台端到新察收諸爲哂政臨類不勝神馳敬請道安
諸君子均此未另其碑文曰朝鮮爲箕子舊國人被
禮樂之化風俗醇美號爲易治洎尼山講學聖道大
明風聲所被遠及海外而朝鮮之人亦漸知有孔門
之教與吾中國無異數千年間相習不改直至宋元
之際佛教盛行風氣爲之一變原佛氏之旨以慈悲
爲心以清淨爲理主於蠲忿息爭其用意固亦無惡
於天下然至使人舉其心思才力悉宿於無用之地
而不復從事於綱常倫紀之大使盡如其所言則人
類幾乎絕矣此其所以蔽也安文成公生於其時慨

然以尊崇孔教專意屏佛爲事詩詩講道口舌魚鮪
從其說者甚衆又以吾家考亭先生生南宋之世直
接洛學之傳於孔氏實爲私淑弟子其書具在尊孔
教而不讀是書是登山而無階級涉水而無津梁亦
可得而至乃復服膺考亭先生平生著述因號曰晦
軒以示高山仰止之意距今又七百餘年矣國統之
延不絕如綫而一國之人相與講明道德遵安子之
訓者無異昔時國勢雖微人心尚固其國之再興可
計日以待也頃者國中有志之士將其舊有晉州硯
山齋葺而新之曰同文堂又建道統祠于其上祀宣

聖於中以考亭先生既而安子亦得後示訪益華也
工既竣朴君炳疆紀其本末訪余於武夷五曲紫陽
書院而命爲之記以示後世是役也李道默李祥奎
趙鎬來鄭圭錫安孝鎮諸儒實爲之倡焉而宣力於
斯碑者許駿金容禧沈宜玆朱南德也蓋余華行以
文主義故中華諸公之所撰銘序及往復書札略舉
而并錄遂使閔應七禎懾沈景晦相福勘正其差謬
仍使尹孔見容洙李性伯萬榮正寫命孫兒甲植以
藏之芝山安孝鎮題

華行日記跋

人之所以爲人者道也道之所由必先乎三綱五常也故綱常行焉則世遂以興泰綱常不行焉則世遂以衰頹此固一日不可無乎天地之間也然道未嘗自行待人而行道未嘗自明待人而明苟其極衰而極亂則天必生扶道之人立教明倫以垂憲萬世昔我晦軒先子倡起麗季掃廓羣陰尊禮聖像左海旣夷而華天地將晦而明垂之六百餘年嗚呼至哉然而異道之熾莫今時若也則三綱絕焉五常淪焉不有以救之道幾乎休矣於是域內大家諸儒與堂兄

芝山公創建道統祠於晉州之硯山奉至聖像配以
朱子而從祀以安子春秋以俎豆而講道焉又復鐫
聖蹟印賢譜使之家誦而戶曉亦盛舉也然而與其
同乎一國不若同乎天下况闕里聖人發祥之地乎
既泐聖祠則諦於聖府宜矣編年年譜之序先子神
道碑銘擬徵於至聖之孫而士林與諸族爛議推公
公遂奮然載旌以旣厥事凡諸觀風之間記其耳目
所及曰華竹日記蓋其大旨皆憂道也余乃感欽不
揆譎劣敢書于此壬戌元月七日從弟光鎮敬識
稿是我叔父芝山先生入魯記實也山水遊觀之勝

人之能焉者多而至若觀風中華遵其物采則儔或
寡焉况斯文大事乎於戲孔子之道與穹壤同弊而
薄海之化先及東方紹其緒明其道爲萬世開太平
者惟我晦軒先子也然而世遠教弛大道不明變夷
之嘆又切於今日則奉聖像而俎豆之煥賢跡而崇
瞻焉使有彝性者爲之依歸而永被教雨之澤誠吾
道夏振之秋也於是乎先生請文之駕稅于昌平理
勢之使然也而行邁之間記其事實之顛末成一冊
曰華行日記識者謂有賢勞矣但以千重溟渤萬里
長程閱時月而返哉蓋其傷世憂道之志溢於辭表

而使此權域其所尊聖衛道之實蹟發明於此行豈
可與遊覽山水之行同日而語哉小子不勝欽感略
舉而敢書上章沼灘孟春上泮從子源德敬識
是我三從祖芝山先生華行日記也記殊字凡錄行
非取勝優游乃衛道求文也華非趙魏楚蜀乃魯也
孔子發祥於魯立宗教於萬邦世稱其所居闕里曰
聖府世襲其所嗣嫡孫曰衍聖公巍乎聖府萬邦所
重懿乎衍聖公萬邦所貴也凡有慕聖血氣者莫不
有一觀之志願然東邦距會絕遠以萬里苟非勇與
智仁兼達德者不能也先生素賦以智仁而嘗養勇

編者略歷

· 林基中 ·

東國大學校 文科大學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體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研究』, 『佛敎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냄.

燕行錄全集 99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 者 : 林 基 中

發行人 : 宋 錫 球

發行處 :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 · 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 帙 (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9-4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